



하서 김인후, 지성과 실천

- 『하서전집』 국역을 통해 본
학문과 사상의 현대적 가치

제9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2025. 7. 10(목) 13:30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 및 주관 | 한국학호남진흥원 · 필암서원



CONTENTS

하서 김인후, 지성과 실천

- 『하서전집』 국역을 통해 본 학문과 사상의 현대적 가치

개회
13:30~13:45

개회사 및 축사

-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 김한종 장성군수
-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 김상백 필암서원 도유사

주제발표
13:50~16:20

- 김창호 하서(河西) 시의 두 갈래 주정적(主情的) 흐름과 그 의미..... 07
원광대학교
- 김용재 호남의 獅子, 하서 김인후의 義理와 시대정신[時習] 23
- ‘전문 학술성’과 ‘대중 확산성’을 위한 접점과 간극
성균관대학교
- 안동교 하서 김인후의 교육활동과 門人들 51
한국학호남진흥원
- 조미은 조선후기 하서 김인후의 贈諡와 文廟從祀 연구 73
- 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
- 최혜미 『河西全集』 소재 한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111
고려대학교

좌장 : 최영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종합토론
16:30~17:30

- 이국진 「하서(河西) 시의 두 갈래 주정적(主情的) 흐름과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 127
강원대학교
- 진성수 「호남의 獅子, 하서 김인후의 義理와 시대정신[時習]」에 대한 토론문..... 128
전북대학교
- 정영수 「하서 김인후의 교육활동과 門人들」에 대한 토론문 130
전남대학교
- 이근호 「조선후기 하서 김인후의 贈諡와 文廟從祀 연구」에 대한 토론문 132
충남대학교
- 이승희 「『河西全集』 소재 한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에 대한 토론문 134
울산대학교

하서 김인후, 지성과 실천

☰ ☷ << 발표문

- 『하서전집』 국역을 통해 본 학문과 사상의 현대적 가치

하서(河西) 시의 두 갈래 주정적(主情的) 흐름과 그 의미
김창호 원광대학교

호남의 獅子, 하서 김인후의 義理와 시대정신[時習]
- '전문 학술성'과 '대중 확산성'을 위한 접점과 간극
김용재 성균관대학교

하서 김인후의 교육활동과 門人들
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조선후기 하서 김인후의 贈諡와 文廟從祀 연구
- 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미은 한국학호남진흥원

『河西全集』 소재 한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최혜미 고려대학교

하서(河西) 시의 두 갈래 주정적(主情的) 흐름과 그 의미

김창호(원광대학교)

•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하서에게 있어서의 ‘시’의 의미
3. 하서 시의 두 갈래 주정적 흐름과 그 의미
 - 1) 어긋난 성세(盛世)의 꿈과 비분의 시
 - 2) 학인으로서의 자아상과 증점 기상의 회구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하서 김인후 시의 주정적 성격에 주목하고, 그것이 어떠한 주제적, 사상적 기반을 가지는가를 해명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¹⁾

김인후는 도학·절의·문장을 겸비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²⁾ 도학에 대한 접근 이외에, 그가 남긴 1600여 수의 시는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김인후의 시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문학 전반³⁾과 시론⁴⁾, 도학적 시세계에서의 풍격⁵⁾과 주정적 특성⁶⁾ 및 자연시⁷⁾, 염락풍 시⁸⁾에 대한 접근, 작가론⁹⁾, 점암촌 퇴거기 작품에 대한 연구¹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생애와 시를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있다.

- 1) 김인후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1510년 7월 전라도 장성현 대맥동에서 태어났다. 10세에 전라도관찰사 김안국을 만나 ‘어린 빛[소우]’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20대 중반에 성균관 유학을 하였으며 중종 35년(1540) 별시 문과에 합격한다. 3년 후에는 세자시강원설서가 되어 세자를 보필했는데 이때 『주자대전(朱子大全)』목죽도(墨竹圖)를 하사받는다. 이해 12월에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하여 옥과현감으로 나간다. 1545년 7월 인종이 승하하자 병을 핑계하여 사직하고 귀향한다. 39세(1548)부터 2년간 순창 점암촌에 우거하기도 하였으며, 수차 관직에 제수되지만 사양한다. 기대승, 이항 등과 학문을 강론하던 그는 1560년 1월 16일 5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 2) 宋時烈, 『宋子大全』권154, 「河西金先生神道碑銘」, “國朝人物, 道學節義文章, 忒有品差, 其兼有而不偏者無幾矣. 天佑我東, 鍾生河西金先生, 則殆庶幾焉.”
- 3) 조기영(1994), 『하서 김인후의 시문학 연구: 도학적 세계인식과 시적범주』, 아세아문화사.
- 4) 김흥규(1996), 「하서 시론에서의 흥과性情의 관계」, 『하서기념학술발표회논문집』.
- 5) 이동환(1996), 「하서의 도학적 시세계 - 특히 그 ‘豪放’과 ‘慷慨悲憤’의 풍격을 중심으로」, 『하서기념학술발표회논문집』.
- 6) 김종진(1996), 「하서 김인후의 ‘主情的道學’의 詩觀과 시세계」, 『하서기념학술발표회논문집』.
- 7) 박성규(2002), 「하서 김인후의 자연시 연구」, 『한문교육연구』18, 한국한문교육학회.
- 8) 김동하(2012), 「하서 김인후 시에 나타난 염락풍」, 『한국고시가문화연구』30, 한국고시가문화학회.
- 9) 권순열(2011), 「하서 김인후 연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28, 한국고시가문화학회.
- 10) 김남이(2017), 「하서 김인후의 <잠부자가><공동자가><차증양생증명> 연구」, 『한국한시연구』25, 한국한시학회.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김인후 시의 주정성이다. 그는 도학자로서 적지 않은 도학적 시들을 남기고 있다. 대개의 도학시는 오도(悟道)로부터 생긴 감정을 읊는다는 점에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감정의 강렬한 표출은 도학적 자아(自我)의 지속에 저해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다.¹¹⁾ 그의 시는 도학적 기풍을 띠고 있음에도 강렬한 감정을 드러낸 것들이 많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감정의 표현을 시세계의 특성으로 제시하면서 당대 상황 및 개인적 처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그의 시에 드러나는 감정 표출에 다양한 관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적 상황 변화나 개인적 처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하서 시에 두 갈래 주정적 흐름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성리학적 탐구의 과정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현실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두 가지 감정은 동질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경로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그의 삶과 학문이라는 하나의 구도 안에서 종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정의 흐름에 대한 해명에 앞서, 하서에게 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2. 하서에게 있어서의 ‘시’의 의미

북송(北宋) 성리학자들에 의해 주창되고 16세기 조선에서 심화되던 채도적(載道的) 문학관은 하서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서는 도학이 문학의 우위에 있으며, 문학은 도학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문학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많은 시를 남겼고 시작(詩作)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吟示景范催和>

뜻에 화답함에 어찌 운이 필요하리

시를 보는 것은 성정에 달렸네

『시경』과 『서경』의 이어서 노래하고 화답한 곳에서

고인의 정을 볼 수 있다네

和意寧須韻 觀詩在性情

詩書賡答處 可見古人情¹²⁾

사위이자 제자인 조희문(趙希文)에게 준 시이다. 하서는 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운(韻)이 아니라 시에 담긴 성정(性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형식적인 제약이 없을 수 없지만, 본질은 곧 시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이다.¹³⁾ 이것은 역으로 시인의 입장에서는

11) 이동환, 앞의 논문.

12)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5. 한시 작품의 번역은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국역하서선생집>의 것을 토대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다.

13)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8, 「夢中作」. “先教心地正, 方可語言新.”

마음을 바르게 해야 언어가 새로울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한 언어는 선한 마음을 감발하고 방일한 뜻을 징창(懲創)할 수 있다.¹⁴⁾

<梁季明 因仲明 求寫詩書正文題目> 其二

『대학』은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모름지기 『논어』와 『맹자』로 참조해야 하네
주나라 시는 감격이 많으니
옹조리면 성정이 함양되네
大學規模定 須將語孟參
周詩多感激 吟咏性情涵¹⁵⁾

권면의 내용인 이 시는 양자정의 아우인 양자정에게 준 것이다. 후반부에 시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요지는 성정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시경』을 애독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시경』 시에 감격(感激)이 많다는 것인데, 이 말은 성정에서 우러나온 『시경』 시를 읽고 감화·분발함으로써,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고 본연(本然)의 선심을 흥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일상 속의 하서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조희문의 “어떤 이가 하서의 시와 술에 대해 묻다”라는 제목의 시에는 “시를 읊어서 흥을 부치고, 술 좋아함은 시를 읽기 위해서였네.”¹⁶⁾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서 스스로도 다음 같이 고백하고 있다.

<和仁仲>

하서가 시 읊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홀로 늙는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서라네
옹고 나면 정신이 온통 황량하고 쓸쓸하니
외물에 빠지면 사람이 바뀌는 것을 비로소 알겠소

河西非是愛吟詩 不耐寥寥獨臥時
詠罷精神渾索漠 方知玩物使人移¹⁷⁾

벗이자 사돈인 유희춘(柳希春)에게 준 것이다. 이 시에는 시작(詩作)의 양면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홀로 있을 때에 시는 자기 위로의 수단이자 파적(破敵)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시작에 집중하고 나면 정신이 삭막하고 황폐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하서는 도학자적 관성으로 완물상지(玩物喪志)를 경계하고 있다. 다음의 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4)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6, 「吟示景范仲明」. “詩道非他本性情, 吟來善惡各分明. 從容直到和平處, 事物當前理自呈.”

15)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5.

16) 金麟厚, 『河西先生全集續集』권2, 「有人問河西詩酒」. “吟詩因寄興, 愛酒爲忘愁.”

17)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7.

<寄孝先> 其三

일찍이 사부(詞賦)에 탐닉하며 헛된 명성만 일삼더니
늘그막에 무능하여 학문을 못 이뤘네
해묵은 거울을 그 누가 닦아주어
하루아침에 옛날의 밝음을 다시 보리오
早耽雕篆事虛名 向晚無能學未成
古鏡誰將磨洗出 一朝重見舊時明¹⁸⁾

이 시는 시작에 빠져 학문에 소홀했다는 반성의 내용이다. 지향해야 할 것은 거울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듯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라는 것이다. 겸사적인 내용이지만 시작에의 매몰을 경계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몇 편의 시에서도 “사장의 습관 벗지 못하여, 여러 해 동안 미치광이 노릇 하였네”¹⁹⁾, “사장은 오래가는 것 아니니, 활짝 핀 꽃은 가을 앞서 시드는 것과 같네.”²⁰⁾, “잠시 밝은 창가에서 이치를 찾을 것이지 사마상여 뒤따라 <능운부> 를 짓지 마오.”²¹⁾라는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패턴화된 언급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시를 떼어놓기 어렵다는 자기고백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상은 시와 시작에 대한 하서의 기본적인 관점을 잘 보여준다. 하서는 평생 도학자로서 보편적으로 내재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부에 전념했고 시작의 폐단을 경계했지만, 시 창작은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하서 시의 두 갈래 주정적 흐름과 그 의미

1) 어긋난 성세(盛世)의 꿈과 비분의 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서의 시는 도학자 일반의 시와 달리 감정 표현이 강렬한 편이다. 선행 성과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출처의 과정에서 있었던 성세에 대한 꿈과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굴곡에 대응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정서가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표출되고 수렴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清遠樓>

주인이 산과 바다에 누워있으니
당호를 청원이라 지었네
월출산은 호남의 유일한 명산
구름 노을 반공에 높이 솟았네
서쪽으로 덕진포를 내려다보니
석양녘 천 척의 돛단배 돌아오네

18)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권6.

19)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권5, 「贈別」. “不免詞章習, 多年作楚狂.”

20)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권5, 「與虎兒」. “詞章非久遠, 灼灼忌先秋.”

21)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권6. 「監司席上賦」. “且向明窓尋理趣, 休從司馬賦凌雲.”

하늘 멀리 장쾌한 바람 불어오고
 솔 고개엔 초승달이 걸쳐 있네
 이따금 낚싯대를 놀릴 때면
 대 그림자에 놀란 물고기 달아나네
 우스워라 속세 사람이여
 막다른 길에 완적처럼 슬피하누나
 主人卧山海 名堂以清遠 月出湖南獨 雲霞倚高蹇
 西臨德津浦 落日千帆返 天長萬里風 松嶺月初偃
 時來弄釣竿 竹影魚蝦遁 却笑塵裏人 窮途悲晉阮²²⁾

청원루는 영암에 있던 누대이다. 최덕지의 증손자이자 최충성의 아들인 최연문(崔演文)의 별서에 있던 것으로, 하서가 이곳을 방문하여 그 이름을 ‘청원루(淸遠樓)’라 고쳤다고 한다. 주렴계(周濂溪), 「애련설(愛蓮說)」의 ‘향기가 멀리 갈수록 더욱 맑다.[香遠益淸]’라는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주변에 연꽃이 장관이었던 것 같다.

시인은 먼저 ‘청원’이라는 이름을 제시한다. 이어 청원루에서 보이는 월출산과 덕진포로 구도를 잡는다. 그리고는 구도 안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정경을 제시한다. 헤저물넋 돛단배가 돌아오고 장쾌한 바람이 불 때, 고개마루에는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다. 한가한 풍경에 동화되어 가던 시인은 문득 낮선 감정을 느낀다. 옛날 완적이 막 다른 길에서 느꼈던 것처럼 슬픔이 마음 안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이다. 창작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슬픔의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이는 하서가 자연 풍경 앞에서 가지는 반응 양식의 하나이다. 다음 시는 하서가 내면의 슬픔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魚巖雜詠>

그리운 그대 보지 못해 더디 온다고 한탄했는데
 서로 만나니 봄이 다하는 때구나
 버들 짙고 꽃 저서 온 산이 적막한데
 봄바람은 도리어 정을 다해 불어오네
 思君不見恨來遲 及到相逢春盡時
 柳暗花空山寂寂 東風猶自盡情吹²³⁾

1548년 그의 39세 되던 해에 하서는 양친(兩親)을 모시고 순창 점암촌(點巖村)으로 이거한다. 그는 이곳에서 훈몽재(訓蒙齋)라는 편역을 걸고 강학과 학문 연구를 한다. 머무른 기간은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장성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2년 간이다. 하서는 이곳에 머무르면서 여러 시편을 남겼다. 이 시는 이 시기에 쓴 <어암잡영(魚巖雜詠)> 가운데 첫 번째 것이다.

앞 두구는 ‘어긋남’에 대한 안타까움의 형용이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만나고 보니 함께하려 했던 봄날은 벌써 저물고 있다. 꽃은 지고 버들은 무성해지고 산은 적막

22)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2.

23)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6.

하기만 하다. 봄바람만이 마음을 위로하듯 정을 다해 불어온다. 단순해 보이는 이 시는 우의(寓意)의 성격을 가진다. 기다리던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되었지만,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다. 이것은 잘 알려진 하서와 인종의 만남을 떠올리게 한다.

<應製題睿畫墨竹>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 모두 정밀하고
 석우(石友)의 정신이 그림 안에 있네
 비로소 알겠네 세자께서 조화옹과 짝이 되어
 한덩어리 천지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음을
 根枝節葉盡精微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侔造化 一團天地不能違²⁴⁾

하서의 나이 34세이던 1543년의 작품이다. 이때 그는 세자시강원설서가 되어 세자를 보필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맡는다. 세자와 김인후의 만남은 서로에게 특별한 것이었다. 세자는 김인후의 학문과 도덕을 보고는 스승의 예로 대했다. 김인후 역시 조용한 성품에 호심과 우애가 남달랐던 세자에게서 성군(聖君)의 지치(至治)를 예견한다. 두 사람의 존경과 신뢰는 점차 태평성세에 대한 희망으로 영글어 갔다. 어느 날, 세자는 김인후에게 『주자대전(朱子大全)』 한 절과 함께 그림 하나를 선물한다. 그것은 잎이 무성한 대나무 그림이었다. 세자는 그림에 시를 써 줄 것을 부탁했고 김인후는 마음을 담은 시로 화답했다. 그림의 한 켠에 썼던 시가 바로 이것이다.

시인은 먼저 필치의 섬세함을 노래한다.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 하나하나가 참으로 정밀하다. 여러 줄기 사이에는 듩직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 죽군(竹君)과 석우(石友), 곧 어우러져 있는 대와 돌은 그림의 구성물이지만, 세자와 김인후 두 사람의 상통하는 지취(志趣)와 변치 않을 마음을 대변한다. 후반부는 그림에 담긴 세자의 비범성에 대한 찬탄이다. 세자의 고매한 정신[聖神]은 조화옹과 짝하였고, 그 결과 이 그림에 천지의 이치가 담뿍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그림이야말로 성군(聖君)의 자질과 인품이 반영된 걸작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그는 인종이 태평성세를 열 성군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 역시 그러한 성군을 보필할 현신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인종의 단명(短命)은 이들의 꿈을 좌초시키고 말았다. 인종은 1544년 등극 이래 현량과를 복구하고 조광조 등 기묘명현을 신원(伸冤)하는 등 개혁정치의 시동을 걸었다. 그렇지만 계모 문정왕후의 계속되는 견제에 시달리고 병약한 몸을 이기지 못한 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無題>

아름다운 나무 천지의 원기를 머금어
 우뚝 솟아 가지를 멀리 쪽 뻗었네
 위로는 해와 달의 빛을 떠받고
 비 이슬 흠뻑 맞아 무성도 하네

24)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6.

어진 바람 온누리에 불어 떨치자
 만물이 우줄우줄 춤을 추네
 눈과 서리 갑자기 휘몰아치니
 곧은 등걸 시들어 꺾어지누나
 구슬피 울어대는 못 새들 소리
 날고난들 어느 곳에 의지할까
 해 저물녘 뭉게뭉게 구름 일어나고
 부슬부슬 장맛비는 훑날리누나
 佳木涵元氣 亭亭揚遠枝 上承日月光 雨露繁華滋
 仁風振海宇 萬類方怡怡 風霜忽飄薄 直幹還摧萎
 衆鳥聲啾啾 飛飛何所依 黃昏暮雲起 霖雨來霏霏²⁵⁾

무제(無題)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시인은 ‘무제’라는 열린 구조를 통해 마음 속의 생각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내용상 이 시는 앞의 여섯구와 뒤의 여섯구로 나뉜다. 전반부는 아름다운 나무가 천지의 기운을 받아 잘 자랐고, 장차 만물에 혜택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뀐다. 갑작스레 눈과 서리가 휘몰아치더니 곳곳한 줄기가 꺾이고 새들은 기댈 곳을 잃어버렸다. 마침 해는 저물어가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언제 그칠지 모를 비만 자욱히 내리고 있다.

이 시는 성세에 대한 희망과 좌절을 표현한 것이다. 인종의 자질과 성장, 성세에 대한 기대감이 죽음으로 인한 실망과 상실감으로 뒤바뀐 상황을 ‘가목(佳木)의 성장과 꺾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더구나 가까이에서 인종을 보필했고 함께 새 시대의 희망을 품었던 그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인종 승하 이후의 시는 정서 표현의 편차가 크다. 예를 들면 점암촌 우거기에 지은 <魚巖雜詠> 시들에서도 감정 반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적한 곳에서 양친을 모시고 사는 즐거움²⁶⁾과 시골 생활에서 느끼는 소박한 흥취²⁷⁾를 노래하기도 하지만, 흐르는 시간에 대한 불안감²⁸⁾, 독서 대상을 통해 격발된 충분(忠憤)²⁹⁾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아의 모습을 병든 학[病鶴]으로³⁰⁾, 실의에 젖은 처량한 모습의 자아를 쓰름매미[寒蟬]로³¹⁾ 형상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 무렵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제재가 술[酒]이다.

25)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3.

26)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6, <魚巖雜詠> 其七. “身侍嚴親婦侍孀, 甥男女息擁成行. 又魚擲鱸供滋味, 十里溪村煙水蒼.”

27)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6, <魚巖雜詠> 其十. “觀魚巖是巨鰲頭, 滿眼滄波去去悠. 脚底紅鱗抽百尺, 珍羞不羨宰肥牛.”

28)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6, <魚巖雜詠> 其十三. “磯頭聞說水猶深, 春後溪花政好尋. 爭挽莫教香雪落, 仍成病我恨空林.”

29)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6, <魚巖雜詠> 其十七. “楚騷前歲喟憑心, 宋史今朝淚滿襟. 異代興亡那繫我, 自然相感謾悲吟.”

30)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7. “山畔哀鳴知者誰, 還堪垂翅倚枯, 回看天際雲猶迴, 萬里歸心空自持.”

31)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10. “昨夜秋風驚遠林, 夕陽枝上減全音. 悲涼似訴商宮怨, 憔悴還同楚澤吟. 失意漸愁涼露重, 乘時曾聒綠陰深. 身微翅薄迷棲托, 蟋蟀專場始自今.”

<憶新齋問酒 和杜陵韻 示景范>

신재가 동북현에 있었으니
술이 병에 남았다는 말 첩에게 들었네
덧없는 세상 몹시 감회가 많으니
저물녘 되어도 술 깨이질 않네
원릉에 쌓인 흰 눈을 슬퍼하고
친구를 그리는 마음이 한스럽네
적막한 곳에 누가 안부를 물으리오
홀로 깨어있는 것을 자랑할 마음이 없네
新齋蘿菴縣 聞妾酒留瓶 浮世偏多感 斜陽未覺醒
園陵悲雪白 親友恨雲停 寂寞誰相問 無心詫獨醒³²⁾

이 작품은 스승인 신재 최산두(崔山斗, 1483~1536)를 떠올리며 시작한다. 신재는 기묘사화 이후 화순 동북에 유배되었다가 1533년 해배되는데, 그 이후에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18세 때에 상경하여 김굉필에게 수학했으며, 동북에 있을 무렵에는 김인후, 유희춘 등이 찾아와 학문을 배우는 등 16세기 호남 학맥 형성에 있어 중추적인 인물이다.

앞의 두 구는 신재가 동북현에 있을 때 술을 찾았던 이야기인데,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던 기묘사화 이후의 정국 상황을 암시한다. 하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현실의 자아와 오버랩시키고 있다. 개혁정치를 꿈꾸다 좌절되었던 종종 시절에 대한 아쉬움, 그리운 옛 벗들. 하서는 동북에서 신재가 느꼈던 그 감정을 되뇌이며 자신의 시대 역시 낮부터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제자 조희문은 하서가 술을 즐긴 것이 근심을 잊기위해서 라고 했지만³³⁾ 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편일 수밖에 없다.

<移蠟梅於階上 剪其枯枝 存其嫩條而培之>

천년을 돌 틈에서 바람 우레와 싸우자니
범 쓰러지고 용 넘어지니 골상이 기이하네
살려는 뜻은 등걸 따라 시내 골짜기 사양하고
고달픈 마음, 머리 돌려 티끌 속에 시달렸네
웁길 적에 가지며 잎 거의 상했었는데
분에 넘치게 싹 틔우고 비와 이슬이 배양하네
적막한 시절 늦은 만남이 안타까운데
성긴 그림자 처음으로 푸른 이끼에 비치네
千年石罅戰風雷 虎倒龍顛骨相瓌 生意隨查辭澗壑 苦心回首困塵埃
移時柯葉摧殘盡 分外萌芽雨露培 寂寞自憐相見晚 始收疏影印蒼苔³⁴⁾

32)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8.

33) 趙希文, 『河西先生全集』권2, 「有人問河西詩酒」. “吟詩因寄興, 愛酒爲忘愁”

34)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10.

섬돌 위로 옮겨 심은 납매를 제재로 한 시이다. 납매는 음력 선달에 꽃이 피는 매화이다. 납매는 험한 바위 틈에서 바람 서리를 겪으며 자랐기에 기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옮겨 심을 때에는 가지와 잎이 떨어져 볼품이 없었다. 그런데 마른 가지를 자르고 연한 가지는 북돋아 주었더니 얼마 후에 여린 싹이 텄다. 오늘은 자란 잎이 처음으로 섬돌 위에 성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시인은 되살아난 생명과 그 생장을 반가워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7구의 “적막한 시절 늦은 만남이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시인은 상처입은 납매를 보며 초췌한 자신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기를 되찾은 납매 앞에서 생의 의지를 확인하는 듯 하다. ‘성긴 그림자가 처음으로 푸른 이끼에 비치는’ 장면은, 비분강개의 마음 속에서도 가치로운 삶을 모색하는 자아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조선 후기의 학자 윤봉구(尹鳳九)는 하서에 대해 “일시의 비분강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도의(道義)를 배워 알았기 때문이라”³⁵⁾는 말을 했다. 이 말을 참고하면 하서의 강렬한 감정 표출, 비분강개의 토로로 언급되는 주정의 흐름은 특정 대상을 향하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도의로 수렴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학인으로서의 자아상과 증점 기상의 회구

하서의 시에는 학문의 방법, 태도, 차서를 논한 것들이 많다. 스스로도 학문에 대한 긴장감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느슨해지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그는 섬세한 관찰력으로 특정 순간을 새롭게 해석하는 탁월한 시인이기도 했다. 사람과의 관계, 자연 사물, 풍경을 제재로 한 시에는 이러한 작품들이 많다.

<海棠花枝有蛛網 落英留掛 因以賦之>

구십일의 봄바람이 꿈속에서 지나갔는데
해당화 꽃자리에 연지가 남아 있네
거미도 봄빛이 어여쁜 것을 알고서
가지 끝에 그물을 쳐 떨어지는 꽃을 감싸네
九十東風夢裡過 臙脂留却海棠窠
蜘蛛亦解憐春色 遮網枝頭護落花³⁶⁾

꽃들이 진 늦봄의 어느날, 시인은 남은 해당화의 마지막 꽃잎 하나를 발견한다. 얼마 후면 꽃잎은 땅으로 떨어지고 해당화가 피었던 봄의 모습은 기억 속이나 존재할 것이다. 그 순간 꽃잎의 아랫쪽을 보니, 거미가 오가며 쳐놓은 줄이 있다. 문득 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거미의 의도적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거미를 등장시켜 흐르는 시간, 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을 극대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섬세한 감각은 세상을 떠난 딸의 무덤을 찾은 시³⁷⁾에서도 잘 드러난다. “딸 애가 죽은 지 이미 삼 년. 해를 넘기고 와 보니 참담하기만 하구나. 무덤가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35) 尹鳳九, 『屏溪先生集』, 「慕河西先生」, “非若一時慷慨做, 皆從道義學而知.”

36)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6.

37) 長城路中作 “女挈歸骨已三年, 隔歲來看一慘然. 塚外輕風吹到面, 便應精爽此中邊.”

스치는데, 이곳 어딘가 딸의 혼백이 응하는 것이겠지.”라는 내용인데,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을 딸의 혼백이 응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얼굴에 부딪는 바람에 주목하여 어린 딸의 모습과 감촉을 떠올리는 시인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적인 시와 달리 많은 작품들은 하서의 자아상(自我像)을 떠올리게 한다.

<雪後行>

천지간에 불우한 시용이 있어
 얼음길을 교만스레 홀로 걸누나
 드넓은 들판 회고 회어 끝이 없는데
 아득한 만 리 은을 펼쳐 놓은 듯
 나귀 발굽 옥구슬을 짓밟아가니
 흡사 맑고 텅 빈 물결이 출렁이는 듯
 소쇄한 아취는 진세를 벗어나니
 손에 채찍을 휘두르며 유유히 가네
 거센 바람 몰아쳐 천지를 뒤흔들어도
 찬 기운 몸에 스미는 줄 전혀 모르누나
 흥에 겨워 두어 시구 한가롭게 읊조리니
 세상만사 다만 소소할 따름이네
 詩翁落魄天地間 偃蹇獨向冰雪途
 平原皚皚爲無際 蒼茫萬里如銀鋪
 驢蹄踏破瓊瑤地 正似蕩漾清虛無
 蕭然高趣出塵間 手揮健鞭行于于
 凶風頑熨攬宇宙 不覺寒氣來侵膚
 乘興閒吟數句詩 世上萬事徒區區³⁸⁾

이 시는 눈이 내린 뒤 눈 덮힌 들판을 걸어가는 시인의 ‘청흥(淸興)’을 노래한 것이다. 시인의 앞에는 아득한 공간이 펼쳐 있고, 천지를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끝이 안 보이고 찬 기운이 몸에 스며들지만 시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흥을 즐기며 한가로이 시구를 읊조리고 있다. 이러한 형상은 견고한 자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세채(朴世采)의 <행장>에는 하서가 “평소에 뜻을 높이 세우면서 궁리(窮理), 주경(主敬), 근사(謹思), 명변(明辨)의 공부를 더했고, 기미가 더욱 드러나자, 목숨을 걸고 도(道)를 지키며 천명을 받아들여 인(仁)을 두터이 하려는 지취(志趣)를 지녔으며, 도의(道義)에 함영(涵泳)하며 절조(節操)를 발휘하였다³⁹⁾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 ‘천지가 막혀있는 엄동설한에 홀로 우뚝히 서 있는 송백(松柏)’의 이미지이다. 이것은 홀로 개의함 없이 광막한 들판을 걸어가는 시인의 형상에 다름 아니다.

38)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4.

39) 金麟厚, 『河西先生全集續集』附錄 권1, “而至其立志素高, 加以窮理主敬謹思明辨之功, 幾微益著, 養以守死善道知命敦仁之趣, 涵泳乎道義, 發揮乎節操, 譬如窮冬大雪, 天地閉塞, 昂然爲獨青之松柏, 則鮮有知其所蘊者也.”

이 시는 내면의 온축을 기반으로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은 자아의 모습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견고한 자아의 모습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次韻贈吳君>

십 년 동안 서로 만나면 헤어지기 급급했는데
함께 맞은 오늘 아침 얼마나 다행인가
앉은 자리 온화하고 때마침 봄기운도 가득하니
이 몸은 지금부터 봄바람에 취하겠네
相逢草草十年中 何幸今朝一榻同
坐上溫溫春政滿 此身從此醉和風⁴⁰⁾

이 시는 북송의 인물 정명도(程明道)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종일토록 바르게 앉은 모습이 진흙으로 빚은 사람 같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는 혼연한 일단(一團)의 화기(和氣)가 돌았다고 한다. 주광정(朱光庭)이 여주(汝州)에서 그를 보고 돌아와서는 "명도를 따른 시간은 봄바람 속에 앉아있던 것 같았다."⁴¹⁾라고 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시는 오세로(吳世老)에게 준 것으로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노래하고 있다. 3,4구는 표면적으로는 봄날 함께 한 자리의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온화함[溫溫], 봄[春], 봄바람[和風]의 시어와 화자의 여유로운 어조는 정금미옥(精金美玉) 같은 인품으로 하서를 형용한 글⁴²⁾을 떠올리게 한다. 말하자면, 이 시는 하서의 온유하고 너그러운 인품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도학적 기상(氣像)을 제시하며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진보가 가능하다고 했다.⁴³⁾ 그 중의 하나가 주돈이와 관련된 "뜰 가운데의 풀은 무성히 푸르네.[庭草交翠]"이다. 주돈이가 살던 곳의 창 앞에 풀이 무성히 자라도 베지 않기에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나의 의사와 같다. [與自家意思一般]"라고 했다는 일화를 배경에 둔 것이다.

<示奇伯願>

가을엔 서리 맞아 시드는 게 애석하고
봄이면 땅에 돌아나는 푸르름이 어여쁘네
모름지기 생생하는 의사를 보아야 하니

40)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6.

41) 주희·여조겸, 『近思錄』卷14, "光庭在春風中坐了一箇月."

42) 조희문, 『河西先生全集』卷首, 「河西先生全集舊序」. "發言則慈祥而簡重, 處事則精詳而正大. 溫粹如精金美玉, 不容一毫之雜, 洞澈如水壺秋月, 不污一點之塵." 具庠, 『河西先生全集』卷首, 「文廟從祀教書」. "霽月光風, 自是有道氣像; 精金美玉, 兼以餘事文章."

43) 宋時烈, 『宋子大全』권154, 「河西金先生神道碑銘」并序. "暇日必携冠童, 逍遙徜徉, 顧謂諸生曰, 學者時時體認沂水庭翠氣像, 然後方能少進爾. 後學之被其引接者, 如襲春風而觀慶雲也. 其述作, 根於風雅, 參以騷選李杜. 凡有感觸, 一於詩發之, 清而不激, 切而不迫, 樂而不至於淫, 憂而不至於傷, 皆所以理性情, 而涵道德."

한순간도 일찍이 멈춘 적이 없다네

秋惜經霜萎 春憐迸地青
須看生意思 一息不曾停⁴⁴⁾

이 시는 풀의 부단(不斷)한 생의(生義)를 다룬 것이다. 주돈이가 말한 “나의 의사와 같다.”라는 것은 풀의 살려는 뜻이 자신의 생의 의지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풀을 통해 천지가 생생(生生)하는 뜻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서도 봄이 생성하는 기(氣)가 다른 계절에도 일관함으로써, 서리 맞아 시드는 가을에도 생생하는 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⁴⁵⁾

하서의 생의(生意)의 주시와 연속체로서의 확인은 또 다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하서가 시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증점(曾點)의 기상(氣像)이다. 하서는 앞의 ‘정초교취’와 함께 학문적 진보를 위해서는 이것의 의미를 ‘체인(體認)’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증점의 기상은 『논어』 선진편의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배경으로 한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에게 포부를 말하게 하자 다른 제자들은 정치에 관심을 둔 반면, 증점은 “늦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 관(冠)을 쓴 어른 대여섯 명과 동자(童子)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라 하였고, 이에 공자가 칭찬을 한다.

<贈卞汝潤>

잠 꽃은 하얀 머리 윤건을 높이 쓰고
백 리에 봄바람 불 때 벗을 전송하네
초록 풀 붉은 꽃에 시냇물은 푸르니
고갯마루 따듯한 봄에 증점은 흥취가 일어나리
一簪華髮岸綸巾 百里東風送故人
草綠花紅溪水碧 點狂應發嶺頭春⁴⁶⁾

공자와 증점의 대화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남송(南宋), 황진(黃震)의 <황씨일초(黃氏日抄)>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공자가 만년에 천하 주유를 마치고 실의 속에 노국(魯國)으로 돌아와 저술과 교육에 전념하던 시기의 대화로, 증점에 대해 공감한 것은 “공자 자신은 정치에 참여할 힘이 남아 있지 않다”는 체념의 의미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주자의 <논어집주>는 “인욕(人慾)이 다한 곳에 천리(天理)가 유행하여 곳에 따라 충만하여 조금도 결함이 없음을 봄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 가슴속이 유

44)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5.

45) 한편 주자는 인(仁)을 설명하면서 애지리(愛之理), 심지덕(心之德)의 측면과 천지생물지심(天地生物之心)의 측면을 말한 바 있다. 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두 시는 천지생물지심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생의(生意)의 부단(不斷)함을 통해서 천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의는 보다 확장적인 철학 논의로 이어지지만, 핵심은 ‘인인 생’이라는 것으로, 생의는 동태적, 지향적이며 밝음과 쾌활함의 감각을 가진다.(오하마 아키라 저, 이형성 역(1997), 『범주로 보는 주자학』, 438-440면.) 이렇게 보면 하서가 말하는 생의는 인의 개념과 결부되면서 개인의 너그러움으로부터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마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낙관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46)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7.

연(悠然)하여 곧바로 천지 만물과 더불어 상하(上下)가 함께 흘러 각각 그 곳을 얻은 묘함이 은연중 말 밖에 나타났으니...”⁴⁷⁾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증점의 의도를 추상적,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송대 이전의 평가들은 그를 공문(孔門)의 아웃사이더 정도로 보았다.⁴⁸⁾ 송대 성리학자들에 이르러서야 증점의 기상을 중시했다. 선진편의 내용을 포함한 증점에 대한 주자의 여러 언급은 복잡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때로는 ‘광(狂)’의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증점에 대한 형상은 주자학의 수양법, 공부법의 논리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증점은 경계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지향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위의 시는 문인 변성온(卞成溫)을 전송하는 시이다. 전송의 시이지만 봄날의 흥겨움이 느껴진다. 윤건을 쓴 채 멀리 바라보니 봄바람이 불어온다. 풀빛이 길어지고 붉은 꽃들은 피어나며 맑은 시냇물도 졸졸 흐른다. 아마 이때가 증점이 동자들과 기수에서 목욕하고 돌아오던 그 무렵 아니었을까. 시인은 이법(理法)의 현현으로서의 자연을 바라보며 증점의 기상(氣像)을 떠올린다.

이 시를 증점의 기상과 관련한 정신적 자유 지향으로 해석할 때, 하서 정신 지향의 한 형태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하서의 다른 시들을 읽는 하나의 코드가 부여될 수 있다. 「채중길의 〈닭 울음소리를 듣다〉에 차운하다(次蔡仲吉聞鷄詩韻)」의 내용 일부이다.

...
 천지 만물이 나에게 어찌하리
 불평 지너 어찌 자잘한 것 따지겠는가
 대도란 본래 몸 밖에서 구하는 것 아니니
 지극히 가까워 눈앞의 눈썹과 다름이 없다네
 몸을 닦아 기다리면 백 가지가 근심 없어
 건곤이 밖에서 북으로 변하는 걸 보지 못하였나
 요컨대 사물이 내게 누(累)가 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내 마음이 활발해질지라
 내 스스로 재앙을 만들지 않았다면
 필경 어찌 살 수 없겠는가
 비록 화복은 아득하여 헤아리기 어렵다 하지만
 이로써 미룬다면 거의 통할 것이라
 백 대를 지나 성인을 기다린다고 하여도
 천번 만번 온갖 생각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리
 그대 시를 읊고 나서 우주에 기대니
 눈서리 바람 차가운 겨울 선달이라네

47) “蓋有以見夫人欲盡處，天理流行，隨處充滿，無少欠闕。故其動靜之際，從容如此，而其言志則又不過即其所居之位，樂其日用之常，初無舍己爲人之意，而其胸次悠然，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隱然自見於言外...”

48) 임종진(2014), 『증점, 그는 누구인가』, 역락, 157면

… 天地萬物如吾何，芥蒂寧須較塵刹。大道本非身外求，至近無殊眼前睫。修身以埃百不虞，不見乾坤剝而復。要將事物莫我累，始可放得心地闊。觀吾固非自作孽，畢竟其何不可活。雖言倚伏渺難測，用此推之庶可達。行將百世埃聖人，萬計千思無此出。吟君詩罷倚宇宙，霜雪風寒冬季月。…⁴⁹⁾

채중길이 보내운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채중길 시의 규모와 박식함, 기세(氣勢)를 찬탄하면서, 소회(所懷)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정신적 지향을 주정적인 호흡 속에 담은 작품이다. 시인의 호방함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지만, 한편으로 하서의 자유 지향이 상대와의 교감 속에 가감없이 펼쳐진 예라 할 수 있다.

『하서집』에는 자연 속의 즐거움을 노래하거나 정신적 자유를 회구하는 작품, 때로는 특정한 장면에서 호방함을 드러내거나 분방함으로 치닫는 작품들이 있다. 이것은 상대와의 관계, 또는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하서가 ‘체인(體認)’을 강조했던 증점 기상에 담긴 자유의 향유, 예술 지향적인 삶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말하자면 유가에서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신적 고양의 한 형태로서 지향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지향이 때때로 하나의 주정적인 파고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을 통해서 하서 시에 나타나는 두 갈래 주정적(主情的) 흐름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간의 하서 시 연구는 주정성에 주목하면서 주정성이 드러난 경로나 배경에 대해 특별히 유의하지 않았다. 본고는 이에 착안하여 주정적 파고에 이르는 두 갈래 흐름을 설명하고자 했다. 요약하자면 그 하나는 주로 이야기되던 인종 승하 이후의 정국을 바라보는 하서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통 비분강개라는 용어로 집약하여 설명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비분강개는 그 강렬한 표출 형태에도 불구하고 도학자로서의 도의(道義)에 수렴될 성질의 것이다. 말하자면 불평의 토로나 자조, 세상에 대한 비판과는 다르게 군주에 대한 의리,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유자(儒者)의 책무에 대한 의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정적 흐름의 다른 하나는 증점의 기상과 관련된 것이다. 하서는 제자들에게 학문의 진일보를 위한 방편으로 증점의 기상을 강조했고, 많은 시에서 증점 관련 내용을 끌어 오고 있다. 증점은 ‘광(狂)’의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증점은 경계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지향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하서의 시편에 드러난 증점의 기상을 정신적 자유 지향으로 해석할 때, 이를 통해 하서의 다른 시들을 읽는 하나의 코드가 부여될 수 있다. 『하서집』에는 자연 속의 즐거움을 노래하거나 정신적 자유를 회구하는 작품, 때로는 특정한 장면에서 호방함을 드러내거나 분방함으로 치닫는 작품들이 있다. 이것은 상대와의 관계, 또는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하서가 ‘체인(體認)’을 강조했던 증점 기상에 담긴 자유의 향유, 예술 지향

49) 金麟厚, 『河西先生全集』권4.

적인 삶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말하자면 유가에서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 정신적 고양의 한 형태로서 지향하는 지점이다. 이것이 때때로 하서 시에서 또 하나의 주정적인 파고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분강개의 호흡으로 드러나는 주정성은 내적으로 도의(道義)로 수렴되는 성향의 것이 라면, 증점의 기상과 관련된 주정성은 정신적 자유 지향 또는 예술 지향의 삶으로 확장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하서 시의 주정성은 예술 경계와 도 덕 경계가 그 배면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호남의 獅子, 하서 김인후의 義理와 시대정신[時習]

— ‘전문 학술성’과 ‘대중 확산성’을 위한 접점과 간극 —

김용재(성신여자대학교)

• 목차 •

1. 序 : 과연 김인후의 시대정신은 현재와 소통할 수 있을까?
2. ‘대중 확산성’을 위한 제언
 - 1) ‘호남학’, 그리고 김인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
 - 2) 하서 김인후를 ‘사자(獅子)’라 표현하는 의미
3. ‘전문 학술성’의 위상과 眞價
 - 1) 근대 학자들의 김인후에 대한 評述
 - 2) 김인후가 도학자인 이유와 典據
 - 3) 김인후의 ‘性理’ 사상의 출발처
4. 結
 - 1) ‘시의성’과 실천철학
 - 2) 風乎舞雩를 재현한 의연한 삶

1. 序 : 과연 김인후의 시대정신은 현재와 소통할 수 있을까?

1) ‘語不成說’과 ‘語成說’

필자는 지금의 시대가 과거 시대와 뭐가 다른지를 곰곰이 곱씹어 볼 때, 상당히 懷疑的이다. 한갓 박물관 속 미라로 치부하던 조선시대나, 과거 전근대적 유물로 알고 있는 공자 시대에 비하여 지금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물질적 풍요로움과 풍성한 먹거리, 그리고 편리한 교통수단 외, 우리 인간 사회가 떠안고 살아가는 고민의 무게는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인 듯하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옛날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모두 자신에게 진솔한 반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말도 안 돼”라는 ‘語不成說’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살았어도, ‘語成說’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즉 말이 되는 세상에서는 ‘어불성설’을 표제어로 내세워야 말이 안 되는 언행들을 치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 되는 세상에 굳이 ‘말이 된다’는 ‘어성설’을 쓸 이유는 없다.

과거에는 누구나 다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상식과 규범이 통용되는 사회였다. 일명 ‘강상·윤리’ 또는 ‘도덕’이라 불리는 이치가 통하는 건강한 사회였다. 사회적으로는 敬老孝親이 살아 있었고, 교육 방면에서는 스승에 대한 尊師心도 남아 있었다.¹⁾ 뿐만인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충성심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였다. 만일, 이러한 가치관을 뒤흔드는 현상을 마주하게 되면, 그럴 리가 있냐며, “말도 안 돼! 語不成說이야!”라 치부했다. 이처럼 ‘말이

1) 김용재, 〈논어 읽기의 의미와 실제〉, 《경남유교대학강의자료집》, 2024

안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곧 貶下 또는 貶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語不成說의 세상”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존중과 배려가 베풀어지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이 조화를 이룬 ‘전인교육’ 덕분에, 이 나라의 동량지재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동방예의지국의 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정치·경제·사회적 리더들은 ‘爲民’과 ‘愛民’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보는가?

비단, 지금 현대사회는 이러한 인간관계 측면에서만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기술·과학의 발달은 인간이 기계에 지배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최소한 기계는 거짓말을 모르는, 정말 기계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고철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유행하는 챗Gpt는 인간의 물음에 오히려 反問을 던지면서 인간을 조롱이라도 하듯, 거짓말 답변도 서슴지 않는다. AI가 만들어 내는 가상 세계와 가짜 정보는 인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語不成說의 세상’에서 ‘말이 되는 語成說의 세계’를 갈구한다. 그래야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고, <기성세대>와 <MZ세대>가 대화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사회’란 곧 ‘소통’이 가능한 사회다. 양극화의 극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 인지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소통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2) ‘낮솨’를 대하다. : ‘전통’·‘유학’·‘선비’·‘처사’·‘하서 김인후’의 삶과 궤적

→ 전통과 현재, ‘김인후’의 선비정신으로 공감·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은 일단 대화로부터 비롯한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공유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지식이나 정서를 함께 소유’하거나 또는 ‘같이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소통은 가능해진다. 만약 어느 한쪽의 말을 다른 한쪽에서 이해할 수조차 없다면, 오해와 갈등은 아예 체념과 무관심으로 흐른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개판 5분 전”이라고 말하면, 일단 ‘멍멍이’부터 연상한다. 그리고 멍멍이의 무질서한 모습을 ‘개판’이라 단정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개들이 어떻게 시간을 알아서 5분 전에 어지럽도록 난장판을 만든다는 것인가? 사실, ‘개판’은 ‘개[犬·狗]’와 전혀 무관한 말이다. ‘열 개(開)’와 ‘널빤지 판(板)’을 붙인 용어다. 불우한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을 위해 큰 솥에 죽을 끓여놓고, 이제 곧 밥을 먹을 준비하라는 신호가 “開板 5分前”이다. 전쟁 중이라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린 피난민들에게 질서 의식이 있었겠는가? “개판 5분 전”이라 소리치면, 너나없이 밥솥 앞으로 몰려드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이다.²⁾ 애꿎은 멍멍이들만 누명을 쓴 셈이다.

이번엔 “대박”이라는 말에서 혹시 《홍부전》에 나오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을 연상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홍부전의 ‘박’과는 전혀 무관하다. 옛날에는 지역 간, 나라 간 교역을 할 때, 우마차로 물품을 나르는 것보다, ‘배’로 교역하는 것이 훨씬 활발했다.

2) 김용재, 「2022년 교육과정에 신규 진입한 ‘언어생활과 한자’ 과목에 대한 기대와 전망, 그리고 제언」, 《한문 교육논집》, 64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25.6

물론 교역하는 재화만 보더라도 배로 교환할 때 더 큰 물품이 오간다. 그래서 ‘큰 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내놓으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이를 구매하여 되파는 사람 모두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박난다’는 것은 ‘큰 대(大)’와 ‘큰 배(船)’를 붙여 ‘大船’이라 하였다.

끝으로 ‘人名’과 ‘地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서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맥도날드’·‘빈센트 반 고흐’·‘안데르손’·‘데이비드’ 등에는 공통점이 있다. ‘존 맥케인’과 ‘아놀드 맥도날드’, ‘빈센트 반(van) 고흐’와 ‘버질 반(van) 다이크’, ‘안데르손(son)’과 ‘구스타프손(son)’, ‘다윗’과 ‘데이비드’·‘데이비슨(Davison)’ 또는 뉴-잉글랜드, 룩-아일랜드, 뉴-멕시코 등의 지명을 보면, 이들 ‘성씨’와 ‘이름’ 사이 또는 이름의 끝에 붙이는 공통된 어절이 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자손”을 의미하거나, 또는 “어떤 가문의 출신”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다.

이처럼 서양인들의 인명과 지명에는 ‘자신들의 뿌리와 가문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암묵적 명시가 버젓이 드러나 있다. 사실 우리에게도 뿌리를 알리는 관습이 있다. 일명 ‘貫鄉’ 또는 ‘本貫’이다. 그러나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 ‘관향’은 무의미하다. 아니 ‘관향’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이런 친구들에게 ‘유교’·‘유학’·‘전통사상’·‘하서 김인후의 도학 사상’·‘시대정신’ 등의 말은 과연 유효할까? 오히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전통사상’에 대한 향수로부터 더 멀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다.

필자가 이러한 사례를 거론하는 이유는 “과연 우리의 전통 유학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민의 해결책은 전적으로 ‘소통’에 달려 있다. 소통은 정보를 전달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절대적 도구이다.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려면, ‘話者’와 ‘聽者’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데도, 오히려 ‘통역’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용어에서도 이 지경인데, ‘효제충신’과 같은 전통 유학의 메시지는 어떠할까? 소통은 인간관계의 개선이고, 설사 ‘톱’과 ‘등나무’가 얽힌 것처럼, 쌍방의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도저히 풀어질 수 없는 ‘갈등 해결’도 ‘소통’만이 답이다. 젊은 층에서는 전통 유학을 끈대라 치부할 수 있고, 반대로 기성세대는 젊은 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통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한 ‘인문정신’에 있어서 만큼은, 최소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공감을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도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感動’은 ‘깊은 느낌과 울림에 움직인다’라는 뜻이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共感’, 하서 김인후의 전통 유학 정신에서 무엇을 찾고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지가 고민이다.

2. ‘대중 확산성’을 위한 제언

1) ‘호남학’, 그리고 김인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

→ ‘동국 18현’ 중, 유일무이한 호남인 김인후, 그리고 師傅의 상징성을 스토리텔링으로!

‘호남학’은 ‘지역학’ 연구의 일환으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호남’지역에서 출생했거나

삶을 마감했던 학자들의 학문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호남학’은 당연히 호남 출신이거나 혹은 호남을 연고로 생을 마감했던 유자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철학일 것이다. 그런데 ‘호남학’을 운운할 때는 몇 가지의 전제가 따른다.

첫째, “호남학의 시대적·지역적 상한성을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호남학이라고 말할 때, 그 학문을 유·불·도 중 어느 쪽에 국한할 것인가?”의 논의다. 먼저 답하기 편한 후자부터 언급하면, 필자는 ‘유학’에 한정하고 출발한다. 다만, 전자의 문제, 즉 ‘호남학의 지역적·시대적 상한성의 문제’를 규명하는 일은 녹록치 않다. 안진오는 삼국시대 때 ‘백제’의 사상과 문화를 배제하고서 ‘호남학’의 모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백제’의 지역적·역사적 한계를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호남’과 일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 지적한다.³⁾ 생각해 보면, ‘호남’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먼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칭해오던 지명이다.⁴⁾

둘째, “호남학의 시점(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볼 것인가?”의 문제다. 필자는 철저한 ‘문헌’ 고증이 확실해야만 학문적으로 그 위상이 설 수 있고, 실효성도 보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이 문헌(기록)의 있고 없음에 기인하기 때문이다.⁵⁾ 그러면 ‘호남의 유학(사상)’은 언제부터 기록·문헌이 시작되었는가가 관건인 셈이다. 백제시대 때 왕인이 일본에 『논어』를 전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백제의 유학 사상이 무엇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미약하다. 즉 백제 때 유학과 관련한 문헌이 존재했다는 傍證은 있어도, 단언컨대 “백제의 유학은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⁶⁾

이에 ‘호남 유학’의 시작 역시 ‘성리학의 도입 시기’와 궤를 같이하여 찾는 편이 나을 듯하다. 또 16세기 麗末鮮初 때의 성리학은 무엇보다 현실에서의 ‘의리’와 ‘절의’를 유자의 근본 정신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몽주’가 있으며, 조선 초기 사림들의 표상은 ‘절의 정신’이었다.

정몽주의 문도에서 길재가, 길재의 문도에서 김숙자, 그리고 김숙자의 아들 김종직, 김종직의 문하에서 김굉필, 그리고 김굉필에서 수학한 조광조로 이어지는 유학은 다름이 아닌 ‘성리학’이며, 조선의 ‘도학’이다.

본고 뒤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호남학’ 또는 ‘호남 유학’은 이 ‘도학’의 계통에서 정신적 연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늘 그러하듯, 왕조를 개국할 때는 건국이념과 공신들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불의와 정의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때 ‘불의’를 배척하고 ‘정의’를 옹호하려는 儒者는 사육을 근절시키고 공론을 일으킴으로써 왕조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 ‘의리’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⁷⁾

3) 안진오·오종일·최대우 외, 『호남의 유학자들』, 전남대 출판부, 「서문」

4) 전남대 이강래 교수는 ‘호남’이라는 명칭이 근대 이후 전라도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이 됐다는 것 외에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고 한다. 호남과 호서는 이궁익의 『연려실기술』에 동시에 등장하는데, “김제군 ‘벽골제’(호수)를 경계로 전라도를 호남, 충청도를 호서라 부른다. 또는 제천 ‘의림지’(호수)가 있어서 충청도를 호서라고 한다”는 기술이 보인다. 왜냐하면 벽골제의림지는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로 평가받을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호남이라는 명칭이 벽골제나 금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장수군에서 발원, 충북과 충남을 거쳐 강경에서부터 충남·전북의 도계를 이루면서 서해로 흘러드는 금강의 위치와 금강의 옛 명칭이 호강(湖江)인 점 등을 고려, 금강 유래설에 무게를 더 실는 시각도 있다.

5) ‘史’의 자형은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이 있기 전을 ‘先史’라 하고, 지나온 과정[歷]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을 ‘歷史’라 한다.

6) 『광주읍지』와 『고려사』에 실린 호남의 인물로는 ‘金良鑑’과 그의 5대손 ‘金須’ 등이 있다.

그렇다면 ‘호남 유학’의 표상이라 할 유자들로는 누구를 거론할 수 있는가? ‘정몽주’는 ‘영일 정씨’로 ‘경주’ 사람이고, ‘길재’는 금오산 아래의 善山 지역 사람이다. ‘길재’에게서 수학한 ‘김숙자’ 역시 선산 근처 출신이고, 조선 초기 ‘성리학’과 『소학』으로 이름났던 정여창은 함양, 김굉필은 현풍 등, 모두 영남 사람들이다. 조광조는 함경도에서 성장하였으나, 본래 용인 출신이므로, 이들 유자 중에 사실 호남 출신은 없다.⁸⁾

사실 호남인으로 정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시기는 기묘년 때부터다. 전남 광주 출신의 朴祥(1474~1530)은 조선 성리학을 공고히 빛내기도 한 인물이며, 조선에 주자학 일존주의가 본격적인 儒風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 활동하였기 때문에, 도가나 양명학 계열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춘 유자다. 전남 담양 태생의 송순(1493~1582)과 기묘사화 때 낙향한 崔山斗(1483~1536) 역시 전남 광양인이다. 이외 호남의 대표 유자로 ‘奇遵’, ‘高雲’, ‘양팽손’이 있다. ‘양팽손’은 ‘조광조’가 유배지에 있을 때 곁에서 보살피다가 그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을 보면, ‘호남학’의 발전이 각계에서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최초이자 최대논쟁이라 할 사단칠정 논쟁의 주인공 ‘기대승’도 ‘기준’의 조카였고, 왜란 때 금산 전투의 선봉장이었던 ‘고경명’은 ‘고운’의 손자였으니, 호남 유자의 뿌리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선 道學의 ‘의리’와 ‘절의’ 정신의 표상은 전남 장성 출신의 ‘하서 김인후(1510~1560)’를 도외시하고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奇遵’은 “김인후가 곧 세자 인종의 신하가 될 것”이라 예측하였는데, 기실 ‘김인후’는 인종이 세자 시절 師傅가 되었다. 김인후의 의리·절의 정신은 이미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므로, 필자가 굳이 그의 의리·절의 정신을 부연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할 것이다.

다만, 하서 김인후는 문묘에 배향된 〈동국 18현〉 중 ‘유일한 호남지역 출신의 유자’라는 점에서 분명 실제적·상징적인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 옛말에 “살아 있는 政丞 10명이 죽은 大提學 1명에 미치지 못하고, 대제학 10명을 배출한 가문도 文廟에 배향된 賢者 1명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김인후의 의리와 절의로 숭상되는 도학이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대한 ‘인지도 提高’가 우선임을 강조하고 싶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김인후 삶을 ‘열전’에 가까운 「전기」가 필요하다.

예컨대, 김인후는 세자 또는 세손을 교육하는 〈世子·世孫侍講院〉의 ‘師傅’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인생에서 ‘사부’와 ‘제자’의 遭遇는 보통의 예삿일이 아니다. 더욱이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지식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의 행동거지를 인도하는 이가 바로 사부이기 때문이다. 자칫 중국 무술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부’를 떠올려서는 결코 아니 된다. ‘사부’는 『경국대전』에 시강원의 ‘정1품’ 관직으로, ‘師’는 영의정이 ‘당연직(겸직)’이었고, ‘傅’는 좌의정 또는 우의정이 ‘당연직(겸직)’으로 명문화되어 있을 정도다.⁹⁾ 그러니 ‘사부’는 ‘정승’과도 어깨

7) 이러한 의리와 절의는 조선 개국에 참여를 거부한 隱逸之士, 세조의 篡奪에 반대했던 死六臣, 단종 복위를 염원하며 弔義帝文을 지어 화를 당한 김종직 일파, 至治主義를 내세워 조선에 도학 정치를 시련하고자 했던 기묘 현인 조광조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불의에 맞선 도학의 표상들이다.

8) 김굉필은 무오사화와 연관되어 함경도 熙川 지역으로 유배당했고, 이때 희천 察訪으로 부임한 부친을 따라와서 김굉필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한 13세 소년이 조광조다. ‘찰방’은 조선시대 때 각도의 驛站 일을 맡아 보던 외직으로 문관 벼슬 중 하나다.

9) 『경국대전』, 권1, 「吏典」, 從三品衛門

를 나란히 할 위치였다. 이처럼 ‘師’와 ‘傅’는 명분과 실질이 공존하는 엄연한 관직으로, 신하 이기에 앞서 왕족의 ‘스승’이므로, 그 어느 누구도 犯接할 수 없는 직책이었다.¹⁰⁾ 예를 들어 강연을 앞두고 사부가 입장하면, 왕세자조차도 뜰에 내려와 사부를 영접하고, 사부가 당상에 오르면 왕세자가 먼저 再拜한 이후에 사부가 답례할 정도였다.¹¹⁾ 이와 같이 김인후가 사부를 역임했던 것은 실제 상황이었으니, 이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확산할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필자는 김인후가 인종의 사부였다는 사실 외에, 그가 인종을 교육했던 「法講」과 「會講」의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듦으로써, 김인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¹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차 일국의 왕이 될 세자·세손에게는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양 교육을 시행하였다. 예컨대, 종묘사직에 대한 ‘祭禮’ 교육은 기본이고, 군사훈련에 해당하는 ‘講武’와, 왕을 扈從하는 가르침도 사부의 임무였다. 서예, 외국어,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국가 의전(외교) 및 정치 실무까지 모두 사부가 교육하는 커리큘럼이었다. 물론 현전하는 왕세자 교육 사료는 주로 ‘유가 경전’과 ‘역사’ 위주뿐이나, 김인후가 당시 인종을 위한 교육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그 면면을 스토리텔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열성조계강책자차제(列聖朝繼講冊子次第)』와 『東宮日記』를 면밀하게 천착할 필요도 있다.¹³⁾

2) 하서 김인후를 왜 ‘사자(獅子)’라 표현하는가? 14)

→ 사자의 ‘맹수’ 이미지보다, ‘獅子’의 습성과 문자학적으로 접근, 김인후의 삶과 연계시켜 본다.

한자문화권 국가는 거의 산악지형이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 속에서 나무를 오르고 계곡에서 물을 즐기는 ‘범’은 있어도 ‘사자’를 구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초원(사파리)에서 활동하는 百獸의 帝王 ‘Lion’을 ‘獅子’로 표기(번역)했음에서 우리는 ‘무엇인가’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일단, 필자는 ‘사자’를 맹수라 전제하지 않고, ‘사자’라는 동물이 갖는 순수한 성향부터 화두로 삼고자 한다.

첫째, 한자문화권에서 상서로운 상상 속의 동물로는 龍·鳳凰·麒麟 정도다. 그런데 ‘獅子’를 보면, 끝에 ‘子’를 붙였다. 椅子·卓子·酒煎子에서의 접사 ‘子’가 아니라, 공자·맹자라 할 때의 ‘子’를 붙여 놓았다. 사자에게 왜 스승·선생님·남자에 대한 美稱을 상징하는 극존칭 표기를 하였을까? 필자의 선입견으로 사자는 성질이 매우 포악한 최상위 맹수에 불과한데 말이다.

둘째, ‘子’를 붙인 것에도 부족한지, ‘獅’를 쓸 때 ‘개 사슴록(豸)’ 변에 ‘스승 師’로 표기했

10) 서연관 관료들은 모두 신하의 위치에 서 있지만, 사와 부는 신하라는 입장보다 스승으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11) 혹여 사부가 사망할 시, 왕세자가 친히 조문하고, 또 왕세가 직접 초상을 알리는 發喪이라 할 ‘擧哀’도 치른다. 致弔·致贈·致祭 역시 왕세자가 친히 거행한다.

12) ‘범강’은 오늘날의 ‘정규 수업’에 해당하고, ‘회강’은 ‘공개 강의’를 말한다.

13) 현존 사료 중, 왕세자 교육의 일면을 가장 사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표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열성조계강책자차제(列聖朝繼講冊子次第)』인데, 1645년 10월 3일(인조23)~1892년 4월 2일(고종29)까지의 기록이라는 점이 아쉽다. 그러나 이 책을 참고하여 왕세자 교육 일면을 역추적할 수 있으며, 인종이 세자였을 때의 『동궁일기』를 함께 천착할 필요가 있다.

14) 김용재, 「2022년 교육과정에 신규 진입한 ‘언어생활과 한자’ 과목에 대한 기대와 전망, 그리고 제언」, 《한문교육논집》, 64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25.6

다. 물론 이때 ‘師’는 단순히 발음을 나타내는 ‘音部’일 수도 있지만, 웬지 ‘스승’·‘선생’이라는 반전의 의미가 숨어 있을 듯도 하다. 왜냐하면 스승은 오직 덕망과 인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날카로운 발톱과 사나운 송곳니를 가진 난폭한 사자에게서 스승의 이미지를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는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었던 선생님도 있었지만, 이는 오로지 학습자의 미래를 위한 절규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악마를 물리치는 위엄있는 설교를 ‘獅子吼’라고 쓰는 것을 떠올려 보면, 사자의 외적인 위용보다, 그 내적으로 숨은 뜻이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에 모든 짐승이 오금을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은 곧 부처의 설법에 중생들이 숙연함을 표하는 것에 비유하였다니 말이다. 사자가 부처로까지 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사자가 부처님의 외모와 닮아서일까? 하기가 사자머리의 갈기는 멀리서 볼 때 둥근 황금빛의 태양과 같다. 길게 내려온 코는 흡사 인간의 코와도 비슷하다. ‘이리[狼]’처럼 교활해 보이지도 않고, ‘늑대’처럼 포악하지도 않다. 동물의 왕국 속에 보이는 사자의 행동은 점잖아 보이기까지 하다. 그런데 동물을 연구하는 자들에 따르면 사자의 ‘눈’이 인간의 ‘눈’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한다. 초식동물은 기껏해야 발밑의 풀만 보고 다닌다. 설사 머리를 들어도 한 두 번 고개 질을 할 뿐, 이내 다시 머리를 내린다. 하지만 사자는 머리를 들고 사파리의 먼 지평을 내다본다.¹⁵⁾ 심지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흡사 자신이 어느 곳으로 이동할지를 사색하는 느낌마저 자아낸다. 사자가 먼 지평을 바라보는 그 눈길과 방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視線’에 가깝다. ‘시선’이란 단순히 ‘눈이 가는 길과 방향뿐만 아니라, 사색과 통찰이 내포된 개념’이다.

獅子에 ‘스승 師’와 ‘스승 子’를 붙여 후한 대접을 보인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당장 필요한 눈앞의 기술교육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獅子’의 한자 표기를 보면, ‘멀리 생각하라’는 《논어》의 문구가 떠오른다.¹⁶⁾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용적인 기술교육에 천착했던 독일은 유럽 최강의 기술·과학 강국이 되었지만 1·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패했다.

그러나 먼 미래를 설계하도록 ‘인성교육’과 ‘인문주의 교육’에 힘썼던 다른 나라는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람됨’이고 ‘어울림’이다. 필자는 이를 ‘관계론의 패러다임’이라 정의한다.¹⁷⁾

필자가 김인후를 ‘獅子’에 비유하고픈 마음은 사자가 갖는 사나운 맹수의 기질보다 멀리 내다보며 초원의 생태계를 啓導하는 습성을 높이 평하고자 함이다. 사자가 미래를 내다보며 울부짖는 소리가 초원의 웅장함을 상징하듯, 김인후가 보여주었던 ‘處士’로서의 儒風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비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오롯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5) 초원을 무대로 활동한 사자는 먼 곳의 지평선을 바라보는 데로 진화했고, 호랑이는 산악과 골짜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무와 물 등 자연을 이용하는 쪽으로 진화했다. 위는 사자와 호랑이의 서로 다른 장단일 뿐이다.
 16) 『論語』, 「衛靈公」: 人無遠慮, 必有近憂.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가까이 걱정이 있다.”)
 安重根 義士의 遺墨 中, 人無遠慮, 難成大業.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17) ‘person’을 한자로 번역할 때 ‘人’이 아니라, ‘사이 間’을 붙여 ‘人間’으로 표기하는 것은 ‘관계’를 중요시해야만 한다는 가치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의 “Help me~!”는 “나 좀 살려줘!”·“나를 도와줘!”라 직역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자문화권에서는 “사람 살려”라고 번역한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지만, 집에 가면 노부모를 모시는 아들일 수 있고, 대학 동문회에 가면 선후배이며, 지도교수를 만나면 어리광을 부리는 제자일 수도 있다. 그것이 ‘사이 間’을 쓰는 ‘인간’이다.

예컨대, 그는 34세 때 (중종 38, 1543) 己卯名賢의 신원 복원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는 최소한 치세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묘사화가 지난 지 25년이 되었는데도, 조야에는 아직도 서슬 퍼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말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상소를 올렸던 그의 기개는 대단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부모 봉양의 乞養을 청한 후 고향에 가까운 옥과현감으로 내려온다.

훗날 세자시강원의 사부로서 당시 세자였던 인종이 즉위했지만, 인종의 석연찮은 서거 후, 그는 통곡하며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는 용단을 내렸다. 그의 예견처럼 을사사화의 서막이 올랐고, 이후 김인후는 조정의 모든 부름을 고사하고 ‘節義’를 고수하는 처사의 삶을 지켰다.¹⁸⁾

우리는 근대기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교육철학에 익숙하다 보니, 우리 고유의 의식·사상·세계관·가치관 등을 부지불식중에 잃어갔다.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 시각은 반드시 ‘분석적’이어야만 한다는 압박이었다. 그리고 그 ‘분석’ 방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다. 이분법적 사고는 반드시 ‘우열’의 ‘흑백논리’를 양산한다.

김인후는 이 같은 분석의 프레임을 거부한다. 學優登仕하여 立身揚名을 실현하는 것이 조선의 모든 선비가 갖는 꿈이었을지 몰라도, 올곧지 못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김인후는 진정한 지식인의 활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다. 필자의 管見이지만, 그는 보통의 성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主知主義(intellectualism)를 떠나 ‘主情的 人間愛’를 표방한 유자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모든 사사물물에는 ‘존재 이유(所以然)’와 ‘당위의 법칙(所當然)’이 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존재의 이치’가 있고, 존재하면 당연히 생명의 자연법칙에 순응해야 한다. 인간도 예외일 수 없으니,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하면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 뒤따른다. 그것이 사물에 있어서는 ‘이치[理]’이고, 인간에게는 ‘도리[理]’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숙명이고 숙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존재’와 ‘당위’가 一以貫之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세계는 비록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들의 관계는 애당초 하나다. 주돈이가 “태극이면서 무극이고 무극이면서 태극”이라 말하였고, 주자도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 하지 않았던가? 또한, 理와 氣의 관계도 ‘不相雜’과 ‘不相離’의 관계라 하지 않았던가?¹⁹⁾

18) 명종2, 1547 : 성균관 전적으로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음. → 명종4, 1549 : 성균관 전직에 재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음. → 명종8 1553 : 성균관 直講에 재임명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음. → 명종9 1554 : 성균관 直講에 또 임명되었으나 고사함. 그는 조정의 부름에 모든 관직을 고사함.

19) 굳이 이를 학문적으로 논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관습으로부터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집을 나갔던 사람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관습적 사고[歸巢本能]가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출구’와 ‘입구’를 따로 분리하여 말하지 않는다. 통상 “出入口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듯이, “입구가 어디고 출구는 어디냐”며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설사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나누었을지라도 다시 원상 복귀를 꿈꾼다. 가위로 잘라낸 옷감도 다시 바늘과 실로 꿰매야만 한다. 이것을 ‘裁縫’이라 말했던 이유는 한 조각의 떨어져 나간 片鱗도 다시 집고 꿰어맞춰야만 했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고, 그래서 마땅히 그 도덕[德性]을 행위로 옮겨야만 하는 ‘실천적 존재’다. 동양적 사고에는 ‘도덕 존재’와 ‘도덕 실천’의 이치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분리하여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김인후는 석연찮은 인종의 서거 이후,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신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도덕적 삶은 하나라고 여겼다. 물론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乞養을 청하였지만, 그의 삶은 당시 조선 정계의 관료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메시지였다. 기묘명현의 신원이 복권이 좌절된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혼탁한 세상과 더 이상의 타협을 한다는 자체가 유자로서의 정의로운 삶이 아님을 보여준 엄중한 경고였다. 『논어』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말도 준엄하게 하고 행동도 준엄하게 하며, 나라에 도가 없으면 행동을 준엄하게 하되 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²⁰⁾

‘치세’에는 언행도 과감하게 할 수 있기에, 김인후는 한때 (중종 재임 시) 기묘명현들의 신원 복원을 준엄하게 상소할 수 있었지만, 석연찮은 인종의 서거에 즈음하여 그의 언행은 참으로 신중했다. 위 『논어』 경문은 선비가 현실의 상황 - 치세와 난세 - 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처신하라는 공자의 ‘危遜’의 도리를 명백히 보여준다. 선비의 삶이란 세속을 따르지 않고 해악을 버리며 소신껏 행할 때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 『중용』에서도 이 같은 가르침이 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그 말로써 적극 참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침묵을 지켜 그 몸을 지켜야 한다.²¹⁾

혹, 이 같은 유가 경서의 문구와 김인후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유는 난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언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물론 ‘간언’과 ‘직언’을 서슴지 않은 삶도 있었다. 그러나 위 유가 경전에서의 참뜻은 “선비의 삶이란 절도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나라에 도가 없다면, 그러한 위정자를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찌면 『시경』의 明哲保身과도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다.²²⁾

이처럼 유가 경서에서의 ‘國有道’와 ‘國無道’는 ‘치세’와 ‘난세’로 비유되며, 선비의 처세에 대한 가르침을 동일한 구조로 반복·재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때에 맞게(時宜適切)’ 또는 ‘適當하게’ 처신하라는 진중한 가르침이다.²³⁾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김인후의 삶은 절대적으로 공맹 유학으로 회복을 꿈꾸는 ‘도학자’로서의 품격을 지녔다고 평할 수 있다.

20) 『논어』, 「헌문」: 邦有道, 危言危行, 邦無道, 危行言孫.

21) 『중용장구』: 國有道, 其言足以興, 國無道, 其默足以容.

22) 『대학장구』: 既明且哲, 以保其身.

23) 김용재, 「대학 교양수업에서의 ‘문화’를 매개로 하는 한자어 교육: 낯설과 다름을 대하다」, 『한문고전연구』, p.247~248 본문 및 각주 22)번 참조: ‘적당’이라는 한자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기업인 L 그룹의 某 회장이 사원들에게 “적당주의를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기사가 공론화되면서, “공무원의 적당주의와 복지부동 아웃”이라는 헤드라인 기사 등에서 적당주의에 대한 사회적·부정적 견해가 만연됨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適當’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알맞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표현이다.

□ ‘치세’와 ‘난세’에서의 선비의 언행

	출처	대상	邦有道·天下有道	邦無道·天下無道
논어	공야장 1	남용	不廢	免於刑戮
	공야장 20	영무자	知	愚
	태백 13	(불특정다수)	見 貧且賤焉, 恥也.	隱 富且貴焉, 恥也.
	헌문 4	(불특정다수)	危言危行	危行言孫
	위령공 6	거백옥	仕	可卷而懷之
	계씨 2	·	禮樂征伐自天子出	禮樂征伐自諸侯出
맹자	진심상 42	·	以道殉身	以身殉道
중용	중용장구 27	·	其言足以興	其默足以容

3. ‘전문 학술성’의 眞價

1) 근대 학자들의 김인후에 관한 評述은 어떠한가?

→ 김인후 궤적, 사상사적 위상

생각해 보자. 삼국시대(통일신라 포함)가 망한 후, 고려 왕조가 들어섰다. 그러면 ‘삼국’과 ‘통일신라’에 관한 사상사는 누가 기술하였는가? 고려 왕조의 ‘김부식’이다. 그가 쓴 『삼국사기』는 비록 사마천의 『사기』 형식을 빌려 작성하였지만, 성쇠의 원인과 교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 고려가 망한 후 조선왕조가 들어섰는데, 고려의 사상사는 누가 기술하였는가? 조선왕조의 유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작성한 『고려사』에는 抑佛崇儒 등, 조선 통치를 위하여 정치적 활용도가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이 前代 왕조가 멸망하고 새롭게 들어선 왕조들은 앞 시대의 사상사를 기술할 때마다, 앞 왕조의 장단점 중 멸망 원인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이 세운 왕조의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삼국사기』는 『사기』의 편제를 수용한바, 황제의 궤적을 담은 「本紀」로부터 제후의 사상사라 할 「世家」, 그리고 평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列傳」까지 골고루 기술하였다. 그런데 조선 초기 완성된 『고려사』에는 고려 ‘황제’의 역사는 사라지고 제후[王]의 업적을 다룬 「세가」부터 시작한다. 이미 “고려가 황제의 나라였음을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망한 후, 조선의 사상사는 누가 작성하였을까? 거의 완본에 가까운 조선 사상사는 일제강점기 때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에 의해서였다. 그는 조선 사람보다 조선 말을 더 잘했을 뿐 아니라,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 조선의 언어·관습·사상 등을 분석하여 『조선속담집』까지 편찬한 인물이다.²⁴⁾ 우리나라에도 ‘다카하시’가 쓴 서적이 번역되어 출간된 바가 많다.²⁵⁾ 그러나 고교형이 쓴 『조선유학사』는 20세기 한국유학을 연구하는 데 足跡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식민주의 관점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곡직과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다.²⁶⁾

24) 다카하시 도루, 박미경 편역, 『朝鮮俗談集』

25) 高橋亨 저, 구인모 역, 『식민지 조선을 논하다』, 동국대출판부, 2010 / 고교형 저, 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 현상운 저, 이형성 교수, 『현상운의 조선유학사』, 심산, 2008 / 고교형 저, 이형성 편역, 『조선유학사』, 예문서원

26) 최영성은 일제의 관학자들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유학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

그러나 본고는 고교형의 《조선유학사》에 대한 평보다, 그가 쓴 조선 유학사에 ‘하서 김인후’에 대한 評述이 어떠한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고교형의 관점은 생략한다. 단적으로 고교형은 그가 쓴 《조선유학사》에서 ‘김인후’를 “이황 이전의 유학자이며, 순결한 지조로 주자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한때 명성을 얻었다.”라고 기술했다.²⁷⁾ 그리고 김인후의 사상적 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고종 때의 언론이었던 장지연은 『조선유교연원』에서 하서 김인후를 ‘도학자’라고만 짧게 소개하였다.

현상윤은 『조선유학사』에서 김인후의 스승 ‘김안국’을 간단히 서술할 뿐, ‘김인후’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만, 그는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들을 ‘주리’·‘주기’로 분별하는 방식을 배제한다. 이는 소위 ‘학과’로 구분하는 방식을 배제한 셈이며, 고교형의 한국유학 틀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상윤 역시 조선 후기의 일부 학자들에게는 ‘주리’·‘주기’를 제한적으로 적용·서술한다.

기호	영남
서경덕(1489-1546)	이언적(1491-1553)
이 이(1536-1584)	이 황(1501-1570)
주기파	주리파

그런데 이 『조선유학사』를 보면, 현상윤은 『하서 문집』을 대하면서 느낀 점을 술회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는 “김인후의 학문 수준이 매우 높으며, 특히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정밀하다”라고 평술하였다.²⁸⁾ 현상윤의 또 다른 저술 『조선유학사』에서는 김인후를 조선의 유자 ‘10명’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²⁹⁾

이를 뒷받침하는 전거가 있는데, 훗날 柳正東은 “鄭之雲(1509~1561)이 작성한 『天命圖解』 속에 나오는 김인후의 『천명도』가 성리학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졌음을 보여주며, 훗날에도 비교 불가할 정도”라 극찬했다. 이러한 견해들은 앞서 고교형이 평했던 바와 같이,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에서 기대승의 논조가 김인후의 견해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의 傍證이다.³⁰⁾

배중호는 “주리와 주기의 대립은 ‘이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³¹⁾ 라고만 말했을 뿐, 조선 유학사에서 ‘김인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외, 이병도는 ‘하서 김인후’의 〈天命圖〉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김인후는 이황과 동시대 유자이다.”라고만 기술했다.³²⁾

필자는 이들 근대기 ‘한국 유학’을 저술한 학자들이 ‘김인후’에 대한 연구가 왜 이렇게 미약한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조선의 내봉으라는 학자들조차도 ‘하서 김인후’에 대한 극찬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황, 송시열, 하물며 정조대왕까지 김인후에 대한 평은 대단하였다.

다고 비판하였다. 또 이형성은 조선의 유학사상을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누려는 고교형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비판하였다.

27) 고교형 저, 이형성 편역, 『조선유학사』, 예문서원, p.63

28) 현상윤, 『조선유학사』, 玄岩社刊, p.105

29) 현상윤 저, 이형성 교주, 『조선유학사』, 심산, 2010. p.149`151

30) 하서 김인후의 『天命圖』에 관한 연구는 서경요의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 구조와 성리학 연구」, 『동양철학연구』 28집을 참고하기 바람.

31) 배중호, 『한국유학사』, 연세대 출판부, 1974. p.70~74

32)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p.222~224

- 이황(1501~1570) : 하서 김선생(湛翁)은 만년에 이르자 식견이 매우 정밀하였고 의리를 논설함이 평이하면서도 명확하다며, 선생을 심히 칭송하였다.³³⁾
- 이황(1501~1570) : 하서는 적적하고 고요함 속에서도 몇 마디 말했을 뿐이나, 역시 그(성리학)의 대지를 이미 관철했다.³⁴⁾
- 송시열(1607~1689) : 조선 개국 이래 도학·절의·문장을 갖춘 유일한 학자이다 <중략> 일반적으로 (하서)선생은 도학의 이치를 꿰뚫고 있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지 그에게) 두드리면 곧 응답해 주었으니, 마치 소매 속에 넣어 둔 것을 꺼내 주는 것과 같았으며, 대양 당연하지 않음이 없었다. 퇴계와 같은 분도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그를 좇은 것이 여러 차례였다.³⁵⁾
- 홍직필(1776~1852) : (하서) 선생은 호남의 큰 스승으로, 도학·절의·문장·사공 등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분이다.³⁶⁾
- 정조대왕(1752~1800) :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대승의 四七往復書’는 대부분 하서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다.³⁷⁾

김인후는 16세기 이황과 동시대를 살았고, 한때 성균관에서 이황과 함께 후학 양성까지 길을 걸었던 그의 인품과 학덕은 17세기 조선의 대유학자인 송시열을 거쳐, 18세기 정조대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9세기 홍직필의 입에 오르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도학자로서의 품격을 극찬받았다. 그럼에도 근대기 한국 유학을 집필한 연구자들은 김인후에 대한 평술이 거의 없거나, 일설로 같음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하서 김인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평가는 최영성의 「퇴·율 전후의 名儒」라는 글과³⁸⁾ 「두 ‘天命圖’의 제작 배경과 김안국·김정국 형제」라는 논문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지고 있다.³⁹⁾ 물론 이에 앞서 하서 김인후의 도학에 관한 소중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⁴⁰⁾ 본고는 김인후에 관한 선행연구 전체를 분석하지는 못한 채, 몇 편만을 참고하여 본고를 작성하는 한계를 남긴다.

33) 『퇴계전서』 「언행록」(5), 「論人物」: 金河西晚年所見甚精, 論說義理, 平易明白, 先生甚稱之.

34) 『퇴계문집』 권16, 「答奇明彦 別紙」: 湛翁雖只有寂寥數語, 亦已見其大旨.

35) 『송자대전』 권154, 「하서김선생신도비명」: 國朝人物, 道學節義文章, 忒有品差, 其兼有而不偏者無幾矣 (후략)

36) 홍직필, 『訓蒙齋記』: 先生湖南之夫子也. 道學節義文章事功, 四者咸備.

37) 『弘齋全書』, 「日得錄」, 「人物」: 世謂奇高峯四七往復書, 多出於河西之手. 蓋奇是河西之甥.

38)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2)』, 아세아문화사, 1995)

39) 최영성, 「두 天命圖의 제작 배경과 김안국·김정국 형제」, 『한국철학논집』 73, 2022

40) ①김덕진, 「인종의 왕도정치 지향과 퇴계·하서의 활동」, 『퇴계학보』 156, 2024 / ②김범수, 「하서 김인후의 인간관」, 『철학연구』 92, 대동철학회, 2004 / ③김우형, 「하서 성리학의 철학사적 고찰」, 『유학연구』 23,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0 / ④서경요,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 구조와 성리학 연구」, 『동양철학연구』 28, 2002 / ⑤서우열, 「하서 김인후의 도학사상의 정치적 실천과 후대의 평가」, 『유교사상연구』 47, 2012 / ⑥오병무, 「하서 김인후의 성리철학」, 『동양철학연구』 36, 2004 / ⑦유권중, 「하서 김인후의 실리에 관한 고찰」, 『철학연구』, 고려대 철학연구소, 1988 / ⑧이기동, 「하서 김인후의 삶과 철학」, 『한국사상과 문화』 77, 2015 / ⑨이동희,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성리학」, 『퇴계학논집』 8, 2011 / ⑩정낙찬, 「하서 김인후의 교육방법론」, 『교육철학』 29, 2006 / ⑪최영성, 「두 天命圖의 제작 배경과 김안국·김정국 형제」, 『한국철학논집』 73, 2022

2) 김인후는 왜 ‘도학자’인가?

→ 典據에 의거하여 철저히 규명하다.

‘도학’이라는 명칭은 『중용장구』 「서」에 나온 것이 가장 유명한 선례라 할 수 있다. 주자는 “자사가 도학이 그 전승을 잃을까를 염려하여 지었다.”⁴¹⁾라 기술했다. 따라서 도학은 성리학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의 학문 장르다. 혹자는 성리학 안에 도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도학은 공맹유학 또는 본원 유학으로서의 공맹사상을 총칭하는 말이다.

고려말(1290) 안향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유학은 엄밀히 말하면 정통 주자학이 아니다. 이미 원나라 이전의 남송 때 주자와 육구연 형제가 만난 ‘아호논쟁’ 이후, 주자학은 다소 색깔을 달리한다. 『朱子晚年定論』이 그 방증이다. 안향 역시 원나라 때 관료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주자집주』와 그의 학풍을 관찰하여 이를 도입한 것이다. 이때 주자학의 기본 학풍도 공자가 말한 수기치인의 학문을 여하히 개발하여 성인군자가 되기 위한 자기 개발의 학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필자는 조선의 사상계를 말할 때, 송학·정주학·성리학 등의 용어는 타당치 않다고 본다. 물론 정주-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주학이나 성리학은 교조주의로 호를 개연성이 매우 다분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 송대의 성리학은 우주론에 관심이 많았고, 조선의 성리학은 심성론 방면을 천착하였다는 차이도 있다. 그리고 회재 이언적은 주자를 흠모하여 주희의 호 ‘晦庵’에서 ‘晦’를 받아 본인의 호(晦齋)로 삼았을 정도로, 조선 유자들에게 주자학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회재 이언적은 『大學章句補遺』를 저술하면서 주자학과 상이한, 아니 좀 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사상계를 성리학이나 주자학이라 말하는 것은 조선의 학풍을 드러내지 못하는 용어다.

道學 ≒ 理學 ≒ 성리학·송명학·정주학·주자학

따라서 조선의 건국이념은 ‘성리학’이라기보다 ‘도학’이라 말하는 것이 훨씬 近事하다. ‘도학’이라는 학문 범주 안에는 ‘철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의례(관혼상제) 문제’·‘경전 해석 문제’ 등, 폭 넓은 영역을 담보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도학’은 16세기 중종~인종~명종 대에 가장 치열하게 대두되었다.⁴²⁾

‘도학’은 단순히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유학이 아니다. 도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 8개의 범주를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 ① 도학은 ‘道統(론)’에 동의해야 한다. ‘道統觀’은 도학자에게 있어 하나의 ‘케리그마’와 같으며, ‘신념’이다.
- ② 경전 해석학적 입장, 즉 ‘經學(觀)’이다. 경학은 도학의 존립 기반과도 같으며, 도학자들에게 있어 세계관의 근원이다. 도학자는 모두 각자의 독자적인 경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 『중용장구』 「서」: 子思子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

42) 그 중심에 도학의 정치적 이론을 실천으로 현실화하였던 조광조가 있었고, 도학의 의리와 절의를 정신적 가치로 실제의 삶을 살았던 김인후가 있다.

- ③ 도학을 지켜내는 관문이라 할 ‘義理(정신)’이다. 환언하면, ‘의리’는 도학을 지킬 수 있는 가치관이자 도학의 얼굴 역할을 한다.
- ④ 도학의 철리적·이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性理(論)’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⑤ ‘성리학’으로 이론적 체계를 갖췄다면, 시비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앎[知]’과 그에 부합하는 도덕 실천력[行]이 수반되어야 한다. 의리 정신이 도학의 얼굴이라면, 이 ‘知行(론)’은 도학 체계를 받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다.
- ⑥ 무엇보다 ‘도학’에는 자성과 성찰이라 할 ‘修養(론)’이 포함되어 있다.
- ⑦ 내적으로 수양이 완성되었다면, 외적으로 드러내는 절차와 양식이 필요한데, 도학에는 이를 ‘예학(론)’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다.
- ⑧ 끝으로, 내적인 수기와 외적인 질서가 갖춰졌다면,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경세(론)’를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김인후가 도학자임이 명백함을 위의 조건에 하나씩 매치업하면서 논증해 보기로 한다. 첫째, 위 ①의 ‘도통(론)’부터 살펴보자. 일단 조선의 사상계를 ‘도학’이라 정의할 때, 김인후가 도학자가 되기 위한 여건을 갖추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김인후는 학문의 師表로 삼는 인물을 공자와 주자, 단 두 사람으로 단정한다.⁴³⁾

하늘과 땅 사이에 두 사람이 계시니,
 仲尼가 원기라면 紫陽은 참이로세.
 아무쪼록 潛心하여 부디 만 길로 가지 말고,
 늙어빠진 이 한 몸을 흐뭇케 하여다오. ⁴⁴⁾

도통은 공맹 유학이 전수되는 계보나 다름없다. 공자의 제자인 증삼이 『대학』을 서술하고, 증자의 도통을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중용』을 서술하고, 자사의 학맥에서 맹자가 출현하여 공자의 계보를 잇는 『맹자』 학설을 내놓는 과정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대적·평면적 흐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학맥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노선이 됨으로써, 이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지없이 이단이 되었다. 당대 이후 한때 막강한 세력을 과시했을 정도였던 도불을 闢異端으로 규정하면서, 도학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였다.⁴⁵⁾

둘째, 위 ② 경학(관)이다. ‘도학’은 경전을 해석하는 독자적 체계나 주장이 있어야 한다. 경전 해석은 조선의 儒者들에게 있어 입론의 근거이자, 본인의 학문 노선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典據이기 때문이다.⁴⁶⁾ 김인후는 교육의 절차를 『소학』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으로

43) 『하서문집』, 「부록」, 권3, 연보 : 明宗二年丁未條, 天地中間唯二人, 仲尼元氣紫陽眞. → 송시열이 쓴 신도비명에도 똑같은 글이 보인다.

44) 『하서문집』, 「부록」, 권3, 연보 : 明宗二年丁未條, 天地中間唯二人, 仲尼元氣紫陽眞. → 송시열이 쓴 ‘신도비명’에도 똑같은 글이 보인다. 훗날 김원행(1702-1771)은 ‘하서가 하서 된 이유가 바로 이 시에 있었다.’라고 회고하였다. (黃胤錫, 頤齋遺藁 권8, 「答羅舒川忠佐書」: “我先師漢湖丈席, 恒稱此詩曰, 河西之所以爲河西者, 正在此處.”)

45) 조선 초기 정도전의 ‘불교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 후기 안정복의 ‘서학 비판’은 조선의 ‘도학’ 정신이 추구하는 ‘闢異端’을 발휘한 것이며, 조선 유학의 정체성을 수호했던 방증이다.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⁷⁾ 김인후의 이 같은 경학 공부의 순서는 상당한 의미를 시사한다.

대저 선생은 처음 金慕齋에게서 《小學》을 배워 공력이 가장 깊었고 《大學》에 있어서는 혼자 단정히 앉아 1천 번이나 읽었는가 하면, 되풀이해서 실마리를 찾아내어 터득하고야 말았다. 이후부터 문인 제자를 가르치는 데에도 이 과정을 변동한 적이 없었다.⁴⁸⁾

본래 조선 초기 경학은 오경 중심으로 시작했다. 여말선초 유입된 성리학은 조선의 유자들에게 오경 중심의 공부가 강조되었다. 권근의 『오경천견록』만 보아도 입증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도학’을 추구하는 유자들은 오경에 입문하기 전에 四書 중심의 공부를 강조한다. 또 사서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소학』부터 배우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사서와 더불어 『소학』이 매우 중시되다가 보니, 『소학』과 사서를 묶어 ‘五書’ 또는 ‘五子之書’라 불리기도 했다. 그래서 한훤당 김굉필은 ‘소학동자’라 불릴 정도였고, 정암 조광조가 강조한 지치주의 역시 『소학』에서부터 비롯된 사상이었다.

이처럼 도학에서의 경학 체계를 볼 때, 김인후는 철저한 ‘도학적 경학관’을堅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셋째, 위 ③의 ‘의리(정신)’이다. 어쩌면 조선 유자들에게 있어 도학자로서의 가치관은 이 의리 정신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義理之學’은 도학자에게 있어 中樞이자 樞紐였다. 도학자의 의리정신은 ‘出處論’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출’은 벼슬에 나아가 관직에 오르는 出仕이고, ‘치’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 머무르며 초야에 묻혀 사는 處士이다. ‘학우등사’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긴 하나, 불의에 봉착하거나 중대한 이념적 가치가 침해당했을 때 자신의 신념으로 의리를 지키는 ‘절의’야말로 ‘의리정신’의 표상이다. 본디, 관직에 나아가는 것보다 관직에서 물러날 때가 더 어렵다. 이는 명분과 의리가 절의에 맞아야만 하기 때문이다.⁵⁰⁾

하서 김인후야말로 이 의리와 절의를 몸소 보여준 유자라 할 수 있기에 도학자의 師表로 추송된다. (김인후 삶 속에서의 의리와 절의는 본고 뒷장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46) 김인후의 「연보」에 따르면 37세부터는 강학에 전념하기 시작했는데, 유희춘이 전해준 주자의 『孝經刊誤』 1부를 필사한 후 발문을 지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주자의 강학 로드맵대로 『소학』을 먼저, 이후 『대학』을 지도했다. 또한, 인종으로부터 하사받았던 『주자대전』을 다독하다가 「대학강의」를 발췌·편집하여 跋文을 붙이기도 했다.

47) 『하서문집』, 「부록」, 권3, 연보 : 明宗十一年丙午條, 先生自歸家以後 °專心講學 °學徒聞風而至者 °諄諄施教 °必使先讀小學 °次讀大學 °一從朱文公成法 °其教二子 °亦以小學 °至於十年之久 °而不易他書 °

48) 『송자대전』, 권154, 신도비명 : 蓋先生初從金慕齋 °受小學書 °用功最深 °至於大學 °則兀然端坐而讀之 °至於千餘遍 °反復紬繹 °不得不措 °自後雖以授門人弟子 °未嘗以易此也 °

49) 여기서 말하는 ‘도학적 경학관’이란 무엇인가? 조선의 유자들은 四書에 앞서 『소학』을 중시했는데, 『소학』만큼 중요시한 것이 바로 『近思錄』이다. 『소학』과 『근사록』은 조선 유자들에게 사서보다 더 강한 바이블과 같은 서적이다. 이 두 서적을 통달하지 않고서는 도학에 입문했다고 볼 수 없었다. 다만, 이황은 명대 정민정이 편찬한 『心經附註』를 첨부하여 도학에 들어가는 통로로 삼았다. 『심경』은 남송 진덕수(1178~1235)가 주둔이·이정자·주자 등 제현의 학설에 주석을 모아 붙인 책이고, 『심경부주』는 명대 정민정(?~1499)이 宋·元代의 주석을 덧붙인 책이다.

50) 도학의 ‘의리정신’은 ‘華夷論’으로도 이어진다. ‘中華’와 ‘夷狄’은 ‘의리정신’이 대외적 가치론으로 부상할 때 懲憑되었다.

생략한다.)

넷째, 위 ④의 ‘성리(론)’이다. 도학자에게 있어 성리학의 논리는 필수적 요건이다. 하나의 ‘학문[學]’ 체계가 완성되려면 그 안에는 몇 가지의 이론[論]을 수반해야 한다. ‘이론[論]’이 모여 ‘학설[주장]’이 되고, 학설이 하나의 ‘학문’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본래 ‘우주론’과 ‘인간론’의 두 축으로 만들어진 체계다. 조선의 도학자들은 우주론보다 인간론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심성론’이라는 이론을 강화시켰다. 16세기 후반의 ‘사단칠정론’과 ‘인심도심론’, 18세기 전반의 ‘인물성동이론’,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심·명덕 개념의 ‘心主氣主理論’이 대표적 사례다.

김인후는 노수신과의 서신에서 이황과 함께 성리학적 담론을 주고받을 정도로 독자적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남긴 『천명도』는 이를 입증한다. 사실,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본인의 확고한 이론 체계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⁵¹⁾

다섯째, 위 ⑤의 ‘지행(론)’이다. 도학에서는 앎과 실천의 필연적 연관성을 전제한다. 『대학장구집주』에서는 격물궁리를 거론하며 먼저 앎을 다한 후에 실천으로 옮길 것을 강조한다. 소위 ‘先知後行’이다. 하지만 조선의 도학자들은 앎과 실천이 선과 후로 나누어질 때 지식 탐구[窮理]에 천착하다가 자칫 실천력이 뒤떨어질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앎[知]과 실천[行]을 ‘선지후행’보다 “두 발이 교대로 나간다”는 ‘知行互發說’이나, “새의 두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날 수 있다”는 ‘知行並進說’을 제기하였다. (*김인후의 지행관에 대해서는 자료 불충분(미비함))

여섯 번째, 위 ⑥의 ‘수양(론)’이다. ‘도학’이 추구하는 수양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인격 도야를 위한 ‘독서’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存養·省察’이다. 먼저 독서 공부에 관한 김인후가 도학자임을 입증하는 전거는 그가 47세 때 서경덕에게 보낸 「次韻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次韻徐花潭讀周易詩 두 번째 ⁵²⁾

次第工夫有後先 공부하는 차례에는 선후가 있으니
孔門曾說孰先傳 어느 것을 먼저 전하느냐고 공문에서 말했지⁵³⁾
眞知不外常行地 참된 앎은 일상 행동 벗어나지 않나니.

51) 앞서 언급했지만, 다카하시가 김인후를 평하면서 기대승과 이황의 사칠논쟁 화두는 일면 기대승과 김인후의 대화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2) 『하서전집』, 부록, 권3, 次徐花潭敬德讀周易詩 : 時花潭以心學 °爲一時所宗 °嘗有讀周易詩曰 °坎離藏用有形先 °到得流行道始傳 °義畫略摸眞底象 °周經且說影中天 °研從物上方知化 °搜自源頭始破玄 °書不盡言言外意 °仲尼非獨絕韋編 °先生見其詩曰 °聖人之言 °即天地之道也 °不可謂之影 °遂次其韻曰 °渾然全體有生先 °大化流行物共傳 °義畫推移明變化 °周經剖析驗人天 °工夫盡處方知妙 °體認深時更覺玄 °立象繫辭言意盡 °憶曾將聖絕韋編 °又有一詩曰 °次第工夫有後先 °孔門曾 a033_315c說孰先傳 °眞知不外常行地 °下學無非上達天 °未信聖人言的的 °翻愁學者惑玄玄 °本源徑造精微處 °末弊其如廢簡編 °蓋花潭之啓導學者 °有不屑下學 °頓悟捷徑之處 °故先生深憂之 °乃步其韻以訂之 °

53) 어느……말했지 : 《논어》 〈자장(子張)〉에, “군자의 도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라 하여 우선 전수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할 것이라 하여 게을리 가르치겠는가.[君子之道, 孰先傳焉, 孰後倦焉?]”라고 했는데, 주자의 주에 정명도(程明道)가, “군자가 사람을 가르침에 순서가 있어서 먼저 작은 것과 비근한 것을 가르친 뒤에 큰 것과 먼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 비근한 것과 작은 것을 먼저 가르친 뒤에 먼 것과 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君子教人有序, 先傳以小者近者而後, 教以大者遠者, 非是先傳以近小而後, 不教以遠大也.]”라고 하였다.

下學無非上達天	아래부터 배워서 모두 하늘에 오르네.
未信聖人言的的	확실한 성인의 말씀 믿지를 아니하고
翻愁學者惑玄玄	배우는 이는 의혹 깊다 도리어 근심하네.
本源徑造精微處	본원의 정미한 곳 질러서 가더라도
末弊其如廢簡編	서책을 보지 않는 폐단을 어이 하리.

이는 아래로부터 배워 나가서 위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쉬운 지식을 배워 어려운 이치를 깨달음을 뜻하는 下學而上達을 표현한 부분이다. 이러한 그의 수양·공부의 방법은 주자학의 외연과 범주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⁵⁴⁾ 1구에서는 공문으로부터 내려 오는 공부론의 순차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 8구에 나타나듯, 제아무리 본원의 정미한 곳을 먼저 수양하고 싶어도 독서를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본원의 정미한 곳은 ‘존양’이다. 즉, 인간의 마음이 아직 발동하기 전(未發)의 공부를 말한다. 인간이 선천적인 본성의 순수함을 보존하고 기르는 것을 존양이라 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기질 지성의 혼탁함으로 인해 순수 본연지성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존양의 수양 공부는 대대로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자신의 본성을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보여줬던 자신의 언행(已發)’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곧 ‘이발의 공부’요, ‘성찰’이다. 도학자들은 ‘未發’시의 ‘존양’과 ‘已發’시의 ‘성찰’을 피비우스 띠라 생각했다. 미발이 본성의 순수함을 지키는 공부라면, 이발은 도덕적 성장 과정의 공부라 할 것이다.⁵⁵⁾ 공자도 잘못을 했거든 반성하고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고 하였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교정할 줄 아는 것이 도덕적 성장의 필수 요소다.

김인후는 존양·성찰을 먼저 하고자 해도, 독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을 피력한다. 이는 『중용』의 ‘존덕성’과 ‘도문학’ 중, ‘도문학’이 전제된 후 ‘존덕성’으로 진행되어야 함과 유사하다.

위 ⑦의 ‘예학’이다. 조선의 도학자에게는 행동 이론으로서 ‘예’가 절대적 규범이었다. 예는 사회적 질서 또는 규범 그 이상이었던 때문이다. 예는 본래 번다한 학문으로 발전했다. 국가(왕조) 의례체계라 할 ‘國朝禮’로부터 지방의 ‘鄉禮’가 있다. 이 향례는 지역사회의 선비공동체와 같아서, 사람들이 결속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조광조가 향약 보급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식인 육성에 공헌하며 사림과의 기반을 확고히 했던 사례는 도학자가 ‘예’를 통해 입지를 강조하는 통로였다. 이 밖에도 도학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家禮’를 내놓을 수 없다. (*김인후의 ‘예학(론)’에 관한 자료 불충분)

끝으로 위 ⑧의 경세(론)이다. 경세의 의미는 『논어』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經世濟民’의 줄임말이다. 경세론은 도학의 고유 영역이나 범주로 볼 수 없다. 다만, 필자가 이 경세론을 도학의 범주에 넣는 것은 도학자들이 직접 경세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도통과 의리의 입장에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도 임금의 통치력에 제언하는 독특한 양상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上疏’다. ‘上疏’나 ‘奏疏’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格君心’과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君道), 그리고 신하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臣道)가 잉태

54) 필자는 김인후의 학문이 단순하게 주자학을 답습하거나 혹은 주자학에 대한 術學的 논의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는다. 훗날 영남지역의 이황도 ‘理發說’을 주장하여 주자와 다른 조선 성리학의 독창성을 보였듯이, 김인후의 성리 철학에도 분명 색깔이 있으리라 추론한다.

55) 『논어』: 子曰, (중략) 過則勿彈改.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학은 의리와 심성 수양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학자들은 이러한 의리와 절의 등의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위정자에게 좀 더 강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다.⁵⁶⁾ 이러한 범주에서 본다면, 김인후는 34세(1543) 여름(7월) 晝講에 나아가 시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중종에게 기묘명현 복직 건으로 상소를 올렸으니, 도학자로서의 경세론에 관여한 것이다.

“예로부터 정치를 잘하는 임금은 모두 어진 인재를 가까이하고 선비의 풍습을 바르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어진 인재를 가까이해야지만 그들이 임금을 전적으로 보필하여 교화를 도울 수 있고, 반드시 선비의 풍습이 바르게 되어야만 인륜을 밝히고 풍속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기묘년의 참혹한 화에 대해 조야의 사림이 모두 그들의 억울함을 가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심을 털어놓고 그들의 무고함을 밝혀서 위로는 전하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닥 의심을 풀어 드리고 아래로는 지하에 있는 신하들의 통분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러 정직한 말과 진심어린 태도로 나서는 이가 있으면 논핵하는 자들이 곧 《소학》을 하는 무리라고 배척하니, 선비의 풍습이 바르지 못한 것은 다만 이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국정을 다스리는 틈에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가다듬어 자신을 돌이켜 살피고 매사에 고찰하며 강학할 적에는 기미를 탐구하고 마음을 잡아 굳게 지키는 것에 정성을 다하여, 재변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통렬히 꾸짖으며 날마다 두려워하소서. 가령 마음이 깨끗하고 안팎으로 모두 진실하여 조금의 사심도 섞이지 않게 된다면, 사특함과 바름을 분별하기 어렵지 않고 옳고 그름이 정해진 바가 있어서 이미 변해버린 사습(士習)을 일으키고 이미 해이해진 기강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니, 교화가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한 것은 근심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⁵⁷⁾

김인후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조광조를 비롯한 己卯名賢들은 끝내 복직하지 못했지만, 『소학』과 ‘향약’을 없애라는 명은 철회토록 허락을 받아냈다. 물론 중종 사후,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첫 정사로서 ‘현량과’ 복원과 기묘명현이 복원되었다.⁵⁸⁾ 조정에서는 향약과 서원에서 배출된 전국 사림을 모으기도 하고, 인종이 세자시절 師傅였던 김인후에게 경연의 輔導를 맡기고자 했다. 그러나 김인후는 당시 儒風이 反士林 정서임을 간파하고, 더 이상 출사와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56) 도학자들에게 있어 ‘경세론(經世之學)’은 의리와 명분의 원칙론적 입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왕·관료·수령 등 위정자의 도덕성에 천착한다. 반면, 실학자들은 구체적인 치세의 논리와 효용성에 따라 행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도학자와 실학자의 ‘경세론’은 분명 구별해야 한다. 다만, 도학자들도 의리와 심성 수양 등의 도덕원칙이 사회 전반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상소’ 등의 형태로 ‘경세’에 참여한다.

57) 『국역하서전집』

58) 중종 사후(1544.11) 인종이 즉위하면서 첫 정사로 조광조 등이 외쳤던 賢良科를 복원하고 기묘명현(조광조·김정·기준) 등의 신원이 복원되었다.

3) 김인후의 ‘성리’ 사상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 노수신의 「夙興夜寐箴 注解」에 대한 반론

다카하시 도오루는 이황과 이이 이전의 유학자로 김인후를 소개하는 정도다. 다만, 다카하시는 “하서 김인후가 순결한 지조로 주자학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한때 명성을 얻었다.”라고 적시해 놓았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중종은 기묘사화의 일을 매우 후회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유자를 양성하는 데에 진력하였다고 한다. 인종 사후, 명종은 이를 계승·장려하여 遺逸之士를 우대했는데,⁵⁹⁾ (아마도 인종의 짧은 재임과 문정왕비와의 사건으로 김인후가 배제되지 않았을까?) 이를 기점으로 조선의 名儒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김덕수에게 사사받은 이언적은 주자학을 더욱 비판적 계승자로 거듭났고, 이황은 이언적의 영향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서경덕을 사숙했다. 물론 서경덕은 이언적과 교류했다. 이이 역시 서경덕을 사숙하였고, 이황에 의해 계발되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다. ‘소재 노수신’의 등장인데, 다카하시 도오루는 앞서 언급한 이언적·서경덕·이황·이이 등과 노수신을 별개로 다룬다. 노수신이 유배지에서 독자적 학설을 내놓았는데, 자못 禪學에 가깝기 때문이다.⁶⁰⁾

그런데 그 노수신이 이황·김인후와 서신을 주고받은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노수신은 귀양살이를 하면서 「夙興夜寐箴」⁶¹⁾을 일독하고, 마음속으로 크게 각성하여 자신이 직접 주석을 붙인다. 그리고 그 주석을 이황과 김인후에게 보내 비평을 구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이황과 김인후 모두 노수신의 주석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카하시는 노수신·이황·김인후, 이 세 사람이 주고받은 서신이 소박한 논쟁을 가져왔고, 이는 단조로웠던 조선 유학 사상계에 때아닌 꽃을 피웠다고 평가했다. (필자는 퇴계와 고봉이 나누는 사단칠정 논쟁보다 이 3인의 「숙흥야매잠」에 나타난 ‘심설’ 논쟁이 조선 최초의 학술논쟁으로 본다.)

[陳柏의 夙興夜寐箴] : 일이 이름에 이에 응하면 행위에서 징험한다. 밝은 명이 더욱 빛나니 항상 눈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일에 대해 응함이 이미 끝나면, 나는 응하기 이전과 같다. 마음속은 湛然하니 신묘함에 응하고 사특한 생각을 멈추는구나! 동과 정이 순환하는데 마음만이 이를 살피는구나! 고요할 때는 보존하고 움직일 때는 성찰하여 두 갈래 세 갈래로 하지 말라.⁶²⁾

59) 遺逸之士를 현대적 용어로 굳이 치환하면, 제야에 묻힌 인사 중 학식과 덕망이 높으며 지조와 절개 또한 굳건한 선비로, 주변인들로부터 추앙받는 자를 말한다.

60) 다카하시 도오루는 조선의 철학·사상은 ‘유학’뿐이라는 단조로운 사관을 고수하기 때문에, 노장이나 불가를 언급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제하였다.

61) 「夙興夜寐箴」은 중국 남송 때 陳柏이 『시경 「소아」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수양서다. 진백의 「숙흥야매잠」은 모두 ‘26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노수신은 이를 ‘8장’으로 분류하고, 각 장마다 注解를 붙였다. 노수신이 초본을 완성(1551)한 뒤, 이황과 김인후의 질정을 수용하여 1560년 최종 완성했다. 이후, 1568년 노수신이 충청도 관찰사 재임 때, 선조에게 상소문과 함께 「숙흥야매잠」을 올렸고, 교서관에서 이를 간행되었다.

62) 이 원문은 ‘진백’의 문집이 전하지 않아, 『소재집』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소재집』, 내집, 상편, 草創錄二 : 事至斯應 °則驗于爲 °明命赫然 °常目在之 °事應既已 °我則如故 °方寸湛然 °凝神息慮 °動靜循環 °惟心是監 °靜存動察 °勿貳勿三 °

〔盧守愼의 注解〕: 마음[心]은 살아있지 않으면 막힌다. 그러므로 (사물과) 응접한 뒤 (그 사물·사건이 사라져도) 마음은 간혹 사물과 함께 지나가기도 하고 사물에 속박되기도 하기 때문에, 응하는 것이 비록 마땅할지라도 그 감정이 이미 마음을 이겼으니, 이 마음의 작용이 다시 그 옳음을 잃어 버린다. 그러할진대, 어찌 장래의 사물을 응하는 발판이 되겠는가? 반드시 하나의 사물이 겨우 지나치면 眞體는 이전에 의지하여 그 ‘신비로운 빛[光靈]’을 모으고 그 근심[思念]을 끊어 버리니, 마치 맑고 고요한 마음[明鏡止水]과 같아 조금도 아름답거나[美] 추함[醜]의 흔적이 없으며, 허명하고 정일한 형상만이 있다. 비록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를 엿보지 못하니, 이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존양’이다.⁶³⁾

노수신의 주해를 통해 보면, 그는 진백의 「숙흥야매箴」의 핵심 주제가 ‘마음의 虛明靜一한 본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 움직여서 正邪와 시비선악을 판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은 ‘敬’을 통해 가능한데, ‘허명정일’의 ‘一’이 바로 ‘敬’이라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이황과 김인후는 노수신이 보낸 聯句의 “그 광령을 모으고 그 사념을 끊는다”라는 말이 ‘禪學’이라 단언한다. 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 두 구절은 선학을 말함이니, 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⁶⁴⁾

노수신은 이황과 김인후의 조언을 듣고 이실직고한다.

귀양살이 중에 어떤 노승이 방문하여 이틀을 묵으면서 그가 가지고 다니던 三法語를 주길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어 차례 뒤적여 보고는 잠시 기쁜 마음에 그 내용이 가슴에 남아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붓끝을 비슷하게 나오고 말았으니,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의미)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근자에 禪을 배우는 자도 없으니, (선학의 용어를 도용한들) 무엇이 잘못이고 두렵겠습니까?⁶⁵⁾

그러나 김인후는 노수신의 안일한 사고에 대해서 정중하면서도 비유적 표현으로 일침을 가한다.

세상에 禪을 배우는 자가 없다지만 또한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부터 禪에 흐르는 자가 있을 줄 어찌 압니까? 속담에 일꾼기를 “도적이 없다고 해서 짓지 않는 개를 기르며, 쥐가 없다고 해서 잡지 않는 고양이를 기를 손가?”라 하였으니,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神을 어리고 생각을 쉰다.[凝神息

63) 『소재집』 내집, 상편, ‘숙흥야매잡’: 心之爲物 °不活則滯 °故應接之後 °事物已過 °心或與之俱往 °或爲其所縛 °則所應雖當 °其情已勝 °而此心之用 °復失其正矣 °其何以爲將來酬酢之地哉 °必其一物才過 °眞體依前 °聚定妙用 °放退閑思 °如明鏡止水 °無毫釐查滓之痕 °有虛明靜一之象 °雖鬼神 °有不得窺其際者 °此靜而存養也 °

64) 『하서전집』 권11, 「書」: 聚其光靈 °絕其思念 °伊 ○此兩語 °犯禪學 °請去之 °何如 °退 ○兩句果逼西來 °然遂去之則欠 °改之爲當 °當改云 °

65) 『소재집』 내집, 상편, ‘초창록’, 三子論夙興夜寐箴解往復錄: 昔遇一老衲信宿 °得所齋三法語 °漫看數過 °乍喜之 °遂留在胸中 °不覺出筆下依循 °殊可笑也 °近世學禪者亦無矣 °何懼焉 °然吾輩不可不戒 °

慮]’는 등의 혼해는 명백하고 직절해야 합니다. 주자의 설에 따르면 ‘神을 어리고 생각을 쉰다.[凝神息慮]’는 것은 주자가 말한 敬이니, 마음속의 의지나 생각 [志慮]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통섭하여 본원을 함양하는 방법입니다. 후현의 조어(措語)가 적확하지 못한 듯하니, 이로 인해 선학에 떨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래 문장의 ‘발서(發舒)’ ‘휴양(休養)’ ‘진발(振拔)’ ‘정명(精明)’ 등의 말은 폐단이 없지 않은 듯합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 한 것은 만약 오인한다면 좌망(坐忘)이거나 좌치(坐馳)가 아닐런지요? 또한 주자의 말에 “身心을 수렴하고 잡된 생각을 모두 쓸어 버려 광명이 통철해야만 바야흐로 主宰가 되어 이치를 볼 수 있다.”라 하였으니, 또한 통쾌하지 않습니까?⁶⁶⁾

노수신의 변명에 김인후는 “지금 선학을 배우는 자가 없다고 하여 선학에서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써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훗날 선학을 배우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 굳이 ‘禪’과 혼동하기 쉬운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기를 지향한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필자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인후를 ‘獅子’로 호명하는 이유다. 『논어』에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시기에 근심이 있다.”⁶⁷⁾라는 孔孟儒學의 본지를 학술논쟁 중에도 꼼꼼하게 주장한다.

김인후가 노수신이 보내온 「夙興夜寐箴 注解」에 대한 논평은 두 가지 차원이다. 첫째, 노수신이 단지 법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피력하는 것에 대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미래 선학을 공부하는 무리가 다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하나를 적시하더라도 신중과 조심성을 권고한다는 점이다. 그의 비판 논리의 精髓는 ‘형식논리’가 아닌, ‘내용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 있다.

그는 노수신이 「숙흥야매잠」에 붙인 주석 중,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 논리 비약이 심함을 지적했다. 자고로 『서경집주』를 보면, ‘도심’은 ‘도리를 지키려는 의리’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주자의 설에 의하면 ‘천리를 갖춘 순수 이성(本性)’에 해당한다. 반면에 ‘인심’은 사람의 욕정(욕구나 감정)에 가까운 마음으로, 주자의 설에 따르면 사사로운 형기(氣質之性)에서 생겨난 돌아난 마음이다.⁶⁸⁾ 그러므로 도심은 인간의 본성·순수 이성인 반면, 인심은 인간의 본연지성이 아닌 기질지성에서 우러난 것이다. 따라서 인심은 욕정에서 발동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절도에 맞고, 또 어떤 때는 절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극히 희미하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로 집중하여, 그 中正을 진실로 잡아야 한다.”⁶⁹⁾는 것이 주자학에서 말하는 心論이다.⁷⁰⁾

66) 『하서전집』 권11, 「書」: 世無學禪者 °亦不可不以爲慮 °又安知自今有流於禪者乎 °諺稱 °不可以無盜而畜不吠之犬 °不可以無鼠而畜不捕之貓 °可戒可戒 °凝神息慮此等訓語 °要直截明白 °依朱子之說 °凝神息慮 °卽朱子所謂敬者 °定志慮 °攝精神 °而涵養本原之道也 °後賢措語 °似不能端的 °恐因墮於禪也 °下文發舒休養 °振拔精明等語 °恐不爲無弊 °不作思惟之云 °若誤認則其無乃坐忘 °乃是坐馳者耶 °又朱子之說曰 °收斂身心 °盡掃雜慮 °令其光明洞徹 °方能作主宰 °方能見理 °不亦痛快矣乎 °

67) 『논어』, 「위령공」: 子曰, 人無遠慮, 必有近憂.

68) 필자는 『집주』를 그대로 번역하는 용어보다, 현재의 용어로 치환한다. 이는 김인후의 ‘도학 정신’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하는 ‘유학·전통사상’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을 제언하는 차원이다.

69) 『서경』, 「虞書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70) 주자는 『중용장주집주』에서 “마음의 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이지만, 인심과 도심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혹은 形氣의 사사로운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性命의 올바름에서 근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虛靈)의 知覺 능력이 다르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마음은 사악함으로 빠질 개연성과 가능성에 주목하여, 악을 ‘미연에 막고’ 선을 추구하자는 논리다. 그 ‘미연에 막자’는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수양·공부’이고, 이를 다양한 증거에 따라 실천력을 보이는 학문이 바로 ‘도학’이다.

성리학의 이론에 해박한 김인후는 惟精일 때는 人心의 기미를 살펴서 욕정을 이겨내야 하고, 惟一의 공부 단계에서는 천리의 올바름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도학’의 논리라 여겼다. 그런데 노수신은 惟一의 공부를 ‘고요[靜]’ 속에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는 성리학에서의 ‘靜坐’ 수양·공부를 불가의 ‘坐禪·觀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셈이다.⁷¹⁾

4. 結

1) ‘時宜性’과 실천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知友가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유학에서 『논어』의 首章은 그 무엇보다 상징성이 크다. 공자의 가르침을 ‘인의예지’가 아닌 ‘배움[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그 ‘배움’은 선형적 철리(哲理)나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얻은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집주』에서도 ‘배움[學]’은 ‘먼저 깨달은 자로부터 본받는다’라고 기술했다.

관건은 ‘시습(時習)’이다. 『집주』에 따르면 ‘시습’은 ‘때때로 익힌다’는 ‘반복’이라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고주(古注) 등 다양한 주석에 따라 ‘시습’을 ‘때에 맞게 실행한다’라고 해석했다.⁷²⁾ 조선의 성리학자인 ‘이이’와 실학자인 ‘정약용’도 ‘시습’에 관한 해석이 다르다.

즈크르사드 | 흑흑야 시로 습하면 ㅅ흔 열핍디아니라

이이는 ‘시습’을 ‘때에 맞추어’, ‘시기에 맞게’라는 의미라고 注를 붙였다. 정약용은 집주를 수용하여 ‘때때로’라는 풀이를 고수했지만, ‘학이시습’에 관한 여러 주석을 살펴보면, ‘때(시기)에 맞게’라는 풀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많다.⁷³⁾ 즉, 배우고 실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대정신’의 발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때[시기]에 맞는 이론’을 내세우면 그간의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하는 쪽이 많다. 공자는 늘 사교육을 이끌며, 시대를 앞서나가는 의지를 주장했기에, 주변인들로부터 쉽게 호응받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래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벗[朋]이

71) 불가에서 ‘좌선’이란 ‘밖으로 그 어떤 좋고 나쁜 환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坐’라 하고, ‘안으로 자기 본성을 보아[見性]’ 마음이 부동한 것을 禪·參禪이라 한다.

72) Waley는 ‘시습’을 ‘적절한 때에 배우다’로 해석했고, Ley는 ‘적절한 때에 배운 바를 실행하다’로 해석했다. 한·당대 고수에서는 時習과 有朋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하다. (김용재, 「『論語集解』와 『論語集註』의 註釋 比較를 통해 본 『論語』經文의 理解[1]-「學而」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1호)

73) 김용재, 「『論語』古注를 통해 본 『論語』經文의 해석학적 이해[1], 『동양철학연구』 59, 2009

필요했고, 이들이 불원천리하여 내방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 설사, 공자와 同志의 시의성을 주장함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는 삶을 지향해야만 군자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16세기 조선의 도학은 『집주』에 기반한 ‘주자 성리학’을 근본으로 삼았지만, 경문을 해석하는 것과 삶의 나침반은 별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삶의 나침반은 주관적 세계관이고, 삶의 가치를 어느 쪽에 비교 우위를 두느냐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김인후는 ‘주자의 집주’보다 ‘공자의 언설’에 충실한 선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도학’은 공맹 유학으로의 회귀에 근접한다. 정형화된 ‘이론’일지라도 자신의 도덕 철학을 실천으로 옮기는 쪽에 무게를 둔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맹 유학’ 자체는 ‘主知主義’가 아니다. 『소학』에서 말하는 灑掃應對로부터 學優登仕하여 立身揚名에 이르는 일련의 修己治人을 실천하는 학문이다.

공자가 말했다. “젊은이들아!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집 밖으로 나오면 윗사람에게 공경하며, (자신을) 삼가고(낮추고) 신뢰를 보이며, 널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가까이하며, 이렇게 行하고도 남는 힘이 있거든 그 힘으로 글을 배우라.” 74)

위 경문에서 유의미한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젊은이들[弟子]이 누구냐는 것이다. ‘入則孝 出則悌’에서의 ‘입출’은 전통 가옥 구조상 ‘귀족’이나 ‘위정자’가 거처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즉, 공자가 교육한 대상들은 일반 평민이 아니라, 이미 당시 신분이 높은 집안의 자제들이 공문에 들어와 수학했음의 방증이다. ‘대부(大夫)’ 이상의 집안 자제들에게 훗날 위정자가 되어도 효제충신의 실천이 우선임을 설교한다.

조선의 도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서적은 『소학』이다. 위 『논어』 경문은 효제충신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소학』의 중심 내용과 매우 가깝다. 실천을 강조하는 ‘행유여력, 즉이학문’을 보아도, ‘실천[行]’이 ‘이론학습[學文]’보다 우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 ‘학문’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學問’이 아니라 ‘學文’임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공자가 말한 언설은 모두 효제충신에 해당하는 도덕 실천이다. 따라서 공자는 ‘실천’이 우선이며, 글을 배우는 學文은 이후의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김인후의 도학 정신은 어쩌면 본래의 공맹 유학의 본지를 회복·실천하는 쪽에 철저하였을지 모른다. 이러한 도학의 실천 중심은 『중용』에서도 ‘學文’보다 ‘學問’을 강조하는 경문에서 드러난다.

『중용장구』 20 :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묻고[審問], 신중하게 생각하고[慎思], 명확하게 분별하고[明辨], 돈독하게 행하라[篤行].75)

이때 ‘博學’과 ‘審問’의 약자로 출현하는 것이 ‘學問’이다. 또 ‘慎思’와 ‘明辨’의 약자가 ‘思辨’이다. 훗날 서계 박세당은 조선의 학문이 지나칠 정도로 ‘이론 편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대하며, 공맹 유학으로의 복귀를 소망했다. 그래서 그는 『思辨錄』을 저술했는데, 書名 자

74) 『논어』 : 子曰, "弟子, 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75) 『중용장구』 : 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

체가 중용의 ‘思辨’에서 따온 『思辨錄』임만 보아도, 당시 조선 주자학이 얼마나 (이론)‘지식’ 중심이었던지를 가능케 한다. 그만큼,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중국 성리학과 ‘다름’을 필연적 의무로 여긴 듯하다. 그리고 그 ‘다름’은 주자학과의 ‘우열’이 아닌 ‘다름’이고, 소위 ‘反주지주의’를 내세울 수 있는 ‘실천철학’으로서의 道學이었다.

김인후는 조선 건국이념으로 자리한 성리학을 우리 식에 맞도록 정체성을 찾으려 한 인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인후의 도학 정신은 16세기 조선 유학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본래 성리학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설정에 있다. 인간 ‘존재의 이치(소이연)’과 존재한다면 마땅히 어떤 ‘당위적 규범(소당연)’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주자학은 ‘이기’ 범주로 ‘존재 의미’를, ‘심성’으로 인간의 ‘당위성’을, ‘지행’으로 ‘도덕 실천’을 체계화·이론화하였다. 결국 주자학에서의 실천력은 ‘앎’과 ‘실천’의 관계 설정이 끝나야만 가능하다.

16세기 조선 성리학의 출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인후는 인간 존재의 단서를 이기로 규명해 내기보다, 현실사회를 바라보는 정의와 의리를 第一 가치로 삼았다. 그는 ‘도학적 실천’을 위한 허울 좋은 ‘이론’을 밝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누가 보아도 보편타당한 이치와 인정의 마땅함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것이 곧 ‘시습’이고 ‘실천 유학’ 정신이다.

그래서 김인후는 기묘사화 때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현실의 부당함과 그릇된 처우를 개혁하려는 도덕성이라 여겼다. 그 부당함에 대한 감정이 수용되지 않자, 직접 행동으로 표출하였고, 그것은 관직에 대한 고사와 낙향이다. 이는 기존의 주지주의와 확연히 다른 ‘주정주의’ 혹은 ‘反주지주의’라 말할 수 있다. ‘이성’이나 ‘지성’보다, ‘감성’이나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정주의는 늘 이론 습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자신이 판단한 가치관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인후가 보여준 처사로서의 삶은 ‘사회적 反響’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수기치인을 강조하는 ‘도학’은 공맹유학에서 강조하는 “修身 → 齊家 → () → 治國 → 平天下”의 명제를 실천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어찌 보면, ‘나 자신’으로부터 ‘나라’와 대동사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 → 가정 → 국가 → 세계로 이어지는 점층적 구조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개념은 없다. 그래서 도학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도학자들의 행동은 자기 정당성을 확인받는 절차이며, 정당성이 주변으로 확대됨을 상징한다. 김인후의 삶은 당시 조정으로부터 상처받은 도학 정신과 의리 정신을 회복하려는 방식이었다.

2) 風乎舞雩를 재현하는 의연한 삶

김인후는 유학이 지향하는 內聖外王의 본뜻에 대해서도 남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內聖한 후에 外王하는 것이 아니라, 내성이 곧 외왕과 동격’이라는 관점이다. 수기치인에서 ‘修己’만 제대로 완성하면, 그것이 곧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보았다.⁷⁶⁾ 본성을 회복한 유자가 관료나 위정자의 모습을 갖춰야만 한다는 논리는 형식에 불과했다. 최소한 김인후에게는 말이다. 그는 차라리 의리를 실천하는 處士의 삶을 택하고자

76) 이기동, 「하서 김인후의 삶과 철학」, 『한국사상과 문화』 77집 : 이기동은 김인후가 ‘한유’의 ‘성삼품설’보다 ‘이교’의 ‘復性論’에 더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했으며, 그것이 곧 조선 성리학의 한 축을 일임하고 있는 ‘도학’ 정신이며, 의리 실천의 화신과도 같은 경지였다.

주지하다시피, 처사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철리적·논리적으로 무장한 입장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속세의 부귀영화조차 인생의 뜬구름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로, 증석, 염유, 공서화가 공자를 모시고 앉았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루라도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나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평소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만일 흑시라도 (내가)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어찌하겠느냐?” 자로가 경솔하게 대답하였다. “천승의 나라가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어도 제가 다스린다면 3년에 이르러 백성들을 용기가 있고 또 방향을 알게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빙그레 웃으셨다. “구야! 너의 뜻은 어떠하냐?” 대답하기를, “사방 60~70리, 혹은 50~60리 쯤의 나라를 제가 다스리면, 3년에 이르러 백성들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예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적아, 너의 뜻은 어떠하냐?” 대답하기를 “제가 능숙하다는 말이 아니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의 일과 또는 제후들이 회동할 때에 헌단복을 입고 장보관을 쓰고 조금 돕고자 합니다.” “점아, 너의 뜻은 어떠하냐?” 그는 비파 연주를 드문드문하더니 쟁그렁하고 비파를 놓으며 일어나 대답했다. “세 사람이 품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가 말하길 “무엇이 지장있겠는가? 또한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다.” “늦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갓을 쓴 어른 5~6명과 동자 6~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 땅에서 바람 쐬며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공자께서 ‘아!’하고 감탄하시며 말하기를 “나는 증점을 허여한다.” 세 사람이 나가자, 증석이 뒤에 남았다가 말하였다. “저 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또한 각각 제 뜻을 말했을뿐이다.” “선생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유의 말에 빙긋이 비웃으셨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써 해야 하는데, 그의 말이 겸손하지 않았다. 그래서 빙긋이 웃은 것이다.” “구가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십니까?” “사방 60~70리 또는 50~60리가 나라가 아닌 것을 어디서 보겠느냐?” “적이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십니까?” “종묘의 일과 회동하는 일이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적이 작은 보좌원이 된다면 누가 능히 큰 보좌원이 될 수 있겠느냐?”⁷⁷⁾

위 논어 속 공자와 제자의 문답은 ‘風乎舞雩’라 하여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여과없이 또 과감하게 자신들의 포부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중유’는 불과 3년 만에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豪言한다. ‘염구’는 60~70리나 50~60리 정도의 큰 땅을

77) 『논어』 「선진」: 子路曾皙冉有公西華 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 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子路率爾而對曰: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 由也爲之 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 夫子哂之. “求 爾何如也?” 對曰: “方六七十 如五六十 求也爲之 比及三年 可使足民 如其禮樂 以俟君子.” “赤 爾何如?” 對曰: “非曰能之 願學焉. 宗廟之事 如會同 端章甫 願爲小相焉.” “點 爾何如?” 鼓瑟希 鏗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三子者出 曾皙後 曾皙 曰: “夫三子者之言 何如?” 子曰: “亦各言其志也已矣.” 曰: “夫子何哂由也?” 曰: “爲國以禮 其言不讓, 是哂之.” “唯求則非邦也與?” “安見方六七十 如五六十而非邦也者.” “唯赤則非邦也與?” “宗廟會同 非諸侯而何? 赤也爲之小 孰能爲之大.”

3년 안에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 ‘공서적’은 종묘의 제사나 제후의 회동 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말한다. 그러나 증삼의 아버지인 증석은 몇몇 젊은이와 동자들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기우제를 지내던 舞雩에 올라 시를 읊으며 바람이나 쇠고 싶다고 말한다. 정치적 야망과 외교적 꿈을 말한 자로·염유·공서화에 비해 증석은 일상의 소소함을 포부로 치환시켰다. 그리고 공자는 증석의 그러한 삶의 지향을 감탄과 함께 許與하고 있다.⁷⁸⁾

실제, 김인후의 삶은 공자가 추구하는 것과 비근했다. 만일 공자가 조선의 16세기에 재림한다면, 그래서 김인후의 삶을 평가한다면, 혹 증석의 삶을 빗대어 過讚하지 않았을까? 송시열이 쓴 묘비명을 보면, 실제 김인후 역시 공자와 증석의 삶을 살아간 것으로 보인다.

한가한 날에는 으레 冠童(어른과 아이)을 데리고 야외에 나가 소요하면서 제생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배우는 이가 수시로 沂水와 庭草의 기상을 체험한 뒤에야 능히 조금의 진취를 보게 된다.”라 하였으므로, 후학 중에 선생의 인접을 받은 자는 마치 춘풍에 훈습되고 경운을 목도하는 듯하였다.⁷⁹⁾

『논어』 속 공자와 증석이 바라던 삶은 최소한 속세의 야욕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의연한 장부의 기개를 바라던 김인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儒者라면 ‘邦有道’에나 ‘邦無道’일 때나 늘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그러나 ‘방유도’보다 ‘방무도’일 때의 처세가 더 어려운 법이다.

나라에 도가 없어 혼탁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맺은 옛정에 못 이겨 콩고물이나 얻어먹을 생각으로 조정에 잔류하는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역겹다. 더욱이 백성들에게는 큰 소리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수치일 뿐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위태로울 정도로 고결하게 행동하고, 겹손과 공손을 갖춰 낮은 목소리로 임하라”⁸⁰⁾ 하지 않았던가? 여기서 ‘겹손과 공손을 갖춘 목소리[言孫]’란 아첨과 아부가 아니라 완곡하게 표현하라는 말이다.

도가 있으면 그의 말이 쓰이게 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침묵하여 몸을 거두어야 한다.⁸¹⁾

태평한 시국에 자신을 드러내어 녹봉을 받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혼탁한 시기에 뒤로 물러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유도’보다 ‘방무도’ 때의 처신이 더 어려운 법이다.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롭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었다. 그 지혜는 (누구나)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아무나) 따를

78) 최영갑·김용재·진성수, 『四字論語』, 풀빛, 2020

79) 『송자대전』 권154, 신도비명 : 暇日必携冠童 °逍遙徜徉 °顧謂諸生曰 °學者時時體認沂水庭翠氣象 °然後方能少進爾 °後學之被其引接者 °如襲春風而觀慶雲也 °

80) 『논어』, 「헌문」: 子曰 “邦有道, 危言危行, 邦無道, 危行言孫.”

81) 『중용장구』 27 : 國有道, 其言足以興; 國無道, 其默足以容

수 없다.⁸²⁾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액면 그대로 바보스러움이 아니다. 더욱이 나라가 혼란할 때 어리석은 척하면서 관직을 떠나 자신의 몸만 보존하려는 保身은 더더욱 아니다.⁸³⁾ 필자는 김인후의 처신이야말로 ‘나라가 평안할 때 슬기롭게 처세하는 것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나라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혼란하게 되자 목숨을 내놓으며 할 말을 하고 낙향하는 모습이야말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열자』에 출현하는 ‘愚公移山’에서의 ‘우공’처럼, 이 ‘어리석음’은 진정 바보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오히려 약삭빠른 ‘智叟’보다 한 차원 높은 군자의 모습이다.

82) 『논어』 「공야장」

83) 물론, 정약용은 위 경문을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권력욕에 휘둘릴 때 군이 권력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낮춰 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하의 모습’이라 주석했다.

하서 김인후의 교육활동과 門人들

안동교(한국학호남진흥원)

• 목차 •

1. 머리말
2. 학문의 淵源
3. 교육활동과 공간
4. 門人교육과 門人錄
5. 맺음말

1. 머리말

유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에 ‘立道’와 ‘垂教’라는 말이 있다.¹⁾ 여기에서 ‘입도’는 聖人이 인간이 행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道]를 찾아서 세운다는 뜻이고, ‘수교’는 그 진리를 후학에게 교훈으로 제시한다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유학자들은 다양한 경전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참된 가치, 내면의 바탕, 행위의 규범 등을 이해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학문의 진정한 목적이라 여겼고, 성인이 제시한 진리를 앞서 깨달은 사람을 스승으로 추앙하였다. 따라서 스승을 교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스승은 진리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후학에게 가르치는[教] 역할을 담당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學] 진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孔孟이 전수한 仁義의 진리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불변의 지식체계와 행위규범으로 수용되어 유가학파를 배태시켰고, 程朱는 강렬한 道統 의식을 바탕으로 삼아 이를 철학적,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여 정주학파를 태동시켰다. 조선조 유학은 정주의 성리학을 토대로 치밀한 개념적 인식과 엄격한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중기에 배출된 ‘知的 巨人’들을 중심으로 학문의 활동과 내용에서 일정한 연관성 혹은 공통성을 지닌 집단을 양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趙光祖(1482~1519)가 道學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린 이후, 경기도 개성에서는 徐敬德(1489~1546)이, 경기도 파주에서는 成渾(1535~1598)이, 황해도 해주에서는 李珥(1536~1584)가, 경상도 동쪽에서는 李彦迪(1491~1553)이, 경상도 북쪽에서는 李滉(1501~1570)이, 경상도 남쪽에서는 曹植(1501~1572)이, 전라도 북쪽에서는 李恒(1499~1576)이, 전라도 남쪽에서는 金麟厚(1510~1560)와 奇大升(1527~1572)이 당시 사상계를 분점하고 독특한 학풍을 내세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²⁾ 이들이 끼친 학문적 교화의 범위는 후학과

1) 『漢書』 「董仲舒傳」에 “聖人法天而立道”라는 말이 보이고(『中文大辭典』 6권 1788쪽 참고), 牛僧孺, 「辨私論」에는 “宣父之作春秋刪詩書 是公其身於垂教也”라는 표현이 보인다.(『中文大辭典』 2권 1178쪽 참고)

후손들에 의해 『師友門人錄』·『門人錄』·『及門諸賢錄』·『淵源錄』 등으로 정리되어 학풍과 학맥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선조 중기에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난 김인후도 역시 ‘지적 거인’ 중의 한 사람으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 학문 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수의 문인들을 양성하였다. 김인후는 이황에겐 도학으로 상종할 만한 벗이었고, 이이에겐 清水芙蓉의 자질로 출처의 의리를 높이 세웠다는 평을 들었으며, 송시열에겐 도학·절의·문장을 겸비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만큼 김인후는 당시 사상계의 중추적 인물이었으나, 아직까지 교사로서의 교육활동과 공간이 깊이 있게 탐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통시대에 그가 배출한 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 곧 『문인록』조차도 상세하게 정리되지 못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먼저 김인후의 사승관계와 교육활동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뒤 다양한 자료를 망라하여 김인후의 문인들과 그들이 남긴 문헌들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러한 탐구 과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앞으로 김인후의 교육사상이 담고 있는 관념·목적·내용·방법 등을 좀 더 천착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뚜렷하지 않은 김인후의 교육 특성과 학파의 성격 등도 점차 선명해질 것이다. 더불어 김인후의 『문인록』을 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학문의 淵源

김인후는 약관 이전에 누구를 만나 정신적 영향을 받았을까. 그리고 어떤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전수 받았을까. 이를 알려주는 간략한 정보가 그의 문집 속의 「연보」와 「敍述」에 실려 있다.

김인후는 5세부터 부친 金齡에게 『천자문』을 가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8세에는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온 조광조의 숙부 趙元紀(1457~1533)를 만나 장편의 詩賦를 지어 ‘長城神童 天下文章’이라는 평을 들었고, 9세에는 조광조의 문인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기묘명현 奇遵(1492~1521)을 만나 “우리 세자의 신하가 되겠다.”는 찬탄과 함께 內賜筆 한 자루를 선물로 받았다. 또 三印臺 상소의 주역인 朴祥(1474~1530)은 김인후를 보고 나서 “奇童치고 끝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오직 이 사람은 끝을 잘 마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김인후는 이들에게서 단순히 놀라운 찬탄과 예언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도학에 뿌리를 두고 至治主義³⁾ 이념을 강하게 구현하려고 했던 지식인들의 학풍도 느꼈을 것으로 본다.

2) 당시 호남 유학계의 판도에 대한 尹拯의 견해를 빌리면 다음과 같다. “湖南昔時 上道有李一齋 下道有金河西奇 高峯 大爲一時之盛矣 其後百餘年來 寥寥久矣”(『明齋遺稿』 권4, 「次李君源淳公達澳書社唱和韻」, 103d쪽)

3) ‘至治’라는 용어는 『서경』 『君陳』에 나오는 말로, 周公의 교훈 속에 들어있다. “내가 들어보니 ‘지극한 정치는 향기로워[至治馨香] 神明에 감동되니, 黍稷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밝은 덕이 향기롭다[明德惟馨]’고 하였다.” ‘지치주의’는 도학사상을 정치현실에서 정밀하게 시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이념으로 볼 수 있다.

10세(1519년)에는 당시 기묘사화로 인해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 온 조광조의 동문 金安國(1478~1543)을 찾아가 『小學』을 배우기를 청해 강학과 토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안국은 찾아온 김인후를 한번 보고는 송나라 때 畢士安이 어린 王禹偁을 少友라고 불렀던 고사처럼 어린 김인후를 소우라고 부르며 격려하였다.⁴⁾ 주자의 문인 劉清之가 엮은 『소학』은 조선 초부터 權近(1352~1409)이 인간의 윤리와 사회의 규범에 절실한 책이니 京外의 교수관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이 책을 먼저 읽고 난 뒤에 다른 책을 읽도록 해야 한다⁵⁾고 강조한 바 있고, 조광조와 김안국의 스승인 金宏弼(1454~1504)도 이 책을 수기철학의 교범으로 여겨 제자들에게 수시로 강론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김안국 문하에서 이 『소학』공부를 통해 김인후는 학문의 방향과 몸가짐, 마음가짐의 요체를 전수 받아 수기철학의 근기를 확고히 다졌다. 34세 되던 해에 김안국이 세상을 떠나자 김인후는 자신을 이끌어준 은혜를 기려 상복을 입고 만사를 짓고 기일을 기억하였다.⁶⁾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필암서원지』에서는 김인후의 학문 연원을 鄭夢周(1337~1392) → 吉再(1353~1419) → 金叔滋(1389~1456) → 金宗直(1431~1492) → 金宏弼(1454~1504) → 金安國(1478~1543) → 金麟厚로 도표화했다.⁷⁾ 후학과 후손들이 김인후의 학문연원을 김안국과 연결시켜 도통을 체계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스승 김안국만 존경했을 뿐 아니라 김안국의 문인들 곧 자신과 동문이 되는 벗들과도 친밀하게 사귀었다. 현재 『하서집』에는 김안국의 문인인 吳祥·柳希春·鄭之雲·金禧年 등과 교유한 시가 다수 실려 있다.

이후 김인후는 18세(1527년)에 화순 동복으로 崔山斗(1483~1536)를 찾아가 수학하였다. 김굉필을 私淑한 최산두는 당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장기간 유배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김인후는 師友의 補益이 절실하여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 屈原의 詞賦를 익혔다. 굴원은 학식이 뛰어나 초나라 懷王 시절에 左徒의 중책을 맡아 내정·외교에서 활약하였으나 법령 입안 때에 궁중의 정적들과 충돌하여 중상모략으로 국왕 곁에서 멀어진 뒤에 자신의 울분을 「漁父辭」와 「懷沙賦」 등으로 남겼던 인물이다. 아마도 김인후는 굴원과 비슷한 처지였던 최산두에게 굴원의 사부를 익히면서 문장뿐 아니라 혼돈의 정국에서 지식인이 취해야 할 올바른 출처관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산두에게 올린 제문에서 “臯, 夔의 사업으로 자처하니 경륜하는 뜻이 멀고 컸으며 …… 서로 만나 기탄없이 천고의 옛 일을 얘기하느라 쌓아놓은 책을 펼치고 두 세 명의 군자들이 서로 함께 추종했다.”⁸⁾고 말한 것처럼, 김인후는 최산두가 지녔던 경륜과 포부에서 많은 시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스승 최산두만 존경했을 뿐 아니라 최산두의 문인들과도 친밀하게 사귀었다. 현재 『하서집』에는 최산두의 문인인

4) 『河西集』 권11, 「與友人書」, 221d쪽.
 5) 『陽村集』 권31, 「論文科書」, 280b쪽.
 6) 『河西集』 부록, 「家狀」과 「行狀」 참고.
 7) 『筆巖書院誌』, 「淵源圖」 참고.
 8) 『河西集』 권12, 「祭崔新齋文」, 245b쪽

柳希春·尹士栗·崔延禧 등과 교유한 시가 다수 실려 있다.

김인후의 어렸을 적(17세 무렵으로 추정) 스승으로 宋純(1493~1582)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인후는 「贈宋伯深海寬」⁹⁾이라는 시에서 “옛날 선생 문하에서 배울 때(昔學先生門) / 그대는 총각이었지.(看君時總角)”라고 하여 한 때 자신이 송순 문하에서 수학했음을 밝혔다. 또 문인 梁子澂은 김인후의 「가장」에서 “新平 宋純 선생도 젊었을 때 학업을 전수한 스승이라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재전 문인 吳希吉도 “하서 선생은 처음에 신평 송순 선생에게 배웠다.”¹⁰⁾고 증언한 바 있다. 송순은 김인후의 恩榮宴에 참석하여 전답과 노비의 문권에 입증을 해주었고, 김인후의 문집을 판각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소채원·식영정·면양정 등에서 시를 수창한 당대 최고의 詩歌 문학가였다. 김인후는 송순을 위해 「俛仰亭三十詠」을 비롯하여 면양정과 관련된 다수의 시를 지었고, 송순의 문인인 林亨秀(1514~1547)와도 막역한 벗이 되었다. 송순에게서 김인후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주자학의 이론과 방법 등을 배웠다기보다는 주로 경전이나 詩賦 등을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김인후의 학문 연원은 고려 말 정몽주에서 김안국으로 전승된 학맥을 이은 셈인데, 이외에 최산두와 송순의 학문도 받아들인 다원적이고 중층적 학맥 구조를 보인다. 다음은 김인후까지의 학맥도를 그려본 것이다.



3. 교육활동과 공간

「연보」에 따르면, 김인후의 삶의 여정은 크게 네 시기로 나뉜다. 태어나서 18세(1527년)까지는 향리에서 세 스승을 좇아 수학하던 시기이고, 30세(1539년)까지는 경향을 오가며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이며, 31세에 대과에 급제하여 37세(1546년) 여름에 옥과현감을 사퇴하기까지는 내외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는 한편 강학을 부분적으로 하던 시기이고, 사직 이후 타계(1560년)하기까지는 향촌에 은둔하면서 강학과 문인양성에 전념하던 시기이다.

김인후가 교육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을 옥과현감 재임시절로 보아도 좋을 것

9) 시 제목에서 宋海寬은 곧 송순의 말이다.

10) 『韜庵集』 권2, 「河西金先生遺事略」, 13쪽.

같다. 31세에 대과에 급제하기까지는 강학할 여가가 없었을 것이고, 관직에 나아간 이후 옥과현감으로 내려오기까지 거처한 한양 동대문 밖 ‘平泉莊’에서는 강학했다는 흔적을 거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천장 시절에는 湖堂에서 독서하기도 하고 세자시강원 설서, 홍문관 부수찬, 경연청 검토관으로 세자와 증종을 보필하면서 기묘명현의 伸冤을 요청하는 소장을 올리는 일에 몰두했을 것이다.

김인후는 그의 나이 34세(1543년) 12월에 乞養하여 옥과현감으로 내려왔다. 이해 봄에 스승 김안국이 세상을 떠나고 기묘명현의 신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올려 조정의 기풍을 쇄신코자 노력했으나, 척신들의 알력이 심화되면서 시국이 요동칠 기미를 미리 간파한 때문이다. 시국에 상심하여 불안한 시절을 보내던 차에 또 인종의 승하소식까지 겹쳐 心疾이 발작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질 지경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동문 柳希春(1513~1577)이 보여준 주자의 『孝經刊誤』를 필사하여 발문을 붙이기도 하고, 배우려고 찾아든 학도들에게 강학을 해주기도 하였다. 당시 옥과에 살았던 許紹와 許繼는 이때 문하에 들었던 문인들인데 훗날 김인후의 詠歸書院(옥과 소재)에 배향되었고, 남원부에 陞補試官으로 참여했다가 뛰어난 詩才를 인정해 자신의 사위로 삼은 趙希文도 이 무렵 입문하였다.

김인후는 옥과현감을 사직한 이후 성균관 전적, 공조정랑 등 명종이 내린 관직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39세(1548년) 봄에 홀연히 순창 鮎巖村¹¹⁾으로 들어가 草堂을 세워 ‘訓蒙齋’란 편액을 걸고 본격적으로 강학활동을 전개하였다. 처가향¹²⁾인 순창으로 가솔들을 데리고 이주해 점암촌 大角山 아래 메기바위 위에 살림집을 마련했으며, 松蘖洞 栢芳山 아래 靈江의 大學巖 위에 서재 훈몽재를 짓고 인종의 승하와 외척들에 의해 정치가 농단되는 현실의 시름을 달래면서 후학양성에 주력한 것이다.¹³⁾ 훈몽재에서 3년 남짓 강학했으나, 사후에 이 講學堂은 약 400년의 역사 속에서 영고성쇠를 거듭하다가 한국전쟁 때에 소실되었다.¹⁴⁾ 훈몽재의 오랜 역사를 증언해주는 주요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岑夫子歌」(金麟厚, 『河西全集』 권4)
- 「魚巖雜詠 20首」(金麟厚, 『河西全集』 권6)
- 「魚巖雜詠 8首」(金麟厚, 『河西全集』 권7)

11) 순창읍에서 북쪽으로 50리쯤에 있는데, 현재는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일대이다. 당시 점암촌은 鮎巖·魚巖·松蘖洞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魚巖書院遺墟碑가 세워진 어암 마을에서 위쪽으로 1리쯤에 점암 마을이 있고, 어암에서 남쪽으로 2리쯤에 송벽동이 있다.

12) 김인후는 순창 출신 尹任衡의 딸과 혼인하였다. 윤임형은 중종 20년(1625) 진사시에 급제하여 진안현감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순창에서 士族으로 행세하였다. 최영성, 「하서 김인후의 순창에서의 강학 활동」(『유교사상문화연구』 제69집, 2017), 16쪽.

13) 이동희, 「전북 순창의 훈몽재와 하서 김인후」, 146쪽.

14) 그 뒤 훈몽재 복원사업은 쌍치면 둔전리 45~1번지 일대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훈몽재 터 발굴조사를 벌인 후 5년여의 공사 끝에 2009년에 준공을 보았다. 훈몽재와 자연당·양정관·삼연정 등 목조건물이 전통양식에 따라 건립되었다.

- 「戊申春 寓居鮎巖 移臘梅一根於庭隅 ……」(金麟厚, 『河西全集』 권8)
- 「敘述 先生嘗寓居玉川之鮎巖村 子澂請受 ……」(金麟厚, 『河西全集附錄』 권2)
- 「年譜 二十七年戊申先生三十九歲 寓居淳昌 ……」(金麟厚, 『河西全集附錄』 권3)
- 「崎翁所錄 淳昌郡鮎巖 有大學巖 ……」(鄭澈, 『松江別集』 권7)
- 「魚巖幽居 4首」(金時瑞, 『自然堂遺稿』 권1)
- 「淳昌鮎巖村 卽河西先生之武夷也 ……」(金壽恒, 『文谷集』 권4)
- 「訪大學巖」(閔鎮遠, 『聿修齋世蹟』 上에 수록)
- 「訓蒙齋重修序」(1830년, 金章煥, 『聿修齋世蹟』 上에 수록)
- 「訓蒙齋記」(1840년, 洪直弼, 『聿修齋世蹟』 上에 수록)
- 「訓蒙齋重修契序」(1846년, 宋達洙, 『守宗齋集』 권9)
- 「訓蒙齋重修跋」(柳東煥, 『聿修齋世蹟』 上에 수록)
- 「訓蒙齋記」(金正洙, 『聿修齋世蹟』 上에 수록)
- 「訓蒙齋講案序」(1904년, 田愚, 『良齋文集』 권16)
- 「訓蒙齋講會韻」(1905년 가을, 田愚, 『聿修齋世蹟』 上에 수록)
- 「訓蒙齋重修上梁文」(金載石, 『聿修齋世蹟』 上에 수록)

이상의 자료들을 토대로 훈몽재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김인후가 시국에 상심하여 은거지로 삼은 순창 점암촌은 그의 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산이 깊고 땅이 후미져 그윽한 운치가 많은 곳[山深地僻多幽致]¹⁵⁾이었고, 대각산·백방산·추월산과 錦水·靈江이 산천을 이룬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고 큰 내가 가로질러 흐르는 곳[四山環拱 大川橫帶]¹⁶⁾이었다. 김인후는 가솔을 데리고 대각산 아래 점암촌으로 들어와 살림집 思齋를 마련한 뒤에 송벽동 백방산 아래 영강 위에다 터를 잡아 훈몽재를 지었다. 이 훈몽재¹⁷⁾는 한적한 곳에 세워진 김인후의 서재요 강학당인데, ‘어리석어 사리에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 인도한다.[訓蒙土]¹⁸⁾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김인후가 난세를 피하고 병든 몸을 휴양하기 위해 寓居한 점암촌, 幽靜한 산천과 조그만 草堂을 갖춘 이 점암촌의

15) 『河西集』 권6, 「魚巖雜詠 20首」, 119a쪽.

16) 『守宗齋集』 권9, 「訓蒙齋重修契序」, 107d쪽.

17) 김인후의 저술 속에서 훈몽재라는 명칭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대에 교류했던 벗이나 문인들의 저술에서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점이다. 그의 5세손으로 훈몽재를 증긴한 金時瑞(1652~1707)의 문집 『自然堂遺稿』에도 이 명칭은 보이지 않다가 19세기 초, 중반에 훈몽재를 재차 증긴할 무렵에야 序·記·跋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서재의 명칭은 후대에 명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 ‘훈몽’이라는 齋號는 아마도 『소학』 「明倫」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힌트를 얻었으리라. “맹자가 말하기를, ‘庠·序·學·校를 설치하여 가르치는 것은 모두 人倫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하였으니, 聖人의 經을 상고하고 賢人의 傳을 증명하여, 이 篇을 지어서 어린 선비를 가르친다.[孟子曰 設爲庠序學校以教之 皆所以明人倫也 稽聖經 訂賢傳 述此篇以訓蒙土]”

풍광을 두고 후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서선생의 武夷’(김수항), ‘선생의 武夷’(홍직필), ‘호남의 武夷’(송달수)라 불렀다. 주자가 武夷棹歌를 남길 만큼 산수가 아름다웠던 중국 북건성의 武夷山에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훈몽재는 자연스레 무이산의 寒泉精舍에 비유되는 셈이다.

여하튼 김인후는 훈몽재에서 찾아온 친구 鄭之雲(1509~1561)과 天命圖를 토론하였으며, 그의 뛰어난 문인 梁子澂·趙希文·鄭澈·卞成溫·奇孝諫·李至男 등도 이곳에서 수학했는데, 양자징은 『宋史』를, 정철은 『大學』을, 이지남은 굴원의 『楚辭』를 배웠다. 그러나 훈몽재의 강학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¹⁹⁾ 부친 참봉공(金齡)의 갑작스런 죽음과 간곡한 유언 때문에 김인후는 41세(1550)에 순창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인 장성 麥洞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인후는 맥동의 外軒(바깥사랑채)인 ‘百花亭’에서 양산보의 「孝賦」를 차운하고, 서경덕의 「讀周易詩」를 차운하여 돈오적 심학을 경계하고, 「周易觀象圖」와 「西銘事天圖」를 짓고, 이항의 理氣一物說을 비정하고, 노수신의 「夙興夜寐箴註解」를 강론하여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성리학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몰려드는 문인들을 위해 諄諄한 교육과 인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0년 남짓한 세월 동안에 그의 강학소와 가까운 장성·광주·나주·고창·부안 지역의 奇孝諫·李恪·李彦讓·金齊顏·金啓와 같은 문인들이 대거 문하를 찾았을 것으로 본다.

4. 門人교육과 門人錄

현존하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김인후는 문인들을 교육하면서 일정한 학칙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당의 규약으로 내세우는 ‘學規’ 또는 ‘學則’, 강회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講案’ 또는 ‘講錄’ 등을 남기 않아 그가 어떤 학문 방침을 세워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훈몽재의 학규와 강안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이이가 「隱屏學規」를, 성혼이 「書室儀」를 내걸고 교육활동을 전개한 것과는 다르다. 김인후는 문인을 양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지니고 강학을 시작했다기보다는 배우기 위해 멀리서 자신의 은거지를 찾아온 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것이 隱者의 삶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19) 이 훈몽재는 김인후 사후에 화재(임진왜란으로 추정)로 소실되어 잡초에 묻혔다. 그 후 5세손 金時瑞에 의해 17세기 말에 같은 자리에 중건되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金壽恒·宋疇錫·閔鎮遠·李健命·朴光後·趙相愚·金錫汝 등 당대의 명사들이 방문하거나 시를 지어 김인후의 浴沂와 庭草의 뜻을 느끼고자 하였다. 김시서가 증정한 훈몽재도 마을에서 외진 곳에 있어 관리의 어려움으로 퇴락하였고, 이를 걱정한 후손들이 19세기 초, 중반에 점암으로 옮겼다가 다시 어암서원이 건립될 때에 서원 곁으로 이건하였는데, 이때 작성한 「訓蒙齋重修稷案條約節目」과 「參同錄」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학문의 방향이나 차례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옥과현감 시절에, 중국의 학술이 陸象山과 王陽明을 숭상하는 쪽으로 흘러 주자를 참으로 아는 자가 적다는 소식을 듣고, “천지 가운데에 두 사람 있으니(天地中間有二人) / 공자가 원기라면 주자는 진리이지(仲尼元氣紫陽眞) / 마음 가라앉혀 딴 길 가지 말고(潛心勿向他岐惑) / 늙어 병든 이 한 몸 위로해 주게나.(慰此摧頹一病身)”라는 시를 지어 문인들에게 보임으로써, 학문의 표준을 孔朱의 成法에 둘 것을 요구하였다. 또 훈몽재 시절에는 「大學講義跋」을 지어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경전의 正文에 나아가 한 글자 한 글자씩 나가고 한 글귀 한 글귀씩 나가기를 節마다 章마다 하여 익숙하게 읽고 자세히 맛보아야 한다. 아울러 『大學章句』·『大學或問』·『大學講義』로 서로 참고하고 실상을 상고하며 매우 노력함으로써 융회관통하여 다 풀리지 못한 것을 궁구할 수 있다면, 이른바 『대학』의 도가 글에 있지 않고 내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고 말하여, 주자의 『대학』 3부작을 통해 나와 『대학』의 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優遊涵泳하고 體認하고 融會貫通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인후의 학문은 도학을 바탕으로 삼아 사서오경·諸子·史策으로부터 천문·지리·백가·衆技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었으나,²⁰⁾ 그가 가장 정력을 쏟아 공부한 경전은 바로 『대학』이었다. 그는 『대학』을 읽고 나서 『대학』이 『소학』과 더불어 학문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초학으로서 덕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라 생각하여 訓解를 정독하고 『대학혹문』을 참고하며 공부해갔다. 그가 평생을 통해 『대학』에 가장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대학』에 入德의 門으로 수양에서 경세에 이르기까지 體用을 갖추고 일관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²¹⁾ 그는 또 공부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下學上達하는 방법을 엄격히 지켰다. “공부는 계단 밟듯 선후가 있으니(次第工夫有後先) / 공문에서 무얼 먼저 전할 지 말했었지(孔門曾說孰先傳) / 참된 앎은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아(眞知不外常行地) / 인간사 배워 위로 천명에 이른다네.(下學無非上達天)” 이처럼 그는 『소학』을 읽고 난 후에 『대학』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자신의 아들에게도 10년 정도 『소학』을 읽히고 나서 다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그만큼 『소학』을 修己의 학문적 기초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학』과 『대학』이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한 김인후의 발언은 곧 모든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간직해서 마음에 내재된 인간의 善性을 자기와 타자에게 실현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그는 학문의 목표를 좀 더 뚜렷이 다음과 같은 시로 제시해 준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所以貴吾人) / 다른 곳에 있지 않다네(不在於他途) / 자기를 이루고 타자를 이루기 위해(成己與成物) / 이 공부를 서로 병행하나니(工夫自相須) /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서(卓然立兩間) / 만물의 생성 돕는 게 참 좋은

20) 『河西集』 부록 권3, 「年譜」, 307d쪽.

21) 금장태, 「하서 김인후의 수양론」, 17쪽.

생각이지.(參贊眞良圖)”²²⁾ 이처럼 김인후는 자신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은 문인들에게 자기완성과 타자완성이라는 학문 목표, 교육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성취해 나가도록 교육하였다.

김인후 문하에서 교육받은 문인들은 누구이고 몇 명이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를 담은 『師友門人錄』이나 『門人錄』이 『하서집』에 실려 있을까. 『사우문인록』은 학문적 동류의식을 반영하여 스승·벗·제자들을 모두 수록한 것이고, 『문인록』은 스승의 문하에서 수학한 제자들을 수록한 것이다. 여하튼 현재 『하서집』에는 『사우문인록』이나 『문인록』이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김인후의 문인들에 대한 정보를 일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51세에 타계한 김인후는 동시대에 기대승과 이이보다는 조금 더 살았으나 이황과 조식보다는 생애가 훨씬 짧았다. 그러나 생애가 짧았다고 해서 교육한 문인이 드물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김인후는 짧은 생애에도 옥과현감 시절, 훈몽제 시절, 백화정 시절을 거치면서 약 17년 동안 학문생활과 교육활동을 등한히 한 적이 없었다. 김인후의 문인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과연 누구이며 몇 명이나 될까. 김인후의 문인임을 알려주는 기존의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① 『河西集』 속의 문인들 : 卞成溫, 奇孝諫, 趙希文, 鄭澈, 梁子澂, 南彥紀, 盧適, 申覺, 徐台壽, 徐浩, 李至男, 吳希吉. 후손과 문인·후학들이 김인후의 문집을 몇 차례 편찬, 간행하면서 특정 인물 앞에 ‘門人’이라는 글자를 붙인 경우가 12명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오희길(1556~1625)은 나이로 보아 김인후 문하에서 직접 수학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오히려 기효간의 문인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② 朴世采(1631~1695)의 『東儒師友錄』 : 卞成溫, 奇孝諫, 鄭澈, 梁子澂, 趙希文, 南彥紀, 盧適, 申覺, 尹祁(초명은 箕), 徐台壽, 安璿, 金從虎. 이 책은 1682년에 박세채가 신라에서 조선 선조까지 유학자들의 스승과 벗의 관계를 수록한 연원록인데, 김인후를 김안국의 연원으로 분류하고 김인후의 문인 12명의 遺事와 詩를 뽑아 등재하였다. 이 기록이 가장 이른 시기에 김인후의 문인들을 집단적으로 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宋近洙(1818~1903)의 「東國文獻門生篇」 : 卞成溫, 奇孝諫, 趙希文, 鄭澈, 吳健, 梁子澂, 南彥紀, 盧適, 尹祁(箕), 申覺, 徐台壽, 金從虎, 安璿, 金齊顏, 梁山海. 김인후를 김안국의 연원으로 분류하고 15명의 김인후 문인을 등재하였다. 『동유사우록』의 문인 명단을 참고하면서 보충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吳健(1521~1574)을 김인후의 문인으로 분류한 것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오건은 曹植의 수제자로 李滉의 문하에서도 수학한 인물이며, 김인후의 문집과 오건의 문집에서도 사제관계를 입증할 만한

22) 『河西集』 권2, 「題敬岑上人卷端」, 31a쪽.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④ 柳錫泰(?~?)의 『朝鮮簪獻寶鑑』(1914년 작) : 卞成溫, 奇孝諫, 趙希文, 鄭澈, 吳健, 梁子澂, 南彦紀, 盧適, 尹祁(箕), 申覺, 徐台壽, 金從虎, 安璿, 金齊顏, 梁山海, 朴思愚. 송근수의 「동국문헌문생편」에 등재된 15명에다 朴士愚 1명을 더하여 16명을 등재하였다. 여기에도 오건의 이름이 등장한다.

⑤ 姜敷錫(?~?)의 『典故大方』(1925년 작) : 卞成溫, 奇孝諫, 趙希文, 鄭澈, 吳健, 梁子澂, 南彦紀, 盧適, 尹祁(箕), 申覺, 徐台壽, 金從虎, 安璿, 金齊顏, 梁山海. 송근수의 「동국문헌문생편」에 등재된 15명을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김인후의 문인이 확실한 李至男을 李仲虎(西峯 연원) 문인으로만 등재한 것은 매우 의아하다.

⑥ 金佶中(1882~1949)의 「門生」편(1936년경 작) : 鄭澈, 趙希文, 梁子澂, 卞成溫, 奇孝諫, 李至男, 盧適, 申覺, 趙希尹, 梁子淳, 吳希吉, 南彦紀, 徐台壽, 柳景濂, 許繼, 金啓, 卞成振, 金齊顏, 宋庭篁, 許紹, 奇大升, 朴淳, 金千鎰, 金齊閔, 金萬鎰, 安璿, 尹箕(祁), 白光弘, 金景愚, 柳沿漑, 安瑑, 徐浩, 吳大朴, 梁山海, 吳彦彪, 白光勳, 金鳳禎, 金崇希, 金福億, 金慶億, 金景壽, 金麟渾, 金成吉, 金宗振, 金大鳴, 金從龍, 金從虎. 전라도 고창에서 거주한 김인후의 후손 김길중이 작성한 것으로, 주로 『하서집』의 시를 분석하여 김인후의 문인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을 뽑고, 나아가 김인후에게 배웠음직한 친척들을 망라하여 47명을 등재하였다. 이 문생록은 김길중이 편찬한 『河西先生言行錄』 속 「河西先生師友錄」(未定本)에 들어 있는데, 이 글은 師門·從遊·朋友·門生·朋友門生 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명 아래에 자, 호, 과거시험, 관직, 시호, 본관을 적어 간명한 문인록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未定本’이라고 표명한 것처럼 아직 확정된 판본이 아니며, 인물을 구분하여 위의 항목에 편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기대승·박순·김천일·백광홍·유연개 등은 김인후의 문인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등재된 문생 중에서 30퍼센트 가량은 문생으로 보기 어렵다.

⑦ 尹榮善(?~?)의 『朝鮮儒賢淵源圖』(1941년 작) : 鄭澈, 卞成溫, 奇孝諫, 朴元恂, 梁子澂, 趙希文, 金調元, 吳健, 南彦紀, 尹祁, 申覺, 李彦讜, 盧適, 徐台壽, 金齊顏, 尹衡袖, 尹禮衡, 許紹, 許繼, 鄭彦邦, 薛弘允, 朴尙智, 李彦訥, 卞成振, 李彦讓, 李彦祥, 金成吉, 金啓, 鄭彦忠, 宋庭篁, 全斗, 奉端懿, 李光翼, 李光宙, 金希哲, 朴尙義, 李彦誠, 金從虎, 安璿, 梁山海, 金九河, 吳希吉, 裴恕, 金光式, 梁子淳, 丁亨運, 梁子民, 崔霧隱, 金德普, 晉起福, 徐應禎, 晉起禎, 金相慶, 金景壽, 安城, 金忠男. 김인후 문인들이 56명이나 나열되어 있어 가장 많은 문인을 등재한 책으로 꼽을 수 있다. 대부분 호남의 읍지·서원지·향교지를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김인후의 붕우로 분류되어야 할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김인

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다수이다. 정언방과 설홍윤 등은 김인후의 벗이고 김덕보는 김인후 사후에 태어난 사람이다.

⑧ 邊時淵(1922~2006) 등이 편찬한 『筆巖書院誌』(1975년 간행) : 卞成濫, 奇孝諫, 趙希文, 鄭澈, 吳健, 梁子澂, 南彦紀, 盧適, 尹祁, 申覺, 徐台壽, 金從虎, 安璿, 金齊顏, 梁山海, 朴元恂. 송근수의 「동국문헌문생편」에 등재된 15명이다 朴元恂 1명을 더하여 16명을 등재하였다.

⑨ 각종 일기와 문집에 보이는 김인후의 문인들 : 李恪(眉巖日記에 수록), 朴尙智·朴尙謹(省窩遺稿), 李有慶(謙山遺稿), 郭希仁(초명은 郭玄, 謙山遺稿), 金屹(謙山遺稿), 李箕南(植齋集), 徐應星(春潭集) 등

이상의 자료를 보면, 김인후의 문인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85여명 정도이다. 이들이 모두 김인후의 문인일까. 발표자는 기존의 자료와 신출 자료를 근거로 삼아 문인일 가능성이 높은 부류들을 뽑고 그들이 김인후와 교유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하서집』에 교유한 詩와 文이 있는지 일일이 검토, 침삭하여 다음처럼 門人錄을 도표화해 보았다. 앞으로도 이 문인록은 위에서 제시한 방증자료의 치밀한 고증을 통해 침삭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가나다순)

성명	생년	몰년	자	호	본관	거주	과거/관직	문집	비고
金景壽	1543	1621	伯亨	鰲川	蔚山	장성	禮曹佐郎	鰲川集	南門倡義盟主
金 啓	1528	1574	晦叔	雲江	扶安	부안	文科, 吏曹參判	雲江遺稿	중국어 능통
金成吉	1552	1639		麥老	蔚山	장성		麥老遺稿	김인후 사종질
金成遠	1525	1597	剛叔	棲霞堂	光山	광주	生員, 察訪	棲霞堂遺稿	임억령 문인
金麟渾		1593			蔚山	진원			김인후 종제
金齊顔	1530	1594	士愚	竹軒	義城	고부			金齊閔 아우
金調元	1540			悠悠亭	光山	장성	贈工曹參議		
金從龍	1524				蔚山	장성			김인후 장남
金從虎	1537		季義	百花堂	蔚山	장성	自如察訪		김인후 차남
奇孝諫	1530	1593	伯顧	錦江	幸州	장성	贈戶曹參議		이항 문인
南彦紀	1534		張甫 季憲	考槃 靜齋	宜寧	동북	生員, 水庫別坐	考槃遺編	李滉 문인 臨對亭 주인
盧 適	1533	1591	希聖 達夫	永懷亭	江華	남원	童蒙教官 大君師傅		
朴思愚			仲敏	清節堂	泰仁	장성	鎭安縣監, 別提		朴守良 아들
朴元恂			信而	清溪	珍原	장성	生員		清溪亭 건립
卞成溫	1540	1614	汝潤	壺巖	草溪	무장		壺巖實記	李滉 문인
卞成振	1549	1623	汝玉	仁川	草溪	무장	中部參奉	仁川遺稿	李滉 문인 卞成溫 아우
奉端懿	1538	1592	君美	松灘	河陰	영광	主簿		
徐台壽	1520		大老	思巖	長城	장성	生員	思巖遺藁	
徐 浩			德基	竹林亭	達城		義禁府事		
宋庭篁	1532	1557	天擎		洪州	광주	文科 弘文館 正字	丁字宋公 遺稿	아들 宋齊民
申 覺	1551	1629	天民	性菴	平山	남원			
安 璿	1520			龜溪	順興	남원	慶基殿參奉		안처순 조카

성명	생년	몰년	자	호	본관	거주	과거/관직	문집	비고
梁山海			茂弘	遯菴	濟州	광주			양응정 아들
梁子淳	1527	1597	季明	支巖 負暄堂	濟州	창평	訓導	瀟灑園事實 (支巖公事實)	양자징 아우
梁子澂	1523	1594	仲明	鼓巖	濟州	창평	居昌縣監 石城縣監	瀟灑園事實 (鼓巖公事實)	김인후 사위 필암서원 배향
吳大朴			景純		羅州				박수량 姪孫甥
尹 祁	1535	1607	仲說	良輔	南原	서울	文科, 水原府使		초명은 尹箕
尹禮衡	1522	1592	敬仁	林泉	坡平	함평	武科, 明川府使		병조판서 추증
尹衡袖	1521	1587	仁叟	林谷	坡平	함평	參奉, 檢詳		
李 恪			元作			광주			眉巖日記 참고
李彦詳	1536		景智	錦崖	陽城	나주	文科 弘文館正字		이언양의 아우
李彦讓	1531		景禮	龍江	陽城	나주	文科, 郡守		李彦讓의 아우
李至男	1529	1577	端禮	永膺	延安	서울	昭格署參奉		李忱 아들
鄭 澈	1536	1593	季涵	松江	延日	창평	文科, 좌의정	松江集	
趙希文	1527	1578	景范	月溪	咸安	남원	文科, 校理	月溪遺集	김인후 만사위
許 繼	1527		仲承	道峰	泰仁	옥과	進士	五賢實記 (道峰實記)	詠歸書院 배향
許 紹	1525	1602	伯承	雪巖	泰仁	옥과		五賢實記 (雪巖實記)	許繼의 형

여기에 등재된 문인은 모두 37명인데 서울 출신 2명을 빼고는 모두 전라도 출신들이다. 전라도 지역에서도 장성과 가까운 지역의 문인들이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과와 대과에 합격한 문인들은 13명 정도이고, 정계에 입문하여 고위 관직에 오른 문인들도 몇 명 보인다. 이 중에서 문집을 남긴 문인은 15명 정도이다. 학술적 연구가 가능한 문집은 10여 종이고 나머지는 문헌이 빈곤하여 실기 형태로 엮은 것이다. 주요 문인들의 생애와 학문 성향, 스승 김인후와 관련된 시문은 다음과 같다.

① 金啓(1528~1574)는 전라도 부안 출신으로, 본관은 扶安, 자는 晦叔, 호는 雲江이다. 김인후의 문인이며, 유희춘·박순·기대승과도 교유하였다. 1552년(명종 7)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헌납이 되었다. 중국어에 능통하여 두 번이나 중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1558년에 한학 교수가 되었다. 기묘사화에 희생된 현인들을 변호하는 소장과 을사사화에 僞勳을 받은 간신들을 탄핵하는 소장을 올렸다.²³⁾ 1571년(선조 4)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동래부사를 지냈다. 중국어에 능통하여 승문원 부제조로 발탁되었다가 이조참판이 되었다. 부안의 道東書院에 제향되었고 문집으로 『雲江遺稿』가 있다. 현재 『하서집』에는 「贈金晦叔啓」 등 김계에게 준 시 2수가 실려 있고, 『운강유고』에는 김인후의 시에 차운한 시가 들어 있다.

② 金成遠(1525~1597)은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본관은 光山, 자는 剛叔, 호는 棲霞堂이다. 김인후와 임억령에게 수학하여 性理書와 『주역』을 깊이 연구하였고 임억령·고경명·정철과 더불어 ‘星山四仙’으로 불렸다. 1558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그 뒤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창평의 성산에 서하당을 짓고 정철·고경명 등과 학문을 강론하였다. 1581년(선조 14) 제원도 찰방을 지냈고 임진왜란에 동복현감을 역임하면서 군량과 의병을 모으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어머니를 업고 피난하던 중 모후산에서 왜병을 만나자 부인과 함께 몸으로 어머니를 보호하다 살해되었다. 문집 『서하당유고』에는 「星山溪柳濯熱圖」, 「息影亭十二詠」 등 다수의 시가 들어 있는데, 정철의 「성산별곡」은 정철이 25세 때 김성원을 위하여 지어준 것이라 한다. 현재 『하서집』에는 「贈金剛叔成遠」시 1수가 실려 있다.

③ 奇孝諫(1530~1593)은 전라도 장성 출신으로, 본관은 幸州, 자는 伯顧, 호는 錦江이다. 김인후·이항의 문인이며 당숙 기대승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한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며 후진양성에 주력하여 호남의 隱德君子로 불리었다. 김천일·정철 등과 교유하였으며 그의 문하에서 吳希吉 등의 학자가 배출되었다. 김인후 사후에 서태수·변성온·변성진 등과 사우를 짓는 일에 참여하여 제자의 직분을 다하였다. 또 1590년에 변이중 등과 함께 필암서원을 창건했고 임진왜란에는 의병에 참여

23) 『雲江遺稿』, 疏編과 諸賢記述 참고.

하여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장성 南門倡義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 죽은 뒤에 장성의 秋山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을 남기지 못했으나 행적이 『남문창의록』과 『오산창의록』에 기재되었다. 현재 『하서집』에는 「示奇伯顧」 등 기효간에게 준 시 4수가 실려 있다.

④ 南彦紀(1534~?)는 한양에서 태어나 전라도 동복으로 이거하였는데 본관은 宜寧, 자는 張甫·季憲, 호는 考槃·靜齋이다. 1546년에 아버지 남치육이 장흥부사로 부임할 때에 따라 내려와 김인후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어려서 李恒과 人心道心說을 토론하며 학문에 열중하였고 나중에 이황의 문하에도 출입하여 ‘동방의 도학을 전수할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다. 동문 정철·변성온·기효간 등과 막역하였고, 보성의 유학자 박광전과도 대원사에서 교유하였다. 1568년(선조 1) 생원이 되고 학행으로 천거를 받아 동몽교관을 거쳐 빙고별좌가 되었다. 사직한 뒤 동복의 사평촌에 考槃亭(나중에 민주현이 臨對亭으로 바꿈)을 짓고 인근의 선비들과 학문을 토론하며 서예에 열중하였다. 문집 『考槃遺編』이 있다. 현재 『하서집』에는 「和南張甫」 등 남언기에게 준 시 7수가 실려 있다.

⑤ 盧適(1533~1591)은 전라도 남원 출신으로, 본관은 江華, 자는 希聖 또는 達夫, 호는 永懷亭이다. 어려서 김인후에게 수학하여 高弟로 성장하였고 1583년에 홍성민과 심의겸이 조정에 行誼로 천거하였다. 이듬해에 성혼이 천거하여 敎官이 되었으며 1587년에 정철이 유일로 천거하여 대군의 사부가 되었다. 이이·남언경·조현과 도의로 사귀었다. 족보에는 유고가 있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²⁴⁾ 현재 『하서집』에는 「贈盧達夫適」 시 1수가 실려 있다.

⑥ 卞成濫(1530~1614)은 전라도 무장(고창) 출신으로, 본관은 草溪, 자는 汝潤, 호는 壺巖이다. 김인후의 문인이며 이황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성리학·역학·예경을 독실히 궁구했고 理數에도 밝아 나무로 渾天儀를 만들었다.²⁵⁾ 김인후가 을사사화를 피해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 힘쓸 때 제일 먼저 나아가 수학하였다. 김인후가 『소학』을 주자 변성온은 성인의 모범이 이 책에 있다면서 언행을 모두 『소학』에 근거하였다. 성격이 온후하고 행동에 실수가 없어 동문 기효간·양자징·조희문·이지남·윤기·남언기 등으로부터 중망을 받았으나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호암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썼다. 1555년에 이황을 배알하였으며 김인후의 무릉구곡 시를 이황 앞에서 낭송하기도 하였다. 당시 정여립이 이름을 날려 사대부들이 모두 다투어 몰려들었으나 만나보지 않았으며, 정여립이 만나려고 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고창의 月溪書院에 제향되었고, 문집

24) 『江華盧氏世譜』 권1, ‘盧適’조.

25) 『壺巖實記』, 「傳」 참고.

『壺巖實紀』가 있다. 현재 『하서집』에는 「贈卞汝潤」 등 변성운에게 준 시 4수가 실려 있다.

⑦ 卞成振(1549~1623)은 전라도 무장(고창) 출신으로, 본관은 草溪, 자는 汝玉, 호는 仁川이다. 변성운의 아우이며 김인후와 이황의 문인이다. 효성으로 이름이 알려져 참봉에 제수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한 후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변성진의 堂 앞에는 德山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고 당 아래에는 仁川이라는 물줄기가 있었는데, 늘 지팡이를 끌고 소요하면서 가난한 가운데 道를 즐기며 살았다. 형과 함께 나무로 혼천의를 만들었으며, 학행으로 형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날렸다.²⁶⁾ 고창의 월계서원에 배향되었고 문집 『仁川遺稿』를 남겼다. 현재 『하서집』에는 변성진과 관련된 시문이 한 수도 발견되지 않는다.

⑧ 徐台壽(1520~?)는 전라도 장성 출신으로, 본관은 長城, 자는 大老, 호는 思巖이다. 節孝公 徐稜의 후예이며 徐禹甸의 아들이다. 1567년(선조 즉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김인후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행으로 이름이 알려져 기대승·기효간·변이중·백광훈·변성운·양자징 등과 교유하였다. 1583년에 이이와 성혼을 변호하는 소장을 올렸고 나중에 또 두 선생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소장을 올렸다. 문집 『思巖遺藁』가 남아있다.²⁷⁾ 현재 『하서집』에는 「贈徐大老台壽」 시 1수가 실려 있고, 서태수가 지은 「筆巖書院春秋釋菜祝文」이 실려 있다.

⑨ 宋庭篁(1532~1557)은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본관은 洪州, 자는 天擎이다. 젊어서 김인후에게 수학하여 1556년(명종 21)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교서, 홍문관 정자, 전라도 도사를 역임하였다. 척신 윤원형에게 미움을 받아 고향으로 물러나 은거하다가 1557년에 기대승이 편찬한 『주자문록』에 발문을 썼다. 문집 『正字宋公遺稿』를 남겼다. 현재 『하서집』에는 「和宋生庭篁韻」 시 1수가 실려 있다.

⑩ 申覺(1551~1629)은 전라도 남원 출신으로, 본관은 平山, 자는 天民, 호는 性菴이다. 어려서 김인후에게 수학하였으며 장성해서는 정철과 도의로 사귀었다. 부모에게 효도하며 안빈낙도의 삶을 즐겼다.²⁸⁾ 1568년(선조 1) 김인후의 문집 초간본을 간행할 때에 刊役に 깊이 관여한 바 있다. 『하서집』 舊序(문인 조회문이 기록)에는 “판각을 감독하는 어려움과 정교하게 교정하는 일은 선생의 도를 잘 알고 성심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문인 梁子澂 군과 申覺 군에게 요청하여 그 일을 주관케 하였다.”고

26) 『仁川遺稿』附錄, 「事實」참고.

27) 『長城徐氏族譜』丙編, '徐台壽'조.

28) 『松沙集』권27, 「進士申公墓碣銘并序」, 50a쪽.

적혀 있고, 부록 ‘서술’조에는 신각이 스승에 관해 기록한 내용 2조목이 실려 있다.

⑪ 梁子澂(1523~1594)은 전라도 창평 출신으로, 본관은 濟州, 자는 仲明, 호는 鼓巖이다. 소쇄처사 양산보의 아들이며, 김인후의 둘째 사위이자 문인이다. 아우 梁子淳과 함께 김인후의 문하에서 수학할 때에 太極과 洪範의 도설로 스승과 논변하였으며 大衍의 數와 九疇의 法을 연구하여 마음으로 깨친 바 있다.²⁹⁾ 監司 鄭宗榮의 추천으로 관직에 나아가 거창현감·석성현감 등 세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1591년(선조 24) 두 아들 양천경·양천회가 신묘옥사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김인후의 「행장」을 썼으며 장성의 필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소쇄원사실』 속에 그의 문집이 들어있다. 현재 『하서집』에는 「次贈梁甥仲明」·「寄復仲明書」 등 양자징에게 준 시 16수가 실려 있다.

⑫ 尹祁(1535~1607)는 한양 출신으로, 본관이 南原, 초명은 箕, 자는 仲說, 호는 良輔이다. 부친 尹剛元이 1547년(명종 2)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자 따라가 20여년을 모시면서 김인후에게 수학하였다. 1568년(선조 1)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 유생의 疏頭가 되어 을사사화 때 책록된 공신의 훈작을 삭탈할 것을 상소하였으며 직언으로 명성을 떨쳤다. 1576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공조좌랑·사헌부 감찰을 거쳐 여러 군현을 다스려 부임하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수원부사로서 무관을 대신하여 성천에 가서 세자를 시종하였다. 현재 『하서집』에는 「尹生仲說箕請戒己詩」 등 윤기에게 준 시 3수가 실려 있다.

⑬ 李至男(1529~1577)은 한양 출신으로, 본관이 延安, 자는 端禮, 호는 永膺이다. 부친인 사헌부 장령 李彦忱이 을사사화에 직언으로 탄핵을 받고 순창군수로 좌천되자 따라갔다가 순창 훈몽재에서 은거하던 김인후에게 집지하고 배웠다. 김인후는 그에게 字를 지어주고 字說까지 지어주었으며, 또 “기대가 매우 크니(期待殊非淺) / 삼가 공부에 박차를 가하게나.(工夫慎莫徐)”라는 격려의 시를 주었다. 뒤에 아버지가 서천으로 귀양가서 죽으니 지성으로 장사지내고 묘 옆 여막에서 3년을 지냈다. 1577년(선조 10) 나라 안에 학행이 있는 선비를 천거할 때 소격서 참봉에 제수되었다. 이 해에 어머니 안씨가 이질을 앓아 증세가 위급하자 목욕하고 울부짖으며 하늘에 호소하여 감동시켰다. 어머니는 차츰 회복되었으나 그는 오랫동안 侍湯과 간호에 지쳐서 피를 토하다가 그해 8월에 죽으니 사람들이 연안의 邑號를 따라 ‘영웅선생’이라 하였다. 맏아들 基稷은 송강 정철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아버지의 상사에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23세에 죽었다. 집안에 효자가 많이 배출되어 여덟 개의 정문인 ‘八紅門’이 내렸다고 한다. 현재 『하서집』에는 「贈李端禮至男」·「李至男字說」 등 이지남에게 준 시문 4수가 실려 있다.

29) 『瀟灑園事實』 권6, 「鼓巖公墓誌」 참고.

⑭ 鄭澈(1536~1593)은 한양에서 태어나 고향인 전라도 담양에 은거하였다. 본관이 延日, 자는 季涵, 호는 松江이다. 1551년에 아버지 정유침을 따라 담양 창평 唐旨山 아래로 이주하여 여기에서 임억령에게 시를 배우고 김인후·송순·기대승에게 학문을 배웠다. 1562년(명종 17)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사헌부 지평·성균관 전적·사간원 헌납·홍문관 수찬 등을 지냈다. 1580년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關東別曲」과 「訓民歌」 16수를 지었다. 그 뒤 전라도 관찰사·도승지·예조판서를 지내고 대사헌이 되었으나 동인의 탄핵을 받아 창평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하였다. 이때 「사미인곡」·「속미인곡」·「성산별곡」 등의 가사작품을 지었다. 정여립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역모를 다스렸고, 왕세자 책봉문제가 일어나자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하였다. 임진왜란에 경기도·충청도·전라도의 체찰사를 지내고 다음해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사후에 창평의 송강서원, 연일의 오천서원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文淸이다. 문집으로 『송강집』을 남겼다. 현재 『하서집』에는 「贈鄭季涵」시 1수가 실려 있고 정철이 지은 「懷河西」시 1수도 실려 있다.

⑮ 趙希文(1527~1578)은 전라도 남원 출신으로, 본관은 咸安, 자는 景範, 호는 月溪이다. 김인후의 문인이자 첫째 사위이다. 1553년(명종 8)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 정자, 성균관 전적·사헌부 장령·사간원 헌납·이조좌랑·홍문관 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1568년 장흥부사로 있을 때 명륜당에 제생들을 모아 경전·『심경』·『근사록』·『성리대전』 등을 강의하고 향음주례를 시행하는 등 문교진흥으로 풍속을 교화시켰으며, 스승 김인후의 문집에 서문을 써 붙여 초간본을 간행하였다.³⁰⁾ 경연에 있을 때에는 임금에게 정치의 요점을 들어 진달하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김인후의 학설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誠과 敬의 실천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다. 문장이 뛰어났으며 당시에 기대승·정철·백광훈·변성온 등과 교류하였다. 문집으로 『月溪遺集』을 남겼다. 현재 『하서집』에는 「懷趙甥景範」·「閒居雜詠 示景範」 등 조희문에게 준 시 30수가 실려 있다.

⑯ 許繼(1527~?)는 전라도 옥과 출신으로, 본관은 泰仁, 자는 仲承, 호는 道峯이다. 許紹의 아우이며 김인후의 문인이다. 1561년(명종 16)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평소에 『주역』과 『중용』을 정밀히 공부했는데 김인후가 옥과현감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배워 더욱 학문이 깊어졌다. 또 『楚辭』를 즐겨 읽었는데 스승에게 글로 써 물으면 시로 답하여 말하였다. 기효간·변성온·양자징·정철과 동문 벗으로 교분을 맺었다. 옥과현 북쪽 道里峰 아래서 살았으므로 별호를 ‘道峯’이라 하였다.³¹⁾ 1797년에 김인후를 모신 옥과의 영귀서원에 배향되었다. 『五賢實記』 속에 그의 짧은 문집이 들어

30) 『月溪遺集』 권1, 「河西先生全集序」와 『眉巖日記』 참고.

31) 『五賢實記』, 「道峯行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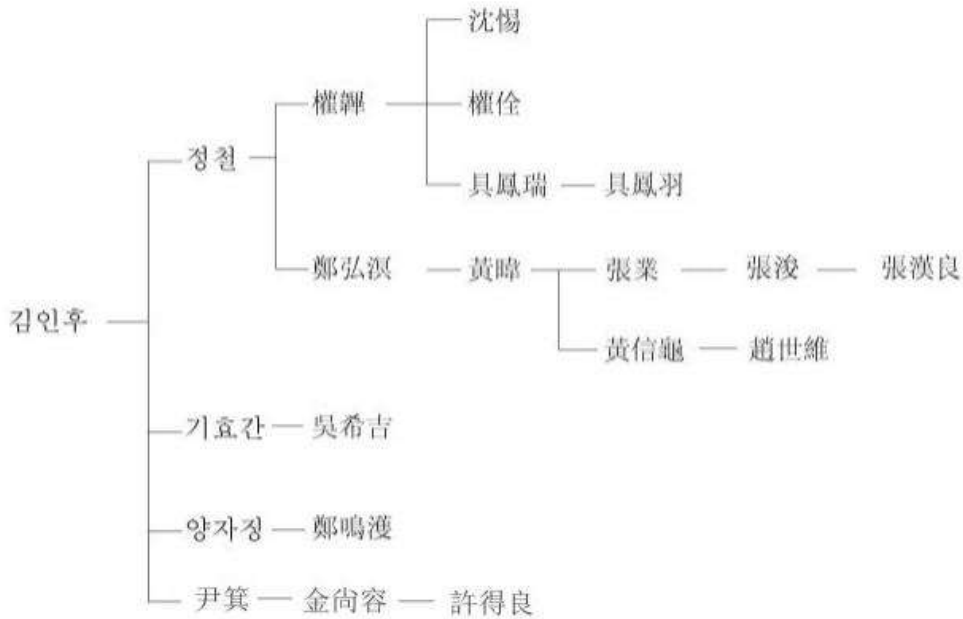
있다. 현재 『하서집』에는 「答許仲承繼楚辭問」 등 허계에게 준 시 2수가 실려 있다.

⑰ 許紹(1525~1602)는 전라도 옥과 출신으로, 본관은 泰仁, 자는 伯承, 호는 雪巖이다. 약관의 나이에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위기지학에 뜻을 두어 아우 허계와 함께 김인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당시의 명현인 기대승·정철·양자징 등과 중유하면서 학문을 강론하였다. 영리를 구하지 않고 은거하며 공부하기 위해 옥과현 雪山 盤巖 아래에 작은 서재를 지었다. 설산 반암에서 설암이라는 호를 얻었다.³²⁾ 그의 행록과 문적은 대부분 전란에 소실되어 남은 것이 거의 없다. 현종 때에 옥과의 영귀서원에 배향되었다. 『五賢實記』 속에 그의 짧은 문집이 들어 있다. 현재 『하서집』에는 「抵許伯承 紹兄弟寓舍」·「伯承兄弟以酒來訪」 등 허소에게 준 시 4수가 실려 있다.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학문 성향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거나 이어져 내려오는 줄기나 가닥을 學脈이라고 표현한다. 김인후의 문인 중에서도 학맥을 형성한 경우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들추어 보아도 정철 문하 외에는 이렇다 할 학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인후 문하에서도 학문적인 명성이나 정치적 위상이 높았던 정철은 成輅, 曹弘立, 權鐸, 鄭弘溟, 尹弘國, 金大器, 林檜, 李德言, 金德普, 許纘, 洪民彦, 李大胤, 洪時挺, 朴大鵬, 丁鎰, 牟禎 등 다수의 문인들을 배출하였다. 이중에서도 문장이 뛰어나고 기개가 높았던 권필과 古文에 밝아 대사성·대제학을 역임한 아들 정홍명이 문인들을 양성하여 정철의 학맥을 이었다. 기효간의 문하에서 오히길이 나오고 양자징의 문하에서 정명호가 나왔지만 그 이후는 미미하다. 병자호란에 순절한 金尙容이 尹箕(나중에 尹禔로 개명)의 문하에서 『春秋左氏』를 배웠다³³⁾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다음은 김인후 이후의 학맥도를 그려본 것이다.

32) 『五賢實記』, 「雪巖行狀」 참고.

33) 『淸陰集』 권26, 「伯氏議政府右議政仙源先生神道碑銘并序」 참고.



5. 맺음말

조선조 유학자들의 문집에서 『師友門人錄』·『門人錄』·『及門諸賢錄』·『淵源錄』 등 錄類의 글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녹류는 대부분 사후에 후손과 후학들의 수록 과정을 거쳐 문집에 편집되는 것이 상례이다. 아무리 탁월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교육에 관해서는 늘 겸허한 태도를 유지코자 했으므로 자신의 제자들을 기록한 ‘문인록’이나 ‘문생록’을 생전에 남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대에 작성된 문인록들은 기억의 오류, 부정확한 고증, 假託의 문화 등에 의해 혼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김인후가 약 17년 동안 옥과, 순창, 장성 등지에서 강학하여 다수의 문인들을 배출했다는 사실은 「연보」나 기타 기록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나 김인후는 34세 이후로는 시대에 상심하여 철저히 은둔의 삶을 선택하였고 은거지로 찾아오는 제자들에게도 靜閑한 교육을 펼쳤다. 자신이 머물던 서재나 외현에 學規와 儀節을 표방하지 않고 講案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삶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생전에 문인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김인후는 문인들에게 孔朱의 成法으로 학문의 표준을 세우기를 요구하였고, 『소학』과 『대학』이 학문의 처음과 끝이라고 가르쳤으며, 成己와 成物이 학문의 목표라고 강조하였다. 김인후의 문인들은 초기에 『하서집』에 흠어져 보이다가 120여 년이 흐른 뒤에 비로소 박세채가 편찬한 『동유사우록』에 12명이 집단적으로 등재되었다. 이후

「동국문헌문생편」·「조선잡헌보감」·「전고대방」은 『동유사우록』에 등재된 문인들을 근간으로 삼고 여기에 몇 명의 문인을 첨삭하여 분류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30~1940년대에 들어와 김인후의 문인록은 그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다. 후손 김길중이 편찬한 「문생」 편에는 47명의 문인이 등재되어 있으나 고증의 미비, 과도한 추정 때문에 문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다수 발견된다. 윤영선의 『조선유현연원도』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문인록과 읍지·서원지·향교지에 나오는 문인들을 망라하여 가장 많은 56명의 문인을 등재하였으나 여전히 가탁과 오류의 기록을 변별하지 못하였다.

발표자는 여러 가지 기록에 등장하는 문인들의 생몰 연도를 먼저 대조하고, 이어 문인들의 이름·자·호 등을 낱낱이 『하서집』에 넣어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문인들의 족보와 행장 등 검증이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동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차적으로 37명의 문인을 선별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 도표화하였다. 거듭 말하지만 이 도표화된 자료 또한 未定本이다. 앞으로도 방증 자료를 통해 첨삭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김인후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은 문인들은 과거시험을 통해 정치에 나서기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은둔 군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임진왜란에는 창의하여 국난에 달려가기도 하였다. 특히 발표자는 김인후의 문인 37명 중에서 遺稿(遺集) 또는 實記 형태의 문집을 남긴 것이 15종 정도라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앞으로 문인 증명의 과정을 거치면 문집의 종수도 자연스레 가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河西學派’가 가능하려면 김인후만 연구하거나 『하서집』만 탐색해서는 안 된다. 김인후라는 ‘지적 거인’을 중심으로 학문 활동과 내용에서 일정한 연관성과 공통성을 지녔던 문인들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스승과 제자를 함께 연구해야 학문의 연관성과 공통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의 학파로서 정립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奇宇萬, 『松沙集』
金 啓, 『雲江遺稿』
金景壽, 『鰲川集』
金尙憲, 『淸陰集』
金成遠, 『棲霞堂遺稿』
金壽恒, 『文谷集』
金時瑞, 『自然堂遺稿』
金麟厚, 『河西集』
金鍾燮, 『聿修齋世蹟』
南彦紀, 『考槃遺編』
卞成濶, 『壺巖實記』
卞成振, 『仁川遺稿』
邊時淵 등, 『筆巖書院誌』
宋達洙, 『守宗齋集』
宋 純, 『俛仰集』
宋庭篁, 『正字宋公遺稿』
梁子淳, 『支巖公事實』 (『瀟灑園事實』에 수록됨)
梁子澂, 『鼓巖公事實』 (『瀟灑園事實』에 수록됨)
吳 健, 『德溪文集』
吳希吉, 『韜庵先生文集』
尹 拯, 『明齋遺稿』
田 愚, 『良齋文集』
鄭 澈, 『松江集』
趙希文, 『月溪遺集』
許 紹, 『五賢實記』

- 금장태, 「하서 김인후의 수양론」,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하서 기념회, 2000.
이동희, 「진북 순창의 훈몽재와 하서 김인후」, 『진주사학』, 2004.
최영성, 「하서 김인후의 순창에서의 강학 활동」,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9집, 2017.

조선후기 하서 김인후의 贈諡와 文廟從祀 연구

- 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고문서를 중심으로 -

조미은(한국학호남진흥원)

• 목차 •

1. 머리말
2. 김인후의 追贈과 贈諡
 - 1) 현종대 超贈과 贈諡
 - 2) 정조대 加贈과 改諡
3. 국왕의 致祭와 致祭文
 - 1) 陵行 치제
 - 2) 文廟從祀 치제
4. 文廟從祀 추진과 敎書 반포
 - 1) 문묘중사 청원과 결정
 - 2) 문묘중사 의례 거행과 대민 반포
5. 맺음말

1. 머리말

하서 김인후(1510~1560)는 ‘동방의 주자’, ‘호남의 공자’라 칭송받는 호남 대표 유학자로 사후에도 200여 년간 그에 대한 업적과 평가가 이루어졌고, 정조대에는 백세의 師表로서 문묘배향까지 이루어진 인물이다.

하서 김인후와 관련된 여러 자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가 남긴 저술 내용이 집대성되어 있는 문집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하서 종가, 필암서원 등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고문서라는 1차 사료도 현전하고 있다. 이 자료들 가운데 필암서원 소장 자료는 ‘筆巖書院文籍一括(14책 64매)’로 1975년 5월 1일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기탁 자료로써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후 2001년 4월 3일 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에서 仁宗大王墨竹圖 등 31점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하였다.¹⁾ 이에 박물관은 기증 받은 자료를 보존처리 한 후에 전시를 기획하여 2007년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였다.²⁾ 하서 김인후의 탄생 500주년을 앞두고 호남정신의 정점을 이룬 대학자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였고, 특히 대종중에서 기증한 고문서 자료들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당시 대종중에서 기증한 자료는 모두 31점으로 대부분 하서 김인후와 직접 관련된 고문서 및 서화 유물이었다.³⁾ 자료의 특성에 따라 크게 낱장 형태의 고문서와 그림이나 글씨 자료에 해당하는 서화 자료로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 명칭 등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1)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대표 김병주, 76세)은 “유물이 더 훼손되기 전에 박물관에 기증하여 많은 사람들의 연구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증 취지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신문」 제357호, 2001년 5월 1일, 1-2면 참조.

2)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Ⅵ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3) 한국전쟁 당시 종가 또한 전란으로 인한 화재를 당하게 되었고 후손들은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집안 대대로 보관하던 많은 문화유산 자료를 燒失하였고, 하서 선생 관련 중요한 자료 소량만 겨우 가지고 탈출하였다고 한다.

<표 1>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기증유물 현황4)

유형	자료명	수량	관련 인물 및 내용	소장번호
古文書	蔭取才入格牒	1	金從虎	광3871
	告身	2	金從虎, 金南重	광3872 광3874
	追贈教旨	5	金麟厚, 尹氏	광3875 광3876 광3882 광3883 광3888
	贈諡教旨	3	文靖公, 文正公	광3877 광3886 광3887
	諡號署經完議	2	司諫院, 司憲府	광3884 광3885
	敎書	3	金麟厚 文廟從祀	광3889 광3891 광3892
	致祭文	5	陵行, 文廟從祀	광3879 광3890 광3893 광3894 광3895
	服齋傳筆歌并序文	1	申欽	광3873
	御筆別本祭文跋	1	金直休	광3880
	御畫墨竹跋文	1	俞肅基	광3878
	河西先生職啣	1	金麟厚	광3881
書畫	仁宗大王墨竹圖	1	木版本	광3868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1	金麟厚, 鄭惟吉, 閔箕, 南應雲, 李澤, 李樞, 尹玉	광3869
	東湖契會圖	1	金麟厚, 林亨秀, 李滉, 尹玪, 南應龍, 閔箕, 李洪男, 金樹, 李湛, 朴承任, 盧守愼	광3870
	墨書	3	七言絶句 等(簇子)	광3896 광3897 광3898
합계		31		

위에 제시한 기증유물 현황과 같이, 고문서 자료는 25점으로 주로 김인후 사후에 그의 업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작의 추증과 시호 하사, 문묘종사 추진, 후손 예우 및 등용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서화 자료는 6점으로 주로 김인후 생전에 활동했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師弟였던 김인후와 인종대왕의 두터운 의리, 함께 공부하고 관직 활동을 했던 이들과의 교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하서 김인후 사후에 그에 대한 평가와 위상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고문서 자료에 대해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하서 김인후에 대한 후대의 현양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기존 연구를 통해 파악된 조선후기 김인후에 대한 주요 현양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2001년 당시 간단하게 작성한 울산김씨 대종회 기증유물 목록을 기초로 하여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유물 번호 확인, 유물 명칭 및 주요 내용을 재확인한 후에 자료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1】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기증유물 현황 참조.

<표 2> 김인후 사후 시기별 주요 현양 내용⁵⁾

주요 내용	16세기	17세기	18-19세기	20세기
① 文集 刊行	河西集 *초간본(1568)	河西先生集 *중간본(1686)	河西全集 *삼간본(1796~1802)	河西先生續編 *초간본(1916) 河西先生續集 *중간본(1940)
② 書院·祠宇 건립	詠歸亭祠 건립 (1564)	詠歸書院 건립 (1694)	유팽로 등 추배 ⁶⁾ (1729-1846) *혜철(1868)	복원(1960) 위백규 추배 (1965)
	華山祠 건립 (1570)			
	筆巖書院 건립 (1590)	이건·복설 (1624) 사액(1659) 선액(1662) 이건(1672)	고암 양자징 추배 (1786) *서원혜철령 존속 (1871) *호남 유일	
			魚巖書院 건립 (1827) *혜철(1868)	
③ 追贈·贈諡		이조판서 추증(超贈) 정부인 추증 (1668)	영의정 추증(加贈) 정경부인 추증 (1796)	
		文靖 시호 (1669)	文正 시호 改諡 (1796)	
④ 文廟從祀			문묘배향 청원 (1771~1796) 문묘 배향 및 대민 반포 (1796)	

하서 김인후 사후에 추진된 현양 사업은 조선후기 2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①문집 간행, ②서원·사우 건립, ③추증과 증시, ④문묘종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추증과 증시, 문묘종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문서 자료가 위에서 언급한 追贈教旨, 贈諡教旨, 文廟從祀教書, 致祭文 등이다.

현재까지 하서 김인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고문서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가 사망한 이후 200여 년간 이루어졌던 그에 대한 현양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문서 자료에 주목하였고, 특히 추증과 증시, 치제와 문묘배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추증과 증시에 대해서는 현종대와 정조대로 시기를 구분하여 어떠한 사유에서 추

5) 이해준, 「朝鮮後期 河西 金麟厚의 顯揚活動」,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제2집, 재단법인하서학술재단, 2000, 345-346쪽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외에 김상오,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문묘종량의 경위」, 『전북사학』5, 전북대사학회, 1981 ; 이연순, 「하서 김인후 문집 판본 연구」, 『동양고전연구』56, 동양고전학회, 2014 등 기존 연구 내용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6) 『英祖實錄』, 『詠歸書院誌』(1979) 등 사료에 따라 주향인 김인후 외에 추향 인물(李興發)이 서로 다르게 확인되므로 추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증과 증시가 두 임금대에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김인후에 대한 국왕의 치제 배경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능행 치제와 문묘종사 치제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문묘종사 추진과 교서 반포에 대해서는 당시 문묘종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원 사례와 배경에서 대해 간략히 살피고, 실제 문묘종사 의례를 어떻게 추진하고 대민 반포하였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하서 종가에 이러한 자료가 대대로 가전되어 남아 있었던 전래 경위뿐만 아니라 각각의 고문서 자료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김인후의 追贈과 贈諡

조선시대 관원이 죽은 이후에 贈職되거나 諡號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전에서는 ‘追贈’과 ‘贈諡’로 명명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종친 및 문무관 실직 2품 이상인 자에 대해 3대를 추증한다고 하였다.⁷⁾ 시호를 내릴 때에도 추증과 마찬가지로 종친 및 문무관 실직 정2품 이상인 자에 한하여 규정을 적용하였다.⁸⁾

김인후에 대한 추증과 증시는 현종대에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정조대에는 김인후의 관작을 더 높여 加贈하였고, 증시 또한 문묘종사와 연계하여 시호에 대한 개정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文正’이란 시호로 改諡하였다. 먼저 현종대 김인후에 대한 추증과 증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례가 바로 김인후와 그의 부인 숙인 윤씨에게 발급된 追贈教旨 2점과 贈諡教旨 1점이다.

가. 현종대 김인후의 超贈과 贈諡

김인후 사후 현종대에 이르러 추증과 시호를 받기까지 100여년의 시간 동안 김인후에 대한 여러 가지 숭모 및 현양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의 학문과 절의를 기리기 위해 그가 활동했던 여러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곡성, 순창, 장성 등 여러 지역에 서원과 사우 등이 창건되었고 문집(초간본, 1568)이 간행되었다. 1564년(명종 19)에는 옥과현의 유생들이 詠歸亭祀를 건립하였고, 1570년(선조 3)에는 순창 지역의 유생들이 華山祠를 건립하였다.⁹⁾

1590년(선조 23)에는 장성 지역의 선비들과 김인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錦江 奇孝諫(1530~1593), 壺巖 卞成溫(1540~1614) 등이 岐山에 서원을 창건하였다. 이후 정유재란으로 서원은 소실되었고 1624년(인조 2)에 서원의 복설을 추진하여 筆巖里 甌山洞으로 이설하였다.¹⁰⁾ 그리고 1658년(효종 9)에는 전라도의 유생들이 필암서원의 사액을 청원하

7) 『經國大典』 「吏典」 <追贈>. 宗親及文·武官實職二品以上, 追贈三代. [父母准己品, 祖父母·曾祖父母, 各遞降一等. ○亡妻從夫職. ○大君妻父正一品·王子君妻父從一品. ○親功臣, 則雖職卑贈正二品. ○一等功臣父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二等純忠積德補祚功臣, 三等純忠補祚功臣, 竝封君.]

8) 『經國大典』 「吏典」 <贈諡>. 宗親及文·武官實職正二品以上, 贈諡. [親功臣, 則雖職卑亦贈. ○奉常寺正以下議定, 并行狀報本曹.]

9) 『河西先生全集附錄』 권4 「年譜」.

10) 김봉근, 「필암서원과 울산김씨」, 『한국계보연구』5, 한국계보연구회, 2014 참조 ; 『筆巖書院誌』 권1 「沿革」(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5124). 宣祖二十三年庚寅[距先生歿三十一年(1590)], 湖南章甫建祠俎豆於府西十里岐山下[今長城邑岐山里, 距本院數畝地. 門人壺巖卞成溫往來奇孝諫錦江齋, 共折書邀邊望菴, 以中創建]. 三十年丁酉, 爲兵燹所燬. 仁祖甲子[1624], 復設甌山下[今筆巖里甌山洞. 秋潭金友伋撰上梁文]. 孝宗九年戊戌[1658], 本道儒生等疏請, 賜額. 翌年己亥, 蒙允. 顯宗三年壬寅

였고, 1659년(효종 10)에 사액이 결정되었으며 1662년(현종 3)에 현종이 ‘筆巖’이라는 두 글자를 직접 써서 宣額하였다.¹¹⁾

한편, 김인후 사후 그의 둘째 아들 金從虎는 1572년(선조 5) 5월에 蔭取才로 入格하였는데, 당시 이조에서 그 내용을 증명하면서 발급한 문서가 남아 있다.¹²⁾ 이후 김종호는 1574년(선조 7) 7월에 南部 參奉에 임명된 것으로¹³⁾ 보아 음직 진출 이후 참봉(종9품)에 제수된 것으로 보인다. 1576년(선조 9) 9월에 이조에서 김종호를 장사랑(종 9품)에서 종사랑(정9품)으로 품계를 올려주면서 작성해 준 임명문서도 남아 있다. 당시 김종호가 맡고 있던 慶基殿 參奉의 임기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仕加’ 규정에 따라 품계를 한 등급 올려 준 것이었다.¹⁴⁾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마침내 김인후에 대한 추증과 증시에 대한 건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1668년(현종 9) 4월에 이조정랑 李端夏(1625~1686)가 김인후에 대한 褒贈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상소를 올린 것이다.

<표 3> 현종대 김인후의 추증과 증시

추진시기		추진내용		자료출처
1668 (현종9)	4월 13일	이조정랑 李端夏의 상소	김인후의 褒贈 요청 및 승인	
	4월 17일	追贈教旨 발급	資憲大夫 吏曹判書 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世子左賓客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문서	광3875
	11월 25일	追贈教旨 발급	김인후의 처 淑人尹氏를 貞夫人(정2품)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문서	광3876
1669 (현종10)	8월 24일	贈諡教旨 발급	‘文靖公’의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문서	광3877

1668년(현종 9) 4월 13일에 현종이 영의정 정태화 등을 引見하였는데, 이때 이조참판 閔鼎重이 이조정랑 이단하가 올린 상소의 내용을 보고하였다.¹⁵⁾ 즉, 교리 김인후와 좌랑 강항·김덕령 등 세 사람을 褒贈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그리고 贈職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계급을 올려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 사람은 名賢과 節義의 신하들이므로 특별히 超

[1662], 宣額筆巖書院[巖在先生古里麥洞洞口如筆削立額之命名以此面刻筆巖二字屏溪尹鳳九書], 因遣官致祭于本院. 特命復戶三結.

11) 『河西先生全集附錄』 권4 「年譜」; 『효종실록』 권21, 1659(효종 10) 윤3월 28일 무자.
 12) 국립광주박물관 소장(광3871), 46.5cm x 71.5cm;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20쪽.
 13) 『선조실록』 권8, 1574년(선조 7) 7월 13일 을유.
 14)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광3872, 가로 76cm, 세로 53cm.
 15) 又所啓, 以吏曹正郎李端夏上疏, 故校理金麟厚, 佐郎姜沆·金德嶺等褒贈事, 命下矣. 以贈職常規言之, 則例陞一階, 而此是名賢與節義之臣, 似當有超贈之舉矣. 趙復陽曰, 金麟厚經學行誼, 士林所宗, 爲仁宗朝講官, 最被禮遇, 仁廟升遐之後, 退居鄉村, 終身不仕, 高風峻節, 可礪後世, 如此名儒, 尙無褒贈, 誠爲欠闕, 合有別樣優贈之典. … 領議政鄭太和曰, 金麟厚與臣曾祖, 最相親熟, 故臣亦詳聞其行誼, 如此之人, 雖超品贈職, 亦可矣. 校理李奎嶺曰, 金麟厚則別爲超贈, 且令贈諡, 宜矣. 上曰, 金麟厚, 則超贈正二品, 亦令贈諡. 姜沆·金德嶺, 則超贈堂上, 可也. 『승정원일기』 1668년(현종 9) 4월 13일 신사; 『현종실록』 권14, 1668년(현종 9) 4월 13일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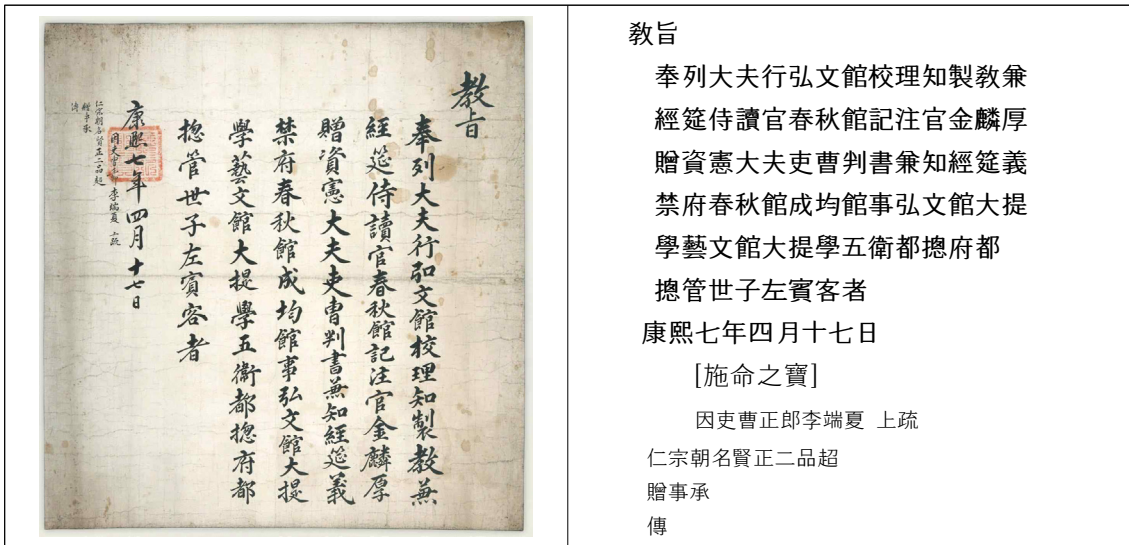
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조판서 조복양은 ‘김인후는 經學과 行誼로 士林의 宗匠이 되었으며, 인종 조 講官으로서 가장 후대받았습니다. 인종께서 승하(昇遐) 후 고향으로 물러나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으니, 高風峻節로 후세의 모범이 됩니다. 이런 名儒가 아직 포장되지 않은 것은 실로 결함이니 별도의 우대 증직이 필요합니다.’라고 褒贈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영의정 정태화는 ‘김인후는 신의 증조부와 가장 친밀히 지내셨기 때문에, 신 역시 그의 행적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분께서는 비록 超品으로 증직하더라도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교리 이규령은 ‘김인후에 대해서는 별도로 超贈하시고, 또한 贈諡를 명하심이 옳겠습니다.’라고 하여 초증에 이어 증시까지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현종은 신하들의 보고와 의견 내용에 따라 김인후를 정2품으로 한 계급 이상을 뛰어 넘어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라고 명하였다. 김인후 등 세 사람의 업적을 고려한다면 생전에 임명받았던 최종 품계보다 한 등급 이상으로 超贈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3일 후인 1668년 4월 17일자로 김인후에 追贈教旨가 발급되었고, 동년 11월 25일자로 김인후의 처인 숙인 윤씨에게도 追贈教旨가 발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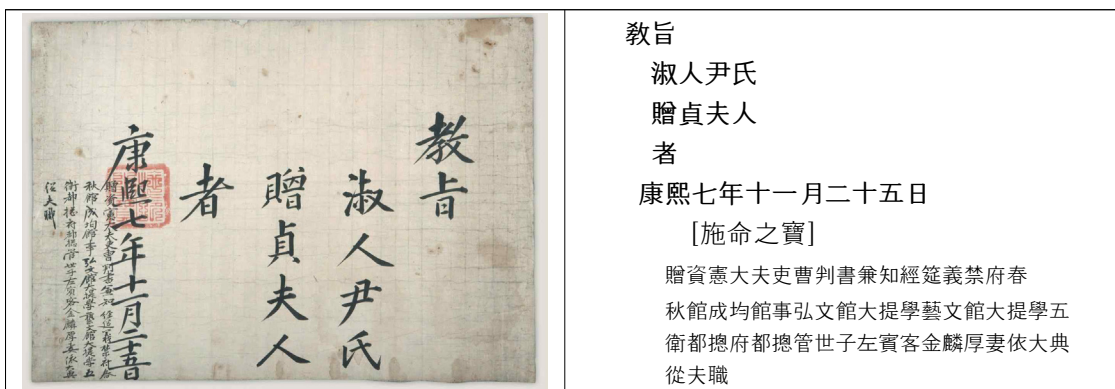
<그림 1> 1668년(현종 9) 4월 17일 김인후 추증교지¹⁶⁾

위에 제시한 그림과 같이, 1668년(현종 9) 4월 17일에 현종이 종4품 봉렬대부 김인후를 정2품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추증하면서 발급해 준 임명문서이다. 문서 형식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追贈式>에 준하여 작성 및 발급되었다. 제1행에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教旨’를 기재하고 제2행부터 추증 원인 제공자, 관계, 추증 대상자의 품계·관직·성명, 추증된 품계·관직을 기재하였다. 16세기 중반부터 추증교지의 문서 양식이 변화하여 제2행부터 추

16)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75), 90cm x 85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68쪽.

증 대상자의 품계·관직·성명과 추증된 품계·관직만을 기재하고 연호의 左傍에 추증 원인 제공자와 관계를 기재하였다.¹⁷⁾

그리고 문서의 발급일자 왼쪽 측면에 작은 글씨로 ‘이조정랑 이단하가 올린 상소에 따라 仁宗祖의 名賢 김인후를 정2품으로 超贈하는 일은 임금의(현종) 명령을 따른 것이다. (因吏曹正郎李端夏上疏 仁宗朝名賢正二品超贈事 承傳)’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곧 김인후를 왜 종4품에서 정2품으로 품계를 몇 단계 뛰어 넘어 추증하는지 대한 사유를 간명하게 요약하여 기재해 놓은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조정랑 이단하의 상소 내용을 이조에서 현종에게 보고하였고, 당시 인견한 영의정과 예조판서 등 관련 부서 및 실무자과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내용이 임명문서에 구체적인 발급사유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1668년(현종 9) 11월 25일 김인후 처 숙인윤씨 추증교지¹⁸⁾

그리고 약 7개월 후인 동년 11월 25일자로 현종이 김인후의 처 숙인 윤씨¹⁹⁾를 정부인으로 추증하였고, 당시 발급해 준 임명문서인 추증교지가 남아 있다. 문서 형식은 <追贈式>에 따라 작성 및 발급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추증의 범위 가운데 ‘죽은 아내는 남편의 관직을 따른다.(亡妻從夫職)’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발급된 사례이다. 발급일자 왼쪽에 작은 글씨로 ‘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오위도총부도총관·세자좌빈객 김인후의 처를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따른다.(贈資憲大夫吏曹判書…金麟厚妻依大典從夫職)’라고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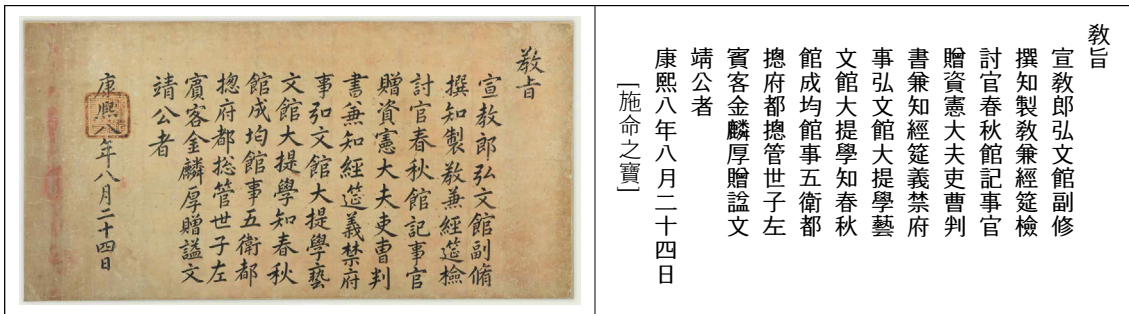
17) 『經國大典』 「禮典」 <追贈式>. “教旨. 具官某考[祖考·曾祖考同.], 具官某贈某階某職者[妣, 則稱具官某妣某氏贈某夫人者. 妻, 則稱具官某妻某氏.]. 年[寶] 月 日.”; 『大典通編』 「禮典」 <追贈式>. “[《增》今則教旨中, 只書某官某, 贈某階·某職, 年月左傍, 書某官某考, 依法典追贈.]”

추증교지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教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권유정, 「조선시대 추증 제도와 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20; 노인환, 「대한제국기 추증·시호 제도의 변화와 추증문서·시호문서 연구」, 『장서각』 4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8)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76), 55cm x 75cm;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 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8쪽.

19) 『河西先生全集附錄』 권1 「家狀」. 선생은 여흥 윤씨(驪興尹氏)를 아내로 맞았는데 통훈대부(通訓大夫) 진안 현감(鎭安縣監) 임형(任衡)의 따님이며 장원(狀元)인 달신(達莘)의 손녀이다. 2남을 낳았으니 종용(從龍)과 종호(從虎)이며, 온후하고 단정하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다.(先生娶驪興尹氏, 通訓大夫鎭安縣監任衡之女, 狀元達莘之孫. 生二男, 從龍從虎, 溫厚端重, 勤謹誠信.)

이듬해인 1669년 8월 24일자로 현종은 김인후에게 ‘文靖’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²⁰⁾ 贈諭教旨을 작성하여 발급해 주었다. 문서 형식은 <추증식>에 준하여 작성되었는데, 붉은색 종이를 사용하였다. 추증된 품계와 관직을 먼저 작성하고 이어서 ‘贈諭文靖公’이라고 하여 김인후에게 ‘문정공’의 시호를 내려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문정’에 대한 諭註 내용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1669년(현종 10) 8월 24일 김인후(文靖公) 증시교지²¹⁾

이상과 같이, 현종대 김인후에 대한 추증은 그에 대한 평가와 위상을 반영하여 超贈으로 시행하였고, ‘문정’ 두 글자로 그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여 시호를 내렸다. 즉, 도덕이 높고 건문이 넓은 것[道德博聞]을 ‘文’이라 하고, 관대하고 화락하며 제명에 편안히 죽은 것[寬樂令終]을 ‘靖’이라고 하였다.²²⁾

나. 정조대 김인후의 加贈과 改諭

현종대 김인후에 대한 추증과 증시 이후 정조대에 이르러 더 높은 층위의 평가와 위상 정립에 대한 논의는 물론 문묘종사 추진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김인후는 자헌대부 이조판서에서 의정부 영의정으로 加贈되었고, 시호 개정을 논의하여 ‘文正’으로 改諭하게 되었으며, 당대 名賢으로 문묘에 배향된 호남 유일의 대학자가 되었다.

<표 4> 정조대 김인후의 加贈과 改諭

추진시기		추진내용		자료출처
1796 (정조20)	9월 17일	追贈教旨 발급	議政府領議政으로 추증(加贈)	광3882
	9월 17일	追贈教旨 발급	議政府領議政으로 추증(加贈) *누락된 世子左賓客行務功郎守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관직명을 추가하여 재발급	광3883
	10월 일	諭號署經完議 발급	‘文正公’ 시호 임명에 대한 사간원 의 시호서경완의 ‘文正公’ 시호 임명에 대한 사헌부 의 시호서경완의	광3885 광3884

20) 『현종실록』 권17, 1669년(현종 10) 8월 24일 갑신 ; 『현종개수실록』 권21, 1669년(현종 10) 8월 24일 갑신.

21)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77), 60cm x 118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69쪽.

22) 『河西先生全集附錄』 권4 「年譜」. 道德博聞曰文, 寬樂令終曰靖.

	10월 7일	시호 개정 확정	'靖'자에 대한 시호 개정의 불가피함을 논의, 시호 서경 절차 진행 등	
	10월 16일	贈諡教旨 발급	'文正公'의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문서 *뒷면: 前承旨朴基正書 *종이: 붉은색(紅紙), 금박장식	광3886
	10월 16일	贈諡教旨 발급	'文正公'의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문서 *종이: 붉은색(紅紙)	광3887
	10월 일	追贈教旨 발급	김인후의 처 貞夫人 尹氏를 貞敬夫人(정 1품)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문서	광3888

1669년(현종 10) 김인후에게 文靖이란 시호가 내려진 이후, 1672년(현종 13)에 박세채가 행장을 찬술하였고 우암 송시열이 그의 신도비명을 지었으며, 1675년(현종 16) 김수항이 묘표를 완성하였다. 1685년(숙종 11) 12월에 박세채가 발문을 썼고, 1686년(숙종 12) 4월에 송시열이 서문을 완성하여 중간본 하서선생집이 간행되었다.

영조대에 이르러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청원하는 상소가 전라도 유생들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조대에는 8도 유생들까지 김인후에 대한 문묘종사 청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796년(정조 20) 9월 17일에 마침내 정조는 김인후에 대한 문묘종사 청원을 수용하였다.

선정신 김인후에 대한 문묘종사가 확정되자 당일날 여러 세부 진행 절차가 논의되었는데, 이 가운데 관작의 추가 추증과 시호 개정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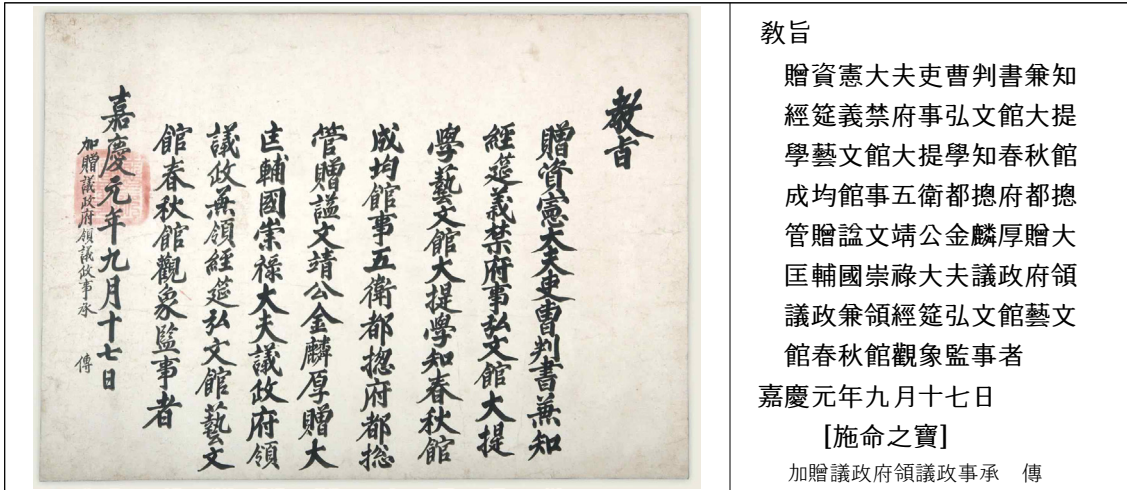
1796년(정조 20) 9월 17일자로 앞서 증직했던 이조판서에 더하여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증하였다. 이는 송시열 사례에 의거하여 추진된 것으로 당시 예조판서 민종현이 '근년의 예를 말씀드리면 병자년(1756, 영조 32)에 종향할 때 先正臣 文正公 宋時烈에게 特敎로 상상(上相)을 추증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정조는 송시열의 전례에 따라 증이조판서 文靖公 김인후에게 의정부 영의정으로 加贈하라고 명하였다.²³⁾

예조판서 민종현은 곧바로 시호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즉, 기존에 받았던 文靖의 '靖'자에 대해 김인후의 업적을 고려해 볼 때 부족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시호 개정을 위해 전현직 대신 및 지방 유신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처리하자고 정조에게 문의하였다.²⁴⁾ 이후 동년 10월 7일에 '正'자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예조판서 민종현, 좌의정 蔡濟恭, 우의정 尹馨東, 영돈녕부사 金履素, 영중추부사 金憲, 행판중추부사 李秉模 등 여러 신하들이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가지고 시호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사헌 송기찬이 시호 서경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아뢰었고, 이에 대해 정조가 시호 개정을 최종 승인하였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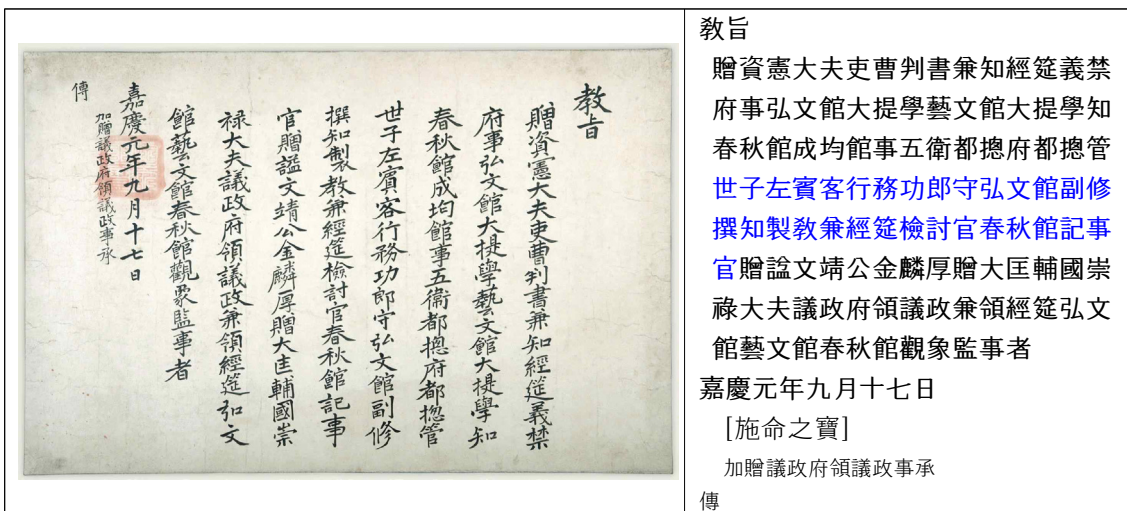
23) 上曰, 曾聞從享之先正, 道德特異者, 另贈上相云, 卿果考例以來乎? 鍾顯曰, 以近例言之, 丙子年從享時, 先正臣文正公宋時烈, 因特敎, 馳贈上相矣. 上曰, 依先正文正公宋時烈已例, 先正文靖公贈吏曹判書金麟厚, 加贈議政府領議政, 可也. 出舉條.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기미; 『일성록』 정조 20년(1796) 9월 17일 기미.

24) 鍾顯曰, 先正臣金麟厚崇報之典, 屢百年來, 實多未遑, 今以諡號中靖之一字, 伏奉聖教, 尤不勝其欽仰激感, 蓋靖字, 是寬樂令終之義, 則其於先正道學節義造詣功化, 實有摸狀不盡, 稱停有欠者, 今當聖心曠感, 亟舉盛典之日, 先正節惠中靖字, 恐不可不博詢亟改, 以光昭代尊賢崇道之典, 臣意則發遣本曹郎廳, 問議于時原任大臣及在外儒臣, 以爲及時舉行之地, 恐不可已, 故敢此, 仰達矣. 上曰, 依爲之. 出舉條.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기미; 『일성록』 정조 20년(1796) 9월 17일 기미.

이에 명종대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던 김인후에게 의정부 영의정의 품계를 추가로 추증하였다. 또한 ‘文靖’에 대한 시호 개정을 논의하여 ‘文正’으로 시호를 고쳐서 내려 주었다. 당시 김인후에 대한 加贈과 改諡 결과로 작성 및 발급된 追贈教旨 3점과 贈諡教旨 2점, 諡號署經完議 2점이 확인된다.



<그림 4>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김인후 추증교지²⁶⁾



<그림 5>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김인후 추증교지(재발급)²⁷⁾

25)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7일 기묘. 司憲府大司憲宋煥箕, 以爲螻蟻微臣, 知識微昧, 衰癯昏憤, 固不足備數於詢薏之列, 不意禮官銜命遠臨, 臣誠惶恐震駭, 罔知攸措, 顧何敢僭易仰對於清問之下乎? 第竊惟先正臣金麟厚之文廟從祀, 諡號改議, 有以仰觀大聖人所作爲, 出尋常萬萬, 臣不勝欽服之至云矣. 大臣·儒臣之議如此, 上裁, 何如? 傳曰, 依僉議, 可也.

26)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82), 64cm x 89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2쪽.

27)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82), 68cm x 104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3쪽.

위 사례는 1796년(정조 20) 9월 17일에 정조가 김인후의 문묘종사에 대해 최종 승인한 당일날 작성하여 발급한 追贈教旨이다. 문서 형식은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추증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발급일자 왼쪽에 작은 글씨로 ‘의정부영의정으로 가증하는 일은 임금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加贈議政府領議政事承傳)’라고 하여 발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정조는 예전에 선정신 가운데 도덕이 특출한 자에게 上相의 벼슬을 추증한 사례가 있는지 예조판서 민중현에게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선정신 문정공 송시열에 대한 추증이 특교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김인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행도승지 黃昇源이 정조가 지시한 추가 추증을 위해 인사 담당자를 패초하여 인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²⁸⁾ 그리하여 같은 날 김인후에게 의정부영의정의 관작을 추가로 추증한다는 인사 행정이 있었고,²⁹⁾ 그 결과 위에 제시한 추증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그런데 김인후를 의정부영의정에 加贈한 추증교지 1점이 더 남아 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형식의 추증교지를 추가로 발급한 사유는 이전에 추증했던 관직명 가운데 ‘世子左賓客行務功郎守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락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누락된 이전의 추증 관직을 추가하여 다시 발급한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p>諡號 道學博聞曰文 贈領議政 金麟厚 文正公 以正服之曰正 嘉慶元年十月 日出 [司諫院印] 正言 尹[着名][着押] 行大司諫 閔[着名][着押] 司諫 李[着名][署押] 獻納 正言</p>
	<p>諡號 道學博聞曰文 贈領議政 金麟厚 文正 以正服之曰正 嘉慶元年十月 日出 [司憲府印] 掌令 鄭 [着名][着押] 持平 大司憲 執義 宋 [着名][着押] 掌令 持平</p>

<그림 6> 1796년(정조 20) 10월 사헌부와 사간원의 시호서경완의³⁰⁾

28)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기미. 昇源曰, 先正臣文靖公, 贈吏曹判書金麟厚, 加贈議政府領議政事, 命下矣. 政官牌招開政, 以爲贈職下批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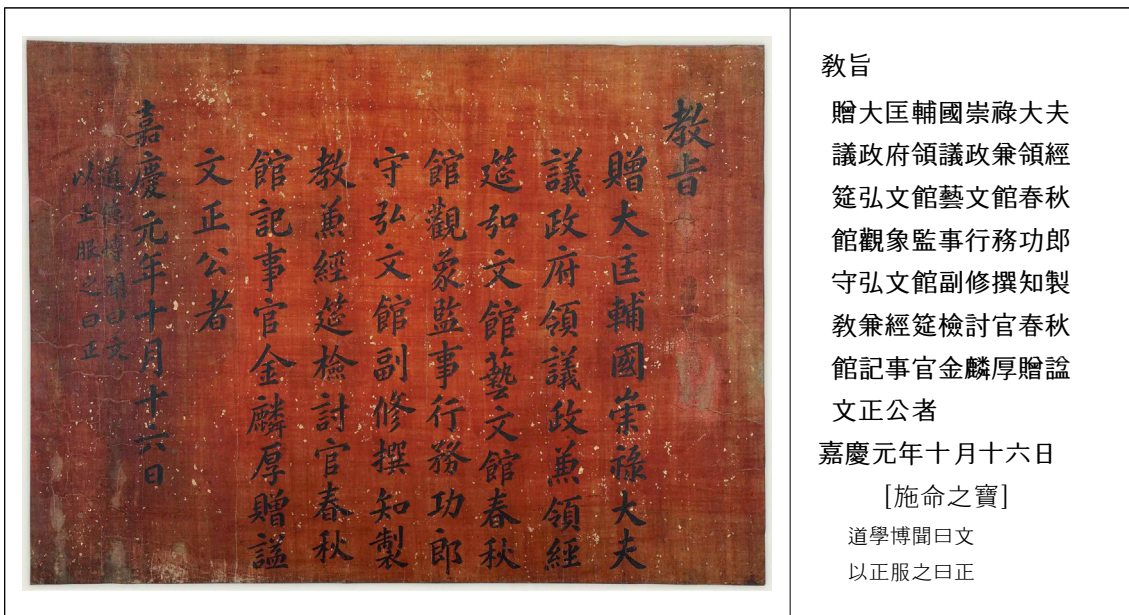
29)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기미. ○有政. 吏批, 判書金載瓚進, 參判洪明浩, 參議成德雨, 牌不進, 右承旨金祖淳進. … 贈吏判文靖公金麟厚, 加贈領議政事, 承傳.

30)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85/광3884), 57cm x 87cm/57cm x 83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7쪽.

다음으로 김인후에 대한 문묘종사 추진이 확정된 이후 시호 개정에 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최종 심의 결과를 의미하는 시호서경완의가 남아 있다. 발급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증시교지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¹⁾

문서 내용은 시호를 받는 대상자의 최종 관직, 성명, 시호 및 시주, 발급일자, 담당 부서의 소속 관원 및 결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급 일자 말미에 작은 글씨로 ‘出’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호 서경 절차를 완료하여 문서를 출급한다는 의미이다. 시호서경완의 발급 시기는 앞뒤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10월 7일 또는 이후 일정일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7일에 여러 신하들이 시호 개정 의견을 최종적으로 개진하였고, 대사헌 송기찬 또한 시호 서경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쳤다고 정조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다.³²⁾

동년 10월 16일에 김인후에게 ‘文正’으로 개정한 시호를 내린다는 인사 행정이 이루어졌다.³³⁾ 이에 따라 김인후의 시호를 ‘도덕이 있고 건문이 넓은 것을 文이라 하고 정도로 남을 승복시킨 것을 正이라 한다.(道德博聞曰文 以正服人曰正)’³⁴⁾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증시교지를 발급하였다.



<그림 7> 1796년(정조 20) 10월 16일 김인후(文正公) 증시교지³⁵⁾

31)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贈諡 행정」, 『고문서연구』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77-78쪽. “서경과 시호교지 발급의 선후관계도 분명치 않다. 다만 왕조실록, 문집류, 증시교지·시호서경완의 등 고문서를 종합해 보면 시호교지를 우선 발급한 뒤에 시호서경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하여 사례마다 절차의 선후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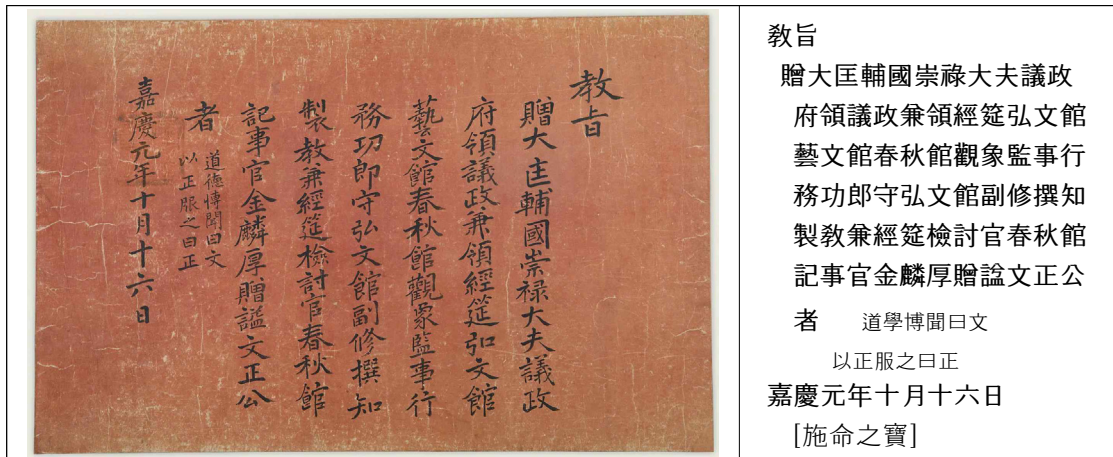
32)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7일 기묘.

33)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16일 무자. ○有政. 吏批, 判書沈煥之, 參判黃昇源, 參議韓用龜, 行都承旨李鼎揆進. 以金麟采爲司藝, … 贈領議政金麟厚爲文正, … 行判尹韓師直爲靖惠.

34) 『일성록』 1796년(정조 20) 10월 16일 무자. ; 『河西先生全集附錄』 권4 「年譜」.

35)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86), 68cm x 100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4-175쪽.

1796년 10월 16일자로 발급한 증시교지는 2점이 확인되는데 형식적으로 크게 구분되는 점은 위에 제시한 증시교지처럼 붉은색 종이에 금박 장식으로 꾸민 것과 문서 뒷면에 해당 증시교지를 작성한 담당자 정보가 ‘前承旨朴基正書’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전하는 증시교지 사례를 살펴보면 붉은색 종이에 금박으로 장식한 경우는 대부분 해당 집안에서 직접 종이를 마련하여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 최종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³⁶⁾



<그림 8> 1796년(정조 20) 10월 16일 김인후(文正公) 증시교지³⁷⁾

다른 하나는 붉은색 종이를 사용하였고 앞서 살펴본 사례보다 크기가 약간 더 작은 편이다. 기재된 내용은 동일하며 諡註에 대한 기재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즉 본문 내용과 연결하여 쌍행으로 작성하거나 발급일자 부분에 별도로 기재하는 등 사례마다 차이가 있을 뿐, 문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다. 기존에는 금박 장식 사례가 정조의 명의로 정식으로 발급한 시호교지이고 크기가 약간 작은 증시교지는 분황교지 사례로 추측하였으나³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현전하는 분황교지의 경우, 대부분 크기가 훨씬 더 작은 형태이고 종이 색 또한 누런 황색을 띄고 있다.

따라서 김인후의 시호를 ‘文正’으로 개정하면서 발급한 증시교지 2점 가운데 금박 장식이 없는 사례가 정조의 명의로 인사 부서에서 발급한 것이고, 금박 장식이 있는 사례는 김인후 종가에서 증시교지용으로 특별히 제작하여 인사 부서에서 확인하고 발급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례는 대한제국기 사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³⁹⁾

36) 필자가 박병호 전회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종이를 직접 마련함은 물론 좋은 글씨를 받기 위해 로비를 하는 등 시호교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후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막대했다고 한다.(김학수, 위의 논문, 78쪽, 각주25번 재인용)

37)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87), 59cm x 91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6쪽.

38)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6쪽 도판해설 참조.

39) 시호교지에 사용하는 종이는 붉은색으로 염색한 上品의 沓文紙나 진홍색에 금색을 뿌린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였다. 시호 대상자의 후손이 시호교지의 종이를 직접 마련하였기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화려한 금박 장식의 종이를 마련하였다. 노인환, 「대한제국기 추증·시호 제도의 변화와 추증문서·시호문서 연구」, 『장서각』 4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1, 144쪽 ;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贈諡 행정」, 『고문서연구』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78쪽.

최종적으로 증시교지가 발급되기까지 시호 논의 및 확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왕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김인후에 대한 증시 사례 또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行狀 작성 → 諡狀 작성 및 예조 제출 → 諡狀 검토 및 奉常寺 이관 → 홍문관 이송 및 시호 三望 논의 → 홍문관 시호 삼망 결정 → 의정부 삼망 및 시장 서경 → 이조 보고 → 의정부 이관 → 국왕 보고 및 재가 → 사헌부와 사간원 시호 서경 → 宣諡 및 延諡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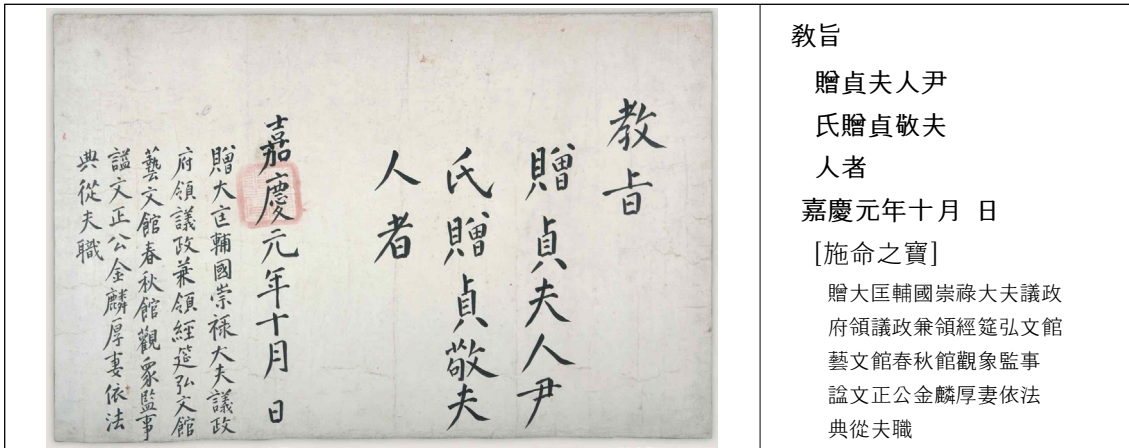
시호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시 대상자의 생전 이력과 그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행장이고 행장을 바탕으로 시장의 내용을 작성하게 된다. 김인후의 행장은 1672년(현종 13) 10월에 朴世采가 쓴 行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인후의 시장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시장의 내용을 근거로 시호 삼망 및 국왕의 재가, 양사의 서경을 마친 다음에 증시교지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최종 발급하였을 것이다.

<표 5> 현종대와 정조대 김인후의 追贈와 贈諡

구분	현종대 贈諡(1669)	정조대 改諡(1796)
諡號	文靖	文正
諡註	道學博聞曰文 觀樂令終曰靖	道學博聞曰文 以正服之曰正
追贈	정2품 超贈	정1품 加贈
	資憲大夫史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 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世子左賓客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行務功郎守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 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김인후에 대한 추가 증직과 시호 개정이 완료되고 곧바로 그의 처인 정부인 윤씨에게도 남편의 관직에 따라 정1품 정경부인의 추증이 이루어졌다. 문서 형식은 <추증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발급 일자 왼쪽에 작은 글씨로 추증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대광보국송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홍문과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로 추증된 김인후에게 문정공의 시호를 내리니, 그의 처 또한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발급 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증시교지가 1796년 10월 16일자로 발급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그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40) 조선시대 증시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贈諡 행정」, 『고문서연구』23, 한국고문서학회, 2003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림 9> 1796년(정조 20) 10월 김인후 처 정부인 윤씨 추증교지⁴¹⁾

3. 국왕의 致祭와 致祭文

일반적으로 죽은 이를 위해 제사를 지낼 때 고인을 애도하며 지은 글을 祭文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임금이 지은 제문을 致祭文 또는 賜祭文이라고 하였다. 致祭는 국가에서 왕족이나 대신, 국가를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祭文과 祭物을 갖추어 지내주는 제사이다.⁴²⁾

치제 의식은 세종대에 그 규정이 마련되었다.⁴³⁾ 일찍이 貳師를 지낸 경우 功관을 보내어 弔祭하였고, 文官·武官·蔭官으로서 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자, 정3품으로서 觀察使·府尹·兵使를 지낸 자, 嘉善 同知中樞府事로서 水軍節度使나 摠管·同知敦寧府事를 지낸 자, 그리고 文臣으로서 侍從을 지냈거나 戊申으로서 閫帥를 지낸 자, 음관으로서 都正을 지내고 동지중추부사를 한 자를 치제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⁴⁴⁾

일반적인 제사와 달리 국왕의 致祭는 주체인 국왕과 치제 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관계 못지않게 정치적 동기와 배경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국왕이 직접 지은 致祭文에는 국왕과 대상 사이의 관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이다. 공훈에 대한 褒獎과 상호 관계에서 유발하는 국왕의 개인적 감정이 함께 담긴 것이 치제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김인후에 대한 치제는 국왕이 陵行할 때 특별히 치제한 사례와 先正臣을 문묘에 배향할 때 치제한 사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당시 어떠한 배경과 목적에서 치제를 하였고 현전하는 치제문은 어떠한 특징과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사례를 보면, 정조대 치제문 및 발문 4점, 순조대 치제문 1점, 철종대 치제문 1점 등 총 6점이 확인된다. 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88), 68cm x 105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9쪽.

42)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88쪽.

43) 『세종실록』 권11, 1421년(세종 3) 4월 12일 갑진.

44) 『大典會通』 「禮典」 <致祭>. 《續》曾經貳師則遣宮官弔祭[《增》香祝由闕門東挾出去]. ○文·武·蔭曾經二品以上實職者, 弔祭[正三品曾經觀察使·府尹·兵使及嘉善同樞曾經水軍節度使者, 曾經摠管·同敦寧者, 一體弔祭, 觀察使·府尹·兵馬節度使雖未及赴任亦許弔祭西班同樞及承襲君無履歷者, 則否《增》文臣曾經侍從, 武臣曾經帥, 蔭官曾經都正爲同知者, 亦許弔祭].

45) 박용만, 「정조의 치제문과 통치활동에 대한 고찰-장서각 소장 치제문을 중심으로-」, 『장서각』 4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1, 90-91쪽.

<표 6> 김인후에 대한 국왕의 치제와 치제문

추진시기		추진내용		자료출처
1786 (정조10)	2월	先正金麟厚致祭祭文 발급 (陵行 致祭)	정조가 효릉참봉에 제수된 金直休에게 직접 작성하여 내린 별도의 제문	광3895
	4월 4일	致祭文 발급 (陵行 致祭)	정조가 文靖公 김인후 靈前에 내린 치제문 *禮官 파견: 左副承旨 朴天行	광3879
1789 (정조13)	仲春	御筆別本祭文 跋文 작성	김인후의 9대손 金直休가 정조가 별도로 지어준 제문에 대한 내력을 발문으로 기록해 놓은 문서	광3880
1796 (정조20)	11월 6일	致祭文 발급 (文廟從祀 致祭)	정조가 文正公 김인후 靈前에 내린 치제문 *禮官 파견: 左副承旨 李勉兢	광3890
1828 (순조28)	10월 24일	致祭文 발급 (陵行 致祭)	왕세자가 김인후 靈前에 내린 치제문 *禮官 파견: 禮曹佐郎 林原培 *효명세자 대리청정기(1827.2.~1830.5.)	광3893
1855 (철종6)	10월 11일	致祭文 발급 (陵行 致祭)	철종이 김인후 靈前에 내린 치제문 *禮官 파견: 綾州牧使 李秉禮	광3894

가. 陵行 치제와 치제문

1786년(정조 10) 2월 25일에 정조는 孝陵⁴⁶⁾과 禧陵⁴⁷⁾을 찾아 展謁하였다. 그리고 聖后와 聖祖의 지극히 아름답고 큰 덕을 펴고 옛날 신하들의 자손을 채용하는 은전을 베풀기 위해 옛 신하들의 후손을 특별히 등용하라고 명하였다. 즉, 정조는 옛 儒臣 김인후와 인종 임금의 만남은 세상에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날을 잡아 치제하도록 하였고, 그 후손에 대해서는 당일 인사 행정 때 효릉 참봉 후보자 명단에 추가하라고 명하였다.⁴⁸⁾

정조는 당시 김인후의 9대손 金直休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당일 효릉 참봉 擬望에 후보자로 넣으라고 한 것이었다.⁴⁹⁾ 그리하여 당일에 김직휴는 효릉참봉 3인의 후보자로 결정되었고, 정조는 삼망 가운데 그를 낙점하여 효릉참봉으로 임명하였다.⁵⁰⁾ 그리고 3일 뒤인 동년 2월 28일에 정조는 誠正閣에서 수령들의 하직인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효릉참봉 김직휴도 입시하여 정조와 하직인사를 나누었다. 정조는 김직휴에게 나이와 先儒臣 김인후의 몇 대손인지에 대해 물었으며, 효릉참봉에 제수한 깊은 뜻을 언급하며 제문을 친히 지어서 내려 줄 것이니 내려갈 때 직접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⁵¹⁾

46)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에 있는 조선 제12대 인종과 정비 인성왕후 박씨의 쌍릉.

47)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조선 제11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무덤.

48) 『정조실록』 권21, 1786년(정조 10) 2월 25일 기해. ○己亥/謁孝陵, 行酌獻禮, 仍謁禧陵. 教曰: "今日拜陵, 不可無伸誠錄舊之舉. … 故儒臣金麟厚契遇, 可謂曠絕千古. 亦令卜日致祭, 其子孫, 今日政, 本陵參奉擬入."

49) 『일성록』 1786년(정조 10) 2월 25일 기해. … 因此思之, 故儒臣金麟厚契遇, 可謂曠絕千古. 本陵展謁之後, 豈可無示意之舉? 亦令該曹, 卜日致祭. 其子孫聞今在京云, 今日政, 本陵參奉窠擬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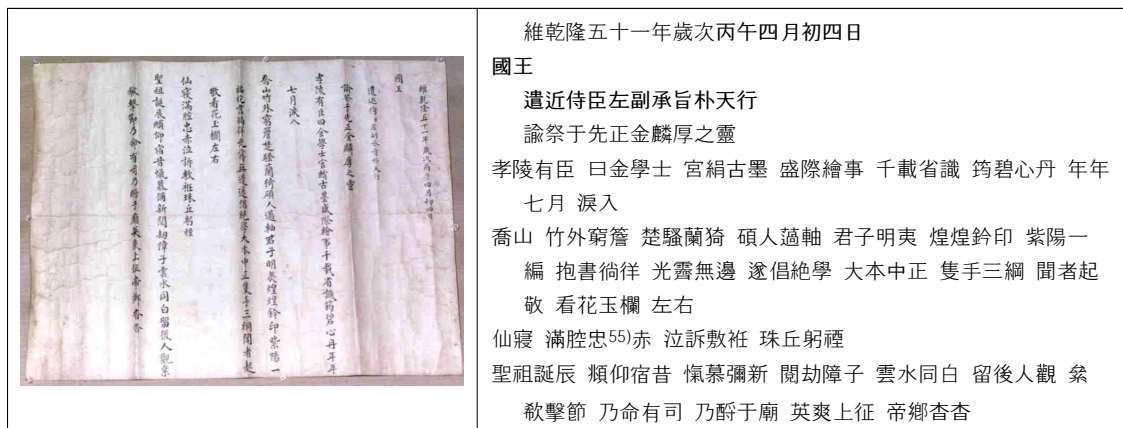
50) 『승정원일기』 1786년(정조 10) 2월 25일 기해. ○有政. 吏批, 行判書金魯鎮進, 參判李秉模式暇, 參議金宇鎮未肅拜, 行都承旨金尙集進. 以金直休爲孝陵參奉, 鄭觀采爲坡州牧使. ; 『일성록』 동일 기사.

51) 『승정원일기』 1786년(정조 10) 2월 28일 임인. ○丙午二月二十八日巳時, 上御誠正閣. 都承旨與下直守令入侍時, … 上曰, 孝陵參奉入侍. 賤臣承命出, 與孝陵參奉, 偕入進伏. 上曰, 汝年, 幾何? 直休曰, 五十一歲矣. 上曰, 汝於先儒臣金麟厚, 爲幾代孫乎? 直休曰, 九代孫矣. 上曰, 汝祖之年年七月夜痛哭萬山中之詩, 予嘗悲之, 故今此特除汝職, 意有在矣. 致祭祭文, 當親撰以下, 汝下去時陪往, 可也.

다음날 정조는 어가 행차 중에 상언 150여 통에 대해 결재하였는데, 그 가운데 전라도 진사 李敬緝이 고암 양자징을 필암서원에 배향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 지난 숙종 정축년부터 호남의 선비들이 청원했던 사안이나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성상께서 재량해 달라고 여쭙었다. 이에 정조는 "그가 선정의 사위로 선정의 학문의 정통을 이어받았고 또 여러 선정들의 문하에 출입하였으니, 배향하더라도 의리상 안될 것이 없다. 더구나 선정의 집안에 이제 막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또 그의 후손을 채용하라고 명하였으니, 이때에 이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므로 허락한다."⁵²⁾라고 하였다.

김인후의 9세손 김직휴가 효릉 참봉에 제수되고 연이어 그의 사위 양자징을 필암서원에 배향하게 된 일이 정조에게는 우연히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인연이자 조치였던 것이다. 이에 곧바로 김인후 본가에 치제하기 위해 직접 파견할 예관을 정하였다. 동년 3월 3일에는 致祭單子를 가지고 갈 예관을 승지로 정하였고,⁵³⁾ 동년 3월 26일에는 승지 가운데 좌부승지가 김인후 본가에 직접 치제 예관으로 참석하도록 명하였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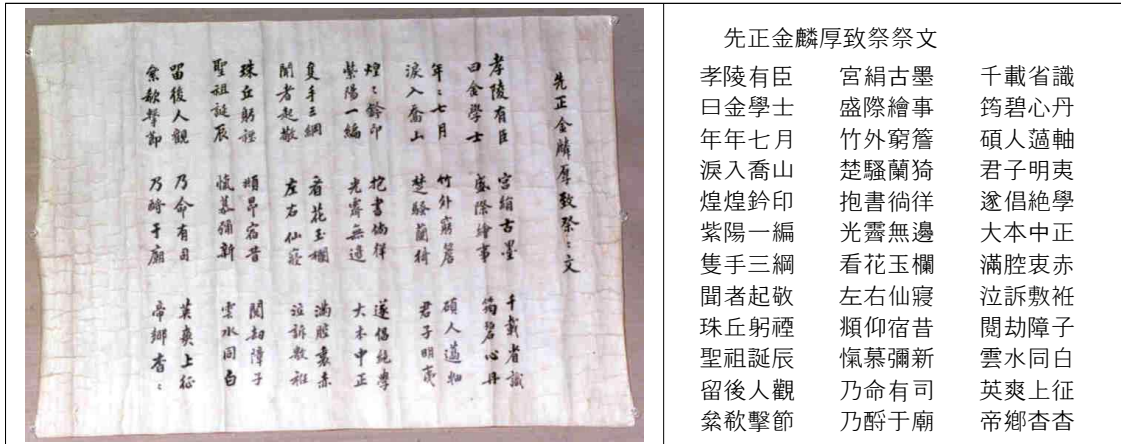
당시 정조가 직접 제문을 지어 치제하도록 하였고 김인후 본가에 직접 파견할 예관까지 모두 정하였다. 그리하여 1786년(정조 10) 4월 초4일자로 작성된 정조의 치제문이 장성 김인후 본가에 내려졌다.



<그림 10> 1786년(정조 10) 4월 4일 정조가 내린 치제문⁵⁶⁾

- 52) 『정조실록』 권21, 1786년(정조 10) 2월 26일 경자. ○判下輦路之上言一百五十餘度. … "全羅道進士李敬緝等上言: "故縣監梁子澂, 卽己卯名賢山甫之子. 受業於先正臣金麟厚, 麟厚大奇之, 以女妻之. 遂專意學問, 造詣日深, 爲先正臣李滉、李珥、成渾諸人所推許, 而鄉人以孝聞于朝, 拜居昌、石城兩邑宰. 其後先正臣宋時烈, 撰狀稱揚, 而尙闕俎豆之享. 若於麟厚之祠, 以此配食, 何異考亭之勉齋乎?" 下禮曹, 禮曹言: "粵自肅朝丁丑, 湖南章甫, 請以子澂, 配食於筆巖書院, 而迄今未施者, 已是士林之抑鬱. 請上裁." 教曰: "以先正之女壻, 接先正之嫡傳, 又出入諸先正之門, 許令配食, 義無不可. 況於先正家, 纔親撰祭文賜祭, 又命錄後. 此時此舉, 事不偶然. 許之."
- 53) 『승정원일기』 1786년(정조 10) 3월 3일 정미. ○以禮曹故儒臣金麟厚家致祭單子, 傳于沈豐之曰, 承旨進去.
- 54) 『승정원일기』 1786년(정조 10) 3월 26일 경오. ○趙衍德啓曰, 故儒臣金麟厚家, 遣承旨致祭事, 禮曹單子, 啓下矣. 何承旨進去乎? 敢稟. 傳曰, 左副承旨進去.
- 55) 『하서선생전집』에는 '衷'자로 기재되어 있다.
- 56)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79), 51cm x 66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 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26-127쪽.

치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조가 近臣 좌부승지 朴天行⁵⁷⁾을 보내어 선정신 김인후의 영전에 치제한다는 내용이 서두에 쓰여 있다. 이어서 정조가 직접 지은 제문의 본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현전하는 치제문 가운데 ‘先正金麟厚致祭祭文’이라는 제목으로 위 치제문의 본문(孝陵儒臣~)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례 한 건이 더 확인된다.



<그림 11> 1786년(정조 10) 정조의 친필 치제문⁵⁸⁾

제시한 도판과 같이, ‘선정신 김인후를 치제하는 제문(先正金麟厚致祭祭文)’이라고 제목을 쓰고 제문의 본문 내용은 네 글자씩 구분하여 4언 절구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앞서 2월 26일에 정조가 양자징을 필암서원에 배향하는 일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가운데 본인이 직접 제문을 지어 치제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2월 28일 효릉참봉에 제수된 김직휴와 하직인사를 나누면서 정조가 친히 제문을 지어서 줄 것이니 내려갈 때 모셔 가라는 내용으로 보아 정조가 직접 짓고 작성해 준 치제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고문서 사례 한 건이 더 존재한다. 바로 ‘御筆別本祭文跋’이라고 쓰여진 발문 한 장이다. 이 발문은 1789년(정조 13) 2월(仲春)에 金直休가 작성한 것이다. 1786년 2월 28일에 김직휴가 효릉참봉으로서 하직인사를 올릴 때 정조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어필별본제문발(御筆別本祭文跋)

병오년(1786, 정조10) 2월, 제가(신 직휴) 새로 효릉참봉에 제수되어 곧바로 입시하였을 때, 외람되게도 세 차례나 어전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사옵습니다. 임금께서 소신 집안의 옛 일에 대해 물으셨고, 거의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숙배하고 하직였습니다.

상께서 "지금 선정 신하(하서 김인후)를 치제하기 위해 신하를 보내려고 하는데, 제문은 내가 친히 지은 것이다." 하시고, 친히 香案에서 한 자 크기의 종이를 내리시어 承宣에게 읽게 하시며 소신으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신이 그 제문을 받도록 명하였는데, 바로 제문의 등본(謄本)이었습니다.

57) 박천행(朴天行, 1730~1791) : 본관은 밀양(密陽), 자(字)는 여건(汝健)이다. 1774년(영조50) 45세의 만학으로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의 문학·사서·필선, 사헌부의 지평·장령·집의, 흥문관의 부수찬·수찬·부응교·교리·부응교·응교, 승정원의 동부승지·좌부승지, 사간원의 대사간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안동대도호부사를 역임하였다.(『하서선생전집』 국역본)

58)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95), 47.5cm x 66.5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26-127쪽.

상께서 "인조조 때 내려준 墨竹圖는 어디에 보관하였느냐?" 하시니, 소신이 궤에 담아 봉안하고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상께서 "이 제문은 특별히 네 선조에게 먼저 내리는 것이니, 짐의 뜻이 있음을 알라." 하셨습니다. 소신이 감격을 이기지 못해 두 손으로 받들어 절한 뒤 고향으로 모시고 돌아와, 목죽도를 모신 궤자 속에 보배로이 보관하였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무신년(1788, 정조12) 겨울, 소신이 윤대관(輪對官)으로 입시하였습니다.

상께서 "지난번에 하사한 별본 제문은 어디에 보관하였느냐?" 하시니, 소신이 머리 조아려 아뢰기를, "삼가 목죽도 궤자 속에 모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상께서 "오호라!."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소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말 입니까! 두렵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삼가 위와 같이 기록하옵니다. 이는 참람함을 더할 뿐이옵니다.

기유년(1789년) 2월, 소신 김직휴는 두 손 모아 머리 조아려 삼가 발문을 쓰나이다.

김직휴는 1786년(정조 10) 2월 28일에 새로 제수된 효릉참봉으로서 정조와 직접 대면하여 하직인사를 나누었다. 이후 2년 뒤인 1788년(정조 12) 2월 11일에는 禮賓奉事⁵⁹⁾ 김직휴가 輪對官으로서 입시하여 정조와 직접 대면하여 해당 업무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난 뒤에 정조와 목죽도 보관 내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⁶⁰⁾

	<p>御筆別本祭文跋 丙午二月 臣直休以新除 孝陵 卽入侍時 猥蒙恩數三次進 伏詢及臣 家故事 幾半餉 及拜辭 上曰 今方遣臣致祭于先正 祭文親製也 因自 香案上降一尺紙 命承宣讀而聽之臣因 命賜之臣乃祭文謄本也 上曰 仁廟朝內賜墨竹藏于何處 臣對曰 櫝而奉之 上曰 此祭文特於汝先賜之 予有意在焉 汝其 知之 臣不勝感激雙擎百拜奉還鄉第寶 櫝于墨竹櫝子中 越二年戊申冬臣以輪對 官入侍 上曰 頃年所賜別本祭文藏于何處 臣拜稽首 而對曰 敬奉于墨竹櫝子中 上曰 唯於戲臣以何人蒙人此異數惶恐感泣 畧識如右 尤增僭越之罪 己酉仲春 臣金直休拜手稽首謹跋</p>
--	---

<그림 12> 1789년(정조 13) 2월(仲春) 金直休가 작성한 御筆別本祭文跋⁶¹⁾

이러한 내용이 『승정원일기』 등 관찬 사료에서도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김직휴가 직접 기록해 놓은 발문을 통해 당시 정조를 직접 만나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김인후 종가에 해당 치제문과 어제제문 등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거쳐 작성 및 발급되었으며, 원본 자료를 어떻게 지금까지 보관해 왔는지에

59) 『승정원일기』 1787년(정조 11) 12월 22일 을묘. ○都政. 吏批. … 金直休爲禮賓奉事, … .

60) 『승정원일기』 1788년(정조 12) 2월 11일 갑진. ○戊申二月十一日卯時, 上御熙政堂. 吏房承旨與輪對官入侍時, … 禮賓奉事金直休, … 上曰, 爾於西河, 爲幾代孫乎? 直休曰, 九代孫矣. 上曰, 爾家尚有墨竹乎? 直休曰, 尙有傳來者矣.

61)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80), 76cm x 50.5cm.

대한 문서의 전래 경위를 관찬사료와 김인후 종가에 남아 있던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황윤석(1729~1791)의 『이재난고』를 살펴보면, 당시 정조와 김직휴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즉, 정조가 직접 지은 제문을 김직휴에 전달하였으나 당일 오후에 승정원에서 급하게 찾아와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어제제문의 초본과 改本으로 구분하여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제문의 수정 사항 또한 자세히 파악해 볼 수 있다.⁶²⁾

또한 정조가 직접 지어준 치제문은 후대에 편찬 및 간행된 『列聖御製』⁶³⁾와 『弘齋全書』⁶⁴⁾에도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치제문의 위상과 사료적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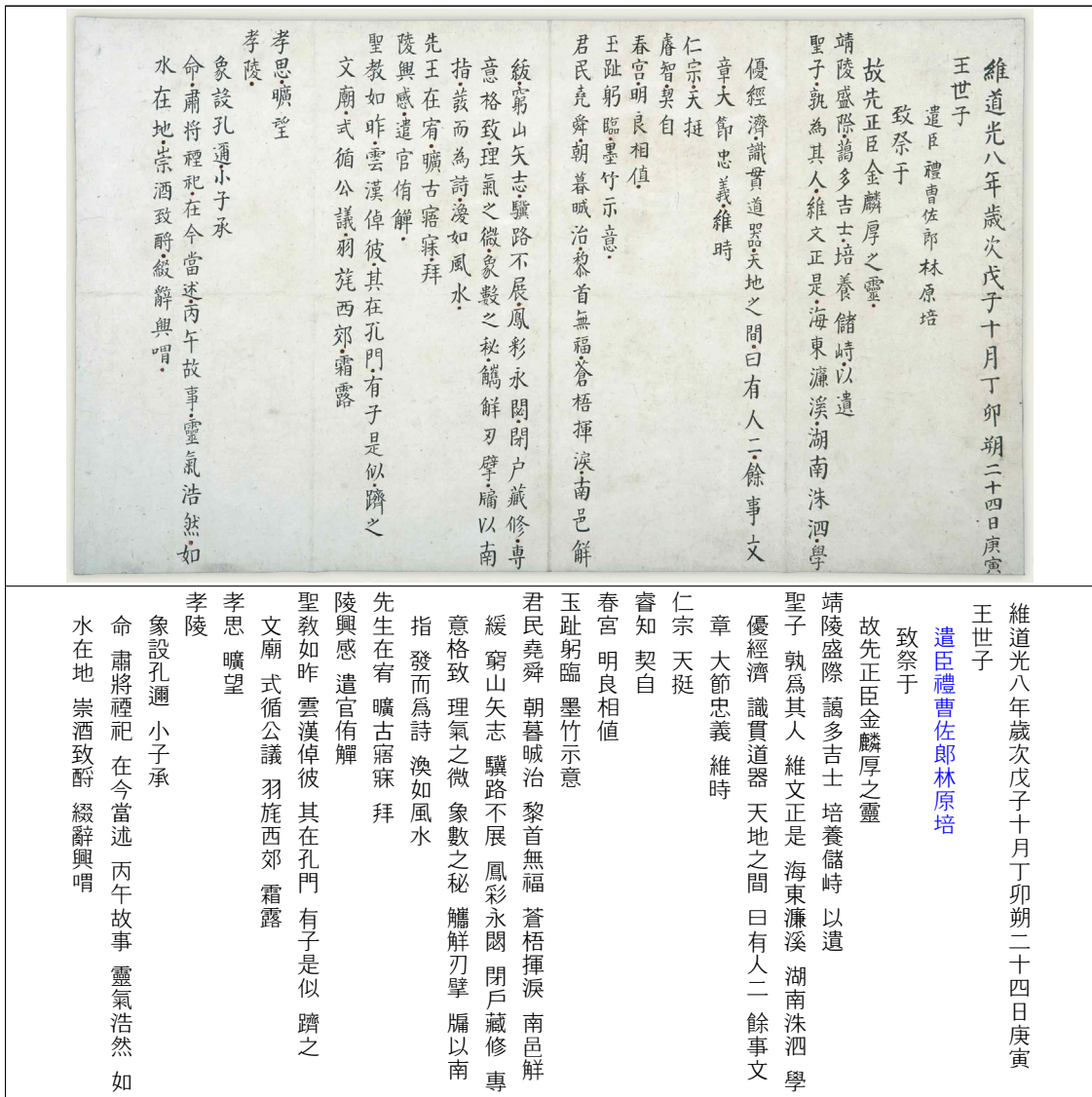
정조대 이후 김인후에 대한 치제를 확인할 수 있는 2건의 치제문 사례가 함께 남아 있다. 하나는 1828년(순조 28)에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왕세자(효명세자)가 김인후의 영전에 치제하면서 내려준 것이고,⁶⁵⁾ 다른 하나는 1855년(철종 6)에 철종이 김인후의 영전에 치제하면서 내려준 사례이다.

62) 당시 수정된 제문의 내용과 의미, 황윤석이 왜 이러한 기록을 남겼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63) 『열성어제』 권49 「정종대왕○文」 <先正文靖公金麟厚致祭文>.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K4-14). 1865년(고종 2)에 鄭元容(1783~1873) 등이 왕명으로 간행한 책이다. 금속활자본(顯宗實錄字)이고 113권 58책으로 편찬하였다.

64) 『홍재전서』 권21 「祭文」 <先正文靖公金麟厚致祭文>.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K4-5699).

65) 왕세자가 대리청정기에 발급한 치제문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88-195쪽 참조.



<그림 13> 1828년(순조 28) 10월 24일 왕세자가 내린 치제문⁶⁶⁾

1828년 9월 9일에 왕세자가 明陵⁶⁷⁾으로 幸行하여 親祭를 행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의례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기 전에 왕세자는 특별히 병오년(1786, 정조10)의 선례에 따라 선정신 김인후의 사판에 날을 정하여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라고 하였다.⁶⁸⁾ 이에 동년 10월 24일자로 왕세자가 예조좌랑 林原培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한 것이다.

66)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93), 48.5cm x 83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88쪽.

67) 조선 제19대 국왕 숙종과 제1계비 인현왕후 여흥민씨의 합장릉 및 제2계비 인원왕후 경주김씨의 능.

68) 『순조실록』 권30, 1828년(순조 28) 9월 9일 병오 ; 『승정원일기』 1828년(순조 28) 9월 9일 병오.

○戊子九月初九日卯時, 大駕詣明陵親祭幸行, 王世子陪參入對時, … 令書令旨曰, 俄考日省錄, 則先朝丙午年兩陵展謁後, 有坡原府院君, 先正臣金麟厚祠板致祭之舉, 可以仰聖意也. 在今日繼述之道, 不可無示意之舉, 坡原府院君祠板, 明日遣承旨致祭, 先正臣金麟厚祠板, 令該曹, 卜日遣禮官致祭, 可也.

1919년에 간행된 『河西先生續集』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당시 왕세자가 선정신 김인후의 사판에 치제한 내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문집에는 1828년(순조 28) 10월 24일에 왕세자가 내린 치제문은 ‘賜祭文’으로 수록되어 있고, 능행 치제한 내력을 주석 형식으로 수록하여 밝혀 놓았다.

예문관 제학 李是遠이 製述하였다.

순조 무자년(1828)에 翼宗이 대리청정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 孝陵에 참배했을 때 《日省錄》을 보니, 先朝 丙午년에 두 능(희릉·효릉)을 참배한 뒤 先正臣 金麟厚의 祀版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어 선왕의 뜻을 엿볼 수 있도다. 오늘날 이를 계승하는 도리에 마땅히 뜻을 보여야 하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날을 가려 禮官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고 하셨다.⁶⁹⁾

위 내용을 통해 당시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왕(순조)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맡고 있던 왕세자의 명의로 치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치제문은 예문관 제학 이시원이 지었음을 알 수 있고, 치제단자로 보고한 이후에 왕세자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식으로 치제문을 발급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철종 또한 능행 치제 사례로 1855년(철종 6) 8월 6일에 철종은 禧陵에서 친제를 행하고 孝陵을 展謁하였다.⁷⁰⁾ 그리고 곧바로 정조대에 褒崇했던 사례와 같이 領相 김인후의 사판에 치제하라고 명하였으며, 道內的 질 높은 수령을 예관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철종이 능행 치제한 내력은 『河西先生續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지제교 李崙夏가 짓다.

철종 을묘년(1855) 8월 6일 長陵⁷¹⁾과 孝陵에 幸行하였다. 전교하였다. “나의 추모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간절하다. 백세의 감회를 온 나라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김 문정공(金文正公)의 고아한 충정과 우뚝한 지조에 대해서는 이미 정묘조(正廟朝)에서 포송(褒崇)하는 하교가 있었으니, 오늘날에 어찌 감회를 부치는 일이 없겠는가. 영상(領相) 김인후(金麟厚)의 사판(祠版)을 세우고 도내(道內)의 질(秩)이 높은 수령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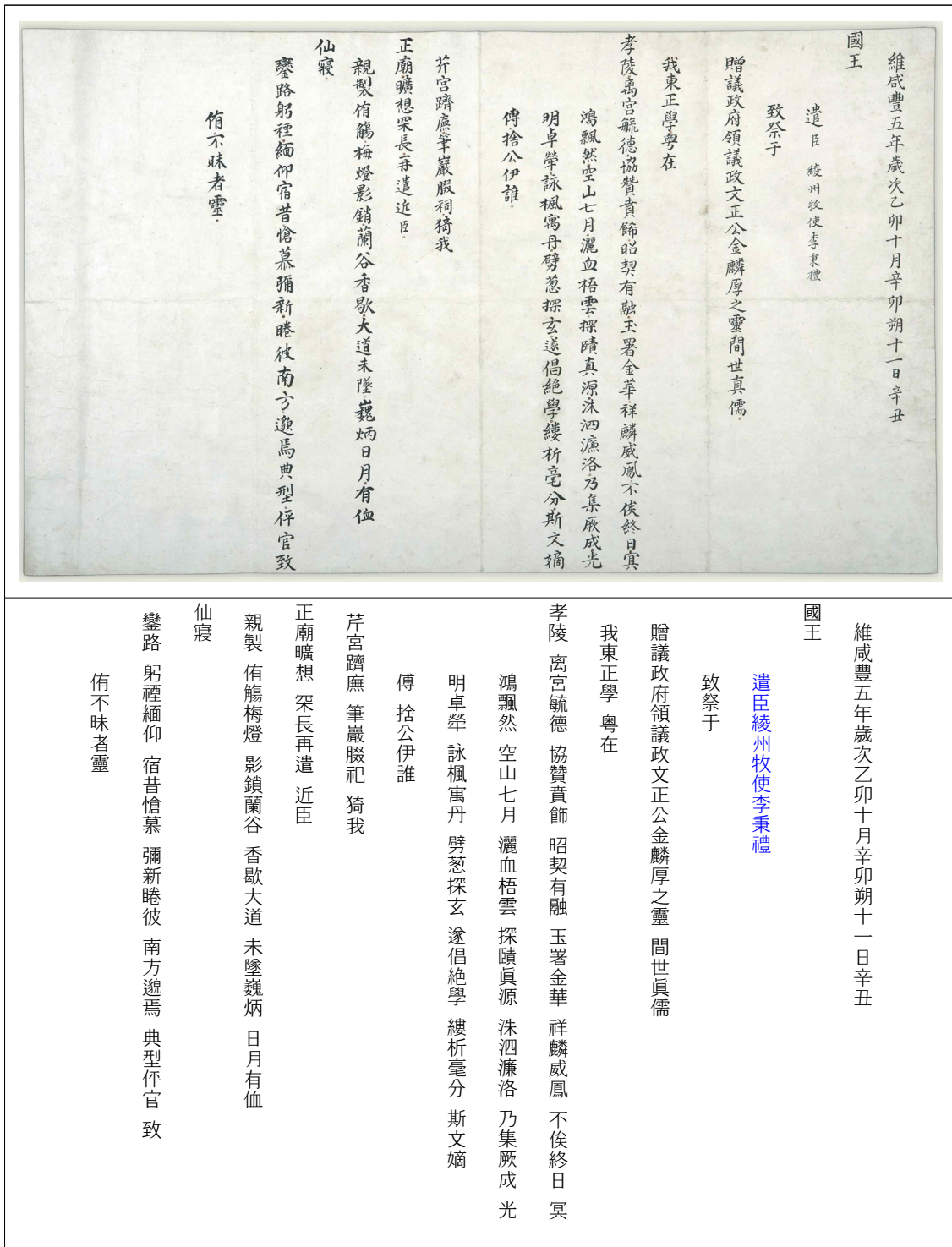
그리하여 동년 10월 11일에 철종이 綾州牧使 李秉禮를 예관으로 보내 문정공 김인후의 영전에 치제하도록 하였다. 치제문은 지제교 李崙夏가 제출하였고, 致祭單子를 작성하여 철종에게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치제문이 발급되었다. 이처럼 정조의 능행 치제가 후대에 선례로 작용하여 순조대 대리청정을 하던 왕세자와 철종이 모두 정조의 뜻을 이어 치제한 사례였음을 알 수 있었다.

69) 『河西先生續集』 「卷首」 <賜祭文>. 장서각 소장본(K4-6982) / 高敞 盤巖 金佶中 呈 藝文提學李是遠製. 純祖戊子翼宗代理時, 令曰: “俄詣孝陵, 見《日省錄》, 則先朝丙午年兩陵展謁後, 有先正臣金麟厚祀版致祭之舉, 可以仰聖意也. 在今日繼述之道, 不可無示意, 令該曹卜日, 遣禮官致祭.”

70) 『승정원일기』 1855년(철종 6) 8월 6일 병신. ○乙卯八月初六日丑時, 大駕詣禧陵親祭, 孝陵展謁, 看審所親看審, 仍還宮擊動入侍時, … 傳曰, 歷謁孝寢, 予小子追慕倍切, 百世之感, 舉國同情, 而金文正之孤衷卓守, 既有正廟朝褒崇之教, 而在今日, 豈無寓感之舉? 贈領相金麟厚祠版, 遣道內秩高守令致祭.

71) 조선 제16대 국왕인 인조와 인열왕후 청주한씨의 합장 단릉. 『승정원일기』에는 禧陵으로 기재되어 있고, 『河西先生續集』에는 長陵으로 기재되어 있다.

72) 『하서선생속집』 「卷首」 <賜祭文>. 장서각 소장본(K4-6982) / 高敞 盤巖 金佶中 呈 知製教李崙夏製. 哲宗乙卯八月初六日幸行長陵孝陵. 傳曰: “予小子感慕倍切, 百世之感, 舉國同情. 金文正公孤衷卓守, 既有正廟朝褒崇之典, 在於今日, 豈無寓感之舉? 贈領相金麟厚祀版, 見道內秩高守令致祭.”



<그림 14> 1855년(철종 6) 10월 11일 철종이 내린 치제문⁷³⁾

73)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94), 48cm x 80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 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89쪽.

나. 문묘종사 치제와 치제문

1796년(정조 20) 9월 17일에 정조는 선정신 김인후의 문묘종사 청원을 최종 수용하였다. 그리고 문묘종사 의례를 행하기 위해 곧바로 세부적인 시행 절차가 논의되었다. 당초 문묘종사 일정은 10월 초7일로 정해졌다가 전체적인 행사 준비가 미진하여 11월 초8일로 연기되었다. 즉, 문묘종사 추진이 확정되면서 김인후에 대한 가증과 시호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문묘뿐만 아니라 김인후 본가와 전국에 있는 향교·서원에서 행사 당일 을 전후하여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묘종사 치제문 사례는 1796년 11월 초6일자로 작성 및 발급된 것이며, 김인후에 대해 ‘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之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동년 9월 17일에 문묘종사 확정 이후 의정부영의정으로 加贈하였고, 동년 10월 16일에 현종대 받은 文靖이란 시호를 文正으로 개정하였다. 문묘종사 의례를 시행하기 전에 김인후에 대한 추가 추증과 시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곧바로 문묘 배향 의례를 행하기 전에 김인후 본가에 치제하는 일정 대해 논의하였다. 동년 10월 18일에 예조판서 민중현이 문묘 배향할 때 본가에 예관을 보내 치제하고 교서의 발급 일자에 대해 日官에게 가려 정하라고 하였고 그 결과 11월 초6일이 길일로 정해졌다.⁷⁴⁾

치제 일정이 정해진 이후, 1796년 10월 26일에는 행도승지 李鼎揆가 문정공 김인후의 延諡 행사를 11월 초6일에 전라도 장성에서 치르는 일정이 확정되었음을 보고하였다.⁷⁵⁾ 이에 문묘 배향 행사를 시행하기 2일 전인 11월 초6일에 개정한 시호를 수증자의 집안에서 맞이하는 연시 행사와 치제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날 행도승지 이정규가 김인후의 본가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려고 하는데 어느 승지로 정할지에 대해 정조에게 여쭙었고, 이에 대해 정조는 좌부승지가 나아가라고 명하였다.⁷⁶⁾ 현전하는 치제문을 확인해 보면 당시 좌부승지 이면공⁷⁷⁾을 보내어 치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⁸⁾ 당시 치제문이 1802년에 중간한 『하서선생전집』에 ‘御製賜祭文’이라고 수록된 점으로 보아 이때의 치제문 역시 정조가 직접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75년에 간행된 『筆巖書院誌』에는 內閣 直提學 李晚秀가 제문을 지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11월 초7일에 치제가 끝난 이후인 11월 15일에 정조가 重熙堂에서 좌부승지 이면공을 입시하도록 하여 당시 치제 상황에 대해 물어 보았다. 정조가 하서 김인후를 치제하러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냐고 물었고, 초6일날 치제하고 다음날 초7일에 출발하여 돌아오기까지

74)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18일 경인. 鍾顯曰, 先正臣文正公金麟厚陞配文廟時, 本家祠版, 遣官賜祭賜教書日字, 令日官推擇, 則來十一月初六日爲吉云. 以此日知委舉行,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 『일성록』 동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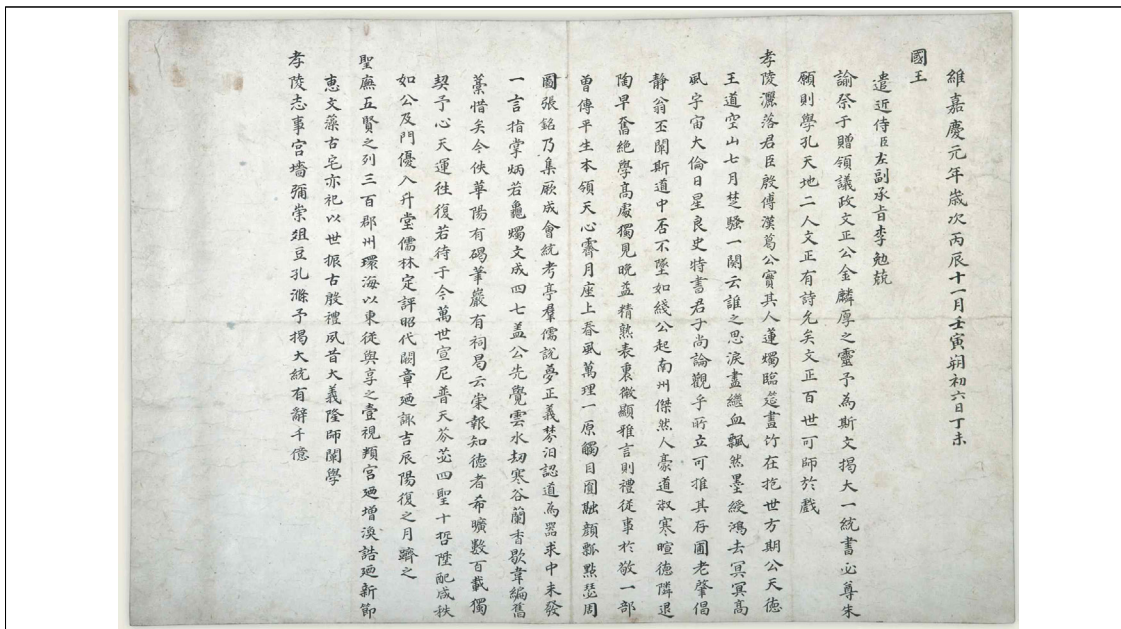
75)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26일 무술. ○李鼎揆, 以吏曹言啓曰, 文正公金麟厚延諡, 來十一月初六日, 定行於全羅道長城地云矣, 敢啓. 傳曰, 知道.

76)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26일 무술. ○李鼎揆啓曰, 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家, 遣承旨致祭事, 命下矣. 何承旨進去乎? 敢稟. 傳曰, 左副承旨進去. : 『일성록』 동일 기사.

77) 이면공(李勉兢, 1753~1812) :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대림(大臨)이다. 서울에서 태어났다. 1783년(정조7) 생원으로 증광문과에 장원하여 이듬해 홍문관에 들어가, 응교·교리 등을 지냈다. 1787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燕行)하였고, 이듬해 이조참의에 보직되었다가 1789년 대사성에 특진되었다. 직무를 소홀히 하다가 몇 번 파직되었으나, 복직되어 육조의 판서를 두루 지낸 후 의정부우참찬에 올랐다.(『하서선생전집』 국역본)

78) 1802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河西先生全集』에는 ‘右副承旨’로 되어 있는데 당시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이면공의 인사기록을 확인해 보면, 우부승지가 아닌 좌부승지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거의 보름이 넘게 걸렸다고 보고하였다. 또 치제 현장에 유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물어 보았고,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어 미처 다 모이지 못하고 약 20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였다.⁷⁹⁾



維嘉慶元年歲次丙辰十一月壬寅朔初六日丁未
 國王
 遣近侍臣左副承旨李勉兢
 諭祭于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之靈 予爲斯文 揭大一統 書必尊朱
 願則學孔 天地二人 文正有詩 允矣文正 百世可師 於戲
 孝陵 灑落君臣 殷傳漢葛 公實其人 蓮燭臨筵 畫竹在抱 世方期公 天德
 王道 空山七月 楚騷一闕 云誰之思 淚盡繼血 飄然墨綬 鴻去冥冥 高
 風宇宙 大倫日星 良史特書 君子尚論 觀乎所立 可推其存 圃老肇倡
 靜翁丕闡 斯道中否 不墜如綫 公起南州 傑然人豪 道淑寒暄 德隣退
 陶 早奮絕學 高處獨見 晚益精熟 表裏微顯 雅言則禮 從事於敬 一部
 曾傳 平生本領 天心霽月 座上春風 萬理一原 觸目圓融 顏瓢點瑟 周
 圖張銘 乃集厥成 會統考亭 羣儒說夢 正義焚汨 認道爲器 求中未發
 一言指掌 炳若龜燭 文成四七 蓋公先覺 雲水劫寒 谷蘭香歇 韋編舊
 藁 惜矣今佚 華陽有碣 筆巖有祠 曷云崇報 知德者稀 曠數百載 獨
 契予心 天運往復 若待于今 萬世宣尼 普天芬苾 四聖十哲 陞配咸秩
 如公及門 優入升堂 儒林定評 昭代闕章 迺諷吉辰 陽復之月 躋之
 聖廡 五賢之列 三百州郡 環海以東 從與享之 壹視類宮 迺增渙詒 迺新節
 惠 文藻古宅 亦祀以世 振古殷禮 夙昔大義 隆師闡學
 孝陵志事 宮牆彌崇 俎豆孔滌 予揭大統 有辭千億

<그림 15> 1796년(정조 20) 11월 6일 정조가 내린 치제문⁸⁰⁾

79)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1월 15일 병진. ○丙辰十一月十五日午時, 上御重熙堂. 右副承旨入侍時, … 上曰, 左副承旨入侍. 出榻教. 賤臣承命出傳, 與左副承旨李勉兢偕入進前. 上曰, 承旨以河西致祭事進去, 而幾日往還乎? 勉兢曰, 初六日致祭, 初七日還發, 往還殆過一望矣. 上曰, 參班儒生, 幾何? 勉兢曰, 以日子之急, 未及齊會, 不過近二百矣.

4. 文廟從祀 추진과 敎書 반포

조선시대 한 개인이 문묘에 배향된다는 것은 褒獎의 최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집안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이 없는 크나큰 영광이었고, 나아가 문묘배향 대상자의 정치·사회적 관계에 속한 개인 또는 집단과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상당했다.

1796년(정조 20) 9월 17일, 정조가 마침내 하서 김인후에 대한 문묘종사 청원에 대해 윤허하였다. 하서 김인후가 사망한지 23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도학·절의·문장 어느 하나 빠짐없이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에 대한 문묘종사 청원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771년(영조 47)에 전라도 유생 梁學淵 등이 올린 상소였다.⁸¹⁾ 이후 정조가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승낙하기까지 십여 차례의 청원 상소가 있었고, 1796년 9월 17일에 관한 유생 洪準源 등이 올린 문묘종사 청원을 끝으로 정조는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허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오랜 시간 동안 김인후의 도학과 절의 등을 깊이 생각하며 문묘종사 추진을 고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를 통해 당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현전하고 있는 상소문의 抄本⁸²⁾과 『필암서원지』(1975년)에 수록되어 있는 상소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있다. 그리고 상소에 대해 당시 정조가 어떠한 이유에서 청원 내용에 대해 불허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당시 문묘종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실물 文廟從祀敎書 3점이 함께 남아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7> 文廟從祀 청원과 敎書 반포

추진시기			추진내용	자료출처
1771 (영조47)			문묘종사 청원 및 불허	①전라도 유생 梁學淵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1786 (정조10)	8월 29일	②팔도 유생 朴盈源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10월 15일	③팔도 유생 鄭樞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1789 (정조13)	4월 2일	④팔도 유생 沈翼賢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상소문 抄本 남아 있음		필암서원
	7월 7일	⑤팔도 유생 申光禮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1790 (정조14)	3월 22일	⑥팔도 유생 李岳謙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1796 (정조20)	6월 22일	⑦팔도 유생 李明彩 등 문묘배향(조헌, 김집) 청원 상소		
	6월 25일	⑧방외 유생 金懋淳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7월 1일	⑨三道 유생 李鍾祐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7월 12일	⑩팔도 유생 蔡弘臣 등 문묘배향(김인후, 조헌, 김집) 청원 상소		
	8월 2일	⑪경외 유생 鄭大鉉 등 문묘배향(김인후, 조헌, 김집) 청원 상소		

80)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79), 51cm x 66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26-127쪽.

81) 김상오,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문묘종사의 경위」, 『전북사학』 5, 전북대학교사학회, 1981, 69쪽.

82) 국립광주박물관 소장(필암서원 기탁유물), 38cm x 173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0-171쪽 <1789년 심익현 상소문>.

추진시기		추진내용		자료출처
	8월 8일		⑫경외 유생 李奎南 등 문묘배향(김인후, 조헌, 김집) 청원 상소 *정조가 疏頭 이규남에게 3현 동시 배향 불가 사유 언급	
	9월 6일		⑬관학 유생 沈來永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9월 10일		⑭관학 유생 李光憲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9월 17일	문묘종사 윤희	관학 유생 생원 洪準源 등 문묘배향 청원 상소	
	9월~10월	문묘종사 절차 논의	문묘배향 의례 일정 및 세부 절차 논의 문묘배향 의례 일정 연기 *10월 7일 → 11월 8일	
	10월 7일	문묘종사교서 제술	김인후 문묘종사교서 문임 제술 *教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從祀文廟書/藝文館提學具庠製進	
	10월 26일	문묘종사교서 발급	정조가 김인후에게 발급한 문묘종사교서 *教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從祀文廟書	광3889
	11월 5일	문묘종사 중외반교서 제술	김인후 문묘종사 중외반교서 문임제술 *教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藝文館提學具庠製進	
	11월 7일	문묘종사교서 발급	정조가 김인후에게 발급한 문묘종사교서 *教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從祀文廟書/문묘종사 의례 전날 발급	광3891
	11월 8일	문묘종사 의례 거행	대성전 고유제 등 문묘종사 의례 거행	
	11월 9일	문묘종사 중외반교서 발급	정조가 중외 대소신료 및 민인 등에게 발급한 반교서 *教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광3892

가. 문묘종사 청원과 결정

1771년(영조 47)에 양학연 등이 올린 김인후의 문묘종사 청원은 도암 이재와 그의 문인 김원행의 발언이 계기가 되었다. 즉 하서 김인후가 문묘 종사되어야 하는데, 영암 사림처럼 존송하는 바가 적다고 은연 중 그러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이었다. 그리하여 1779년(정조 3)에 필암서원에서 강회가 열리고 김인후를 종향하자는 의논을 하였다. 이어 1780년(정조 4) 겨울에 김인후를 문묘에 종향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어, 광주의 생원인 朴河鎭이 발의하고, 필암서원에 창평의 진사 梁學淵이 통문을 보내 김인후의 종향을 요청했으며, 다시 창평의 생원 鄭桔이 성균관에 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정길이가 보낸 통문은 성균과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 하서 김인후의 절의는 드러났으나 사문의 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통문에 착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⁸³⁾

영조대 이후 김인후에 대한 문묘종사 청원이 재기된 계기는 앞서 언급하였던 1786년(정조 10)에 정조가 효릉과 희릉을 행행하였을 때 김인후의 후손을 특별히 예우하여 참봉에 임명하고 치제 제문을 지어준 일과 고암 양자징을 필암서원에 추배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고무된 팔도유생 박영원 등이 동년 8월에 다시 김인후의 문묘종사 청원을 건의하였고 10월에도 청원 상소가 이어졌다.⁸⁴⁾

이후 1789년(정조 13)에 4월과 7월, 1790년(정조 14) 3월에도 팔도 유생들의 청원이 계

83) 김봉근, 「필암서원과 울산김씨」, 『한국계보연구』 5, 한국계보연구회, 2014, 82쪽.

84) 『승정원일기』 1786년(정조 10) 8월 29일 기사 ; 『승정원일기』 1786년(정조 10) 10월 16일 병진 ; 『정조실록』 권22, 1786년(정조 10) 10월 15일 을묘.

속되었다.⁸⁵⁾ 그러다가 1796년(정조 20) 6월에 팔도 유생 이명채 등이 趙憲과 金集에 대한 문묘종사 청원 상소를 올렸다.⁸⁶⁾ 김인후를 언급하지 않고 조헌과 김집의 문묘배향을 주장한 유생들의 상소에 정조가 섭섭한 마음을 보이자, 팔도 유생들이 상소는 두 가지로 갈라졌다. 하나는 김인후만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것으로 1796년 6월 25일에 청원한 방외 유생 金懋淳 등의 상소, 7월 1일에 청원한 三道 유생 李鍾祐 등의 상소가 그것이다.⁸⁷⁾ 또 하나는 김인후와 더불어 조헌과 김집을 함께 배향하자는 주장으로, 7월 12일에 청원한 팔도 유생 蔡弘臣 등 상소와 8월 2일에 청원한 경외 유생 鄭大鉉 등의 상소, 8월 8일에 청원한 경외 유생 李奎南 등의 상소 등⁸⁸⁾이 그것이었다.⁸⁹⁾

정조의 논리정연하고 단호한 질책을 들은 성균관 유생들은 마침내 정조의 뜻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인후만을 단독으로 문묘에 배향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9월 6일에 관한 유생 심내영 등이 청원하였고 이어서 9월 10일에 관학 유생 이광헌 등이 청원하였으며, 9월 17일에 관학 유생 홍준원 등이 청원한 상소⁹⁰⁾에 대해 정조가 마침내 윤허한다는 비답을 내렸다.⁹¹⁾

내용상 하서의 문묘종향은 계속된 유생들의 건의라기보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히 왕이 감독하고 조장하면서 결정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⁹²⁾ 즉,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바로 정조로서 김인후를 우리나라 <유학의 宗匠>이라고까지 극찬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김인후는 도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이 으뜸이고, 절이나 문장은 부차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인후에 대한 정조의 새로운 평가는 일찍이 송시열이 도학, 절의, 문장을 모두 겸비한 인물로 평가한 것을 다소 수정한 것을 의미한다.⁹³⁾

나. 문묘종사 의례 거행과 대민 반포

1796년(정조 20) 9월 17일에 관학 유생 홍준원 등이 올린 김인후의 문묘종사 청원에 대해 마침내 정조가 許施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관에게 典禮를 살펴 從享 일정을 정하여 거행하라고 하였다.⁹⁴⁾ 문묘종사 결정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문묘종사 의례 거행을 위해 행사 일정, 추진 방식, 과정상의 어려운 문제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주관부서인 예조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주로 『승정원일기』에 잘 남아 있다.

같은 날 정조는 이른 아침부터(卯時) 성정각에서 예조판서 민종현과 종향과 관련된 실무 내용을 확인하였다. 먼저 예조에서 작성해 온 從享節目을 들이라 하여 확인한 것으로

85) 『정조실록』 권27, 1789년(정조 13) 4월 2일 무자 ; 『정조실록』 권27, 1789년(정조 13) 7월 7일 신묘 ; 『정조실록』 권29, 1790년(정조 14) 3월 22일 임인.

86) 『정조실록』 권44, 1796년(정조 20) 6월 22일 병신.

87) 『정조실록』 권44, 1796년(정조 20) 6월 25일 기해 ; 『정조실록』 권45, 1796년(정조 20) 7월 1일 갑진.

88) 『정조실록』 권45, 1796년(정조 20) 7월 12일 을묘 ; 『정조실록』 권44, 1796년(정조 20) 8월 2일 갑술 ; 『정조실록』 권45, 1796년(정조 20) 8월 8일 경진.

89) 한영우, 「君師 정조가 본 하서 김인후」,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하서 탄신 500주년 특집-』 제4집, (재)하서학술재단, 2010, 164-165쪽.

90) 『정조실록』 권45, 1796년(정조 20) 9월 6일 무신 ; 『정조실록』 권45, 1796년(정조 20) 9월 10일 임자 ; 『정조실록』 권45,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기미.

91) 한영우, 앞의 글, 167쪽.

92) 이해준, 「조선후기 하서 김인의 현창활동」,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2, (재)하서학술재단, 2000, 359쪽.

93) 한영우, 앞의 글, 169쪽.

94)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기미, 32번째 기사.

보인다. 그리고 배향한 후에 設科를 행한 사례가 있는지, 추증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별도로 설과를 행한 사례는 없었고, 추증은 문정공 송시열의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에는 문묘 종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종향절목과 전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⁹⁵⁾

오후가 되자(午時) 정조는 다시 성정각에서 문묘종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예조판서와 논의하였다.⁹⁶⁾ 예조판서 민중현은 문묘종사 의례 거행일, 대성전 고유제 일정, 陞配 시 位次 문제, 賜祭와 教書 전달 문제, 교서의 제술과 반포일, 추증과 시호 개정 문제, 후손 등용 등 문묘배향 추진과 관련하여 행사 당일을 기준으로 사전, 사후로 준비하여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김인후에 대한 문묘배향 준비를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갔다.

그러나 9월 25에 이문원에 입시한 우의정 윤기동이 현실적으로 당초 정한 일정대로 문묘배향 의례를 거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예조에 분부하여 일정을 다시 정하자고 정조에게 제안하였다.⁹⁷⁾ 이에 대해 정조도 문묘배향 일정을 변경 추진하도록 지시하되 한 달 후로 연기하라고 지시하였고, 담당부서인 예조에서 길일 택정한 결과 11월 8일로 일정이 확정되었다.⁹⁸⁾ 이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다시 세부 추진 내용을 조정하면서 김인후의 문묘종사에 대한 의례 준비가 진행되어 갔다.

예조의 보고 내용과 정조의 지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정조는 당해 연도에 김인후의 문묘종사 의례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확고했음을 알 수 있었다. 1796년 9월 17일에서 11월 8일까지 김인후의 문묘종사 추진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문묘종사 의례 공간과 주체를 기준으로 ①文廟, ②金麟厚本家, ③筆巖書院, ④각 군현 鄉校 등에서 문묘종사 의례가 상호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추진되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문묘종사 의례는 文廟라는 특정 공간에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써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의미 있는 상징성과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문묘에서 행하는 종향 의식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성전 고유제 일정,⁹⁹⁾ 김인후의 위패 봉안시 位次 문제,¹⁰⁰⁾ 교서의 宣讀 및 반포 일정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문묘배향 의례 과정에서 教書를 宣讀하고 해당 교서는 김인후 본가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¹⁰¹⁾

다음으로 전라도 장성에 있는 김인후 본가에서는 문묘종사 의례가 거행되기 전에 사당에 시호가 개정된 사실과 문묘에 종향된다는 사실을 고유해야 했다. 다만 개정한 시호의

95)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기미 33번째기사.

96)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기미 35번째기사.

97)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25일 정묘 12번째기사.

98)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3일 기사 6번째기사 ;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7일 기묘 20번째기사.

99)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9일 신유 31·33번째기사.

100)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1월 6일 정미 18번째기사 ;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1월 7일 무신 26번째기사 ;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1월 8일 기유 14번째기사.

101)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1월 6일 정미 18번째기사. 而今聞卿曹考奏之說, 教書徑傳於本家, 從享時無宣教之節云. 此必以罕有之禮, 文獻莫徵而然. 今若略倣太廟配享例, 其日先告事由於聖殿, 而仍於廟庭宣讀後, 陞附當廡, 禮畢, 以其教書, 齎傳于本家, 庶合儀文.

경우 치제문과 교서를 전달하는 11월 6일 일정에 맞추어 본가에서 延諡를 진행하도록 일정을 조율하였다.¹⁰²⁾

필암서원에 대해서는 시호 개정 후에 필암서원에 있는 위판의 개서가 필요하니 전라감영에 지시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¹⁰³⁾ 『필암서원지』에는 김인후의 문묘 종향을 고유할 때 작성했던 文廟陞配告由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知製教 朴載淳이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군현에 있는 향교에 대해서는 11월 21일 진시에 위패를 봉안하고 의례를 거행하는 일정이 정해졌고, 각 성전에 고유할 때 사용하는 향축은 예조에서 마련하여 각 도에 속히 하송하도록 하였다.¹⁰⁴⁾ 원래 예조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일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교의 경우 이듬해 봄에 釋菜禮를 행할 때 고유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각 도와 읍에서 금년 내로 모두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지방에서는 별도로 거행하는 禮成祭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즉시 폐지하고, 향후 재방 방지하기 위해 엄히 단속하라고 추가 지시하였다.¹⁰⁵⁾

이처럼 문묘종사 추진은 일정이 한 달 연기되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속하게 추진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정조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뒷받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주는 文廟從祀教書 3점이 남아 있다. 앞서 제시한 표의 내용과 같이 10월 26일자로 발급한 교서, 11월 7일자로 발급한 교서, 11월 9일자로 발급한 3점의 사례가 함께 남아 있다. 앞서 살펴본 문묘종사 의례 추진 과정과 연계하여 각각의 교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1796년 10월 26일에 발급된 김인후의 문묘종사교서는 문묘종사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김인후 본가에 치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전달한 교서 사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9월 17일에 문묘종사 추진이 확정되자 곧바로 영의정으로 추가 추증하였고, 시호 개정 논의가 10월 7일에 확정되어 인사 절차를 진행하였다. 최종 관작과 시호가 확정되어 교서를 발급하기 위해 10월 7일에 예문관 제학 具庠에게 교서의 초안을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¹⁰⁶⁾ 그리하여 10월 26자로 최종 교서가 발급되었다.

102)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18일 경인. 鍾顯曰, 先正臣文正公金麟厚陞配文廟時, 本家祠版, 遣官賜祭賜教書日字, 令日官推擇, 則來十一月初六日爲吉云. 以此日知委舉行,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26일 무술. ○李鼎揆, 以吏曹言啓曰, 文正公金麟厚延諡, 來十一月初六日, 定行於全羅道長城地云矣, 敢啓. 傳曰, 知道.

103)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18일 경인. 鍾顯曰, 文正公金麟厚改諡後, 所享筆巖書院位版, 當爲改題, 知委本道, 使之舉行,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104)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9일 신유 26번째기사. ○吳鼎源, 以禮曹言啓曰, 文靖公金麟厚, 陞配文廟時, 諸道列邑, 皆於今年內舉行事, 命下矣. 諸道列邑鄉校, 陞配時吉日, 令日官崔景烈推擇, 則來十一月二十一日辰時爲吉云, 以此日時舉行之意知委, 而聖殿告由祭香祝, 令該司, 照例磨鍊, 急速下送諸道, 使之同日舉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105)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9월 17일 기미 35번째기사. 鍾顯曰, 今此先正臣金麟厚, 文廟陞配時, 事當一時舉行於中外, 而其勢自有未遑, 不但八路地方之遠近不同, 所入凡具, 亦難猝辦, 亦須先定太學規模而後, 知委舉行, 已有前例, 外方鄉校, 則待明年春釋菜, 告由奉安, 而位版所造栗木, 亦依前例, 開城府·江華府自辦, 八道則令各其監營, 先期精造, 使之一時奉安之意, 知委於八道·四都, 何如? 上曰, 依爲之. 諸道列邑, 皆於今年內舉行, 而告由之節, 別無可據之例, 略倣京中文廟東西廡酌禮之故事, 告由於先聖位版, 侑於當位, 而祭品, 爵一盛清酒, 豆一盛芹菹, 籩一盛時果事, 後錄下送, 俾無禮煩事瀆之歎, 曾聞外方則別設禮成之祭云, 無義莫甚, 自今爲例, 亟革謬習事, 嚴飭諸道, 可也. 出舉條.

106)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0월 7일 기묘 32번째기사.



<그림 16> 1796년(정조 20) 10월 26일 贈領議政文正公 金麟厚 文廟從祀敎書¹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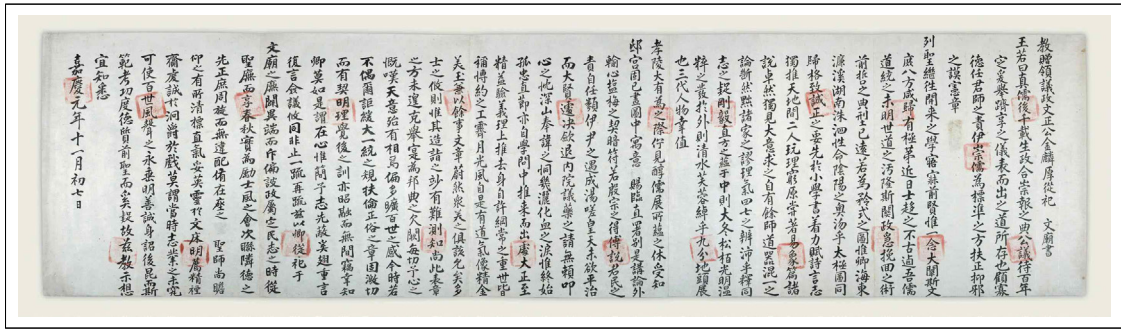
위 교서는 예문과 제학 구상이 지어 올린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다. 교서의 형식은 첫줄에 ‘教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從祀文廟書’라고 하여 교서의 수취자와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증영의정문정공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기 위해 내리는 교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王若曰…’이라고 하여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게 된 배경, 김인후의 업적과 평가 내용, 문묘에 종사하며 기리는 내용 등으로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에 교서를 발급한 날짜를 기재하였고, 문서 전면에 ‘施命之寶’를 여러 군 데 답인하였다.

해당 교서는 문묘종사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정조가 내린 치제문과 함께 김인후 본가에 미리 전달되었다. 그리하여 11월 6일날 김인후 본가에서는 정조가 내린 치제문과 교서를 받아 사당에 고유하였고, 延諡까지 병행하여 의례를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796년 11월 7일에 발급된 김인후의 문묘종사교서는 11월 8일에 문묘종사 의례를 거행한 이후 김인후 본가에 전달된 사례이다. 앞서 10월 26일자로 발급된 교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두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발급된 교서의 정체는 문묘에서 종향 의식을 거행할 때 먼저 대성전에 교유제를 지내고 이어서 廟庭 교서를 宣讀하는 절차가 있었는데,¹⁰⁸⁾ 바로 그때 사용한 교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107)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89), 104cm x 400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8-179쪽.

108)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1월 6일 정미 18번째기사.



<그림 17> 1796년(정조 20) 11월 7일 贈領議政文正公 金麟厚 文廟從祀教書¹⁰⁹⁾

즉, 문묘종사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사전에 김인후본가에서 예식을 행할 때 사용하라고 전달한 교서와 문묘에서 종향 의례를 거행할 때 사용하려고 작성한 교서가 동일한 내용이지만 별도로 작성되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1796년 11월 9일에 발급된 교서는 11월 8일에 문묘종사 의례를 거행하고 다음날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대외에 반포하기 위해 발급한 中外頒教書 사례이다. 교서 첫줄에 수취자 정보를 보면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라고 하여 서울과 지방의 대소臣僚, 耆老, 軍民, 閑良 등이라고 하여 온 백성을 대상으로 김인후의 문묘에 종향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11월 4일에 중외반교서를 작성하기 위해 예문관 제학 구상을 패초하라고 하였고, 다음날 예문과 제학 구상이 곧바로 중외에 반포할 교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¹¹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교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반교서 또한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묘에서 선독을 위해 작성된 11월 7일에 발급된 교서와 함께 김인후본가에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국왕이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수의 중외반교서를 발급하였지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중외반교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김인후의 문묘종사 반교서이다. 중외반교서는 1610년(광해군 2) 9월에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항의 五賢을 문묘에 종사할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610년(광해군 2)부터 1883년(고종 20)까지 국왕은 유현을 문묘에 종사한 후에 총 7번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7건의 문묘종사 중외반교서는 모두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개인 문집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796년(정조 20)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한 후에 발급한 중외반교서가 실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왕은 유현을 문묘에 從祀함으로써 성리학적 道統을 확립시키고, 후학들에게 학문에 힘쓰도록 고취시키며, 나아가 성리학적으로 백성들의 교화에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¹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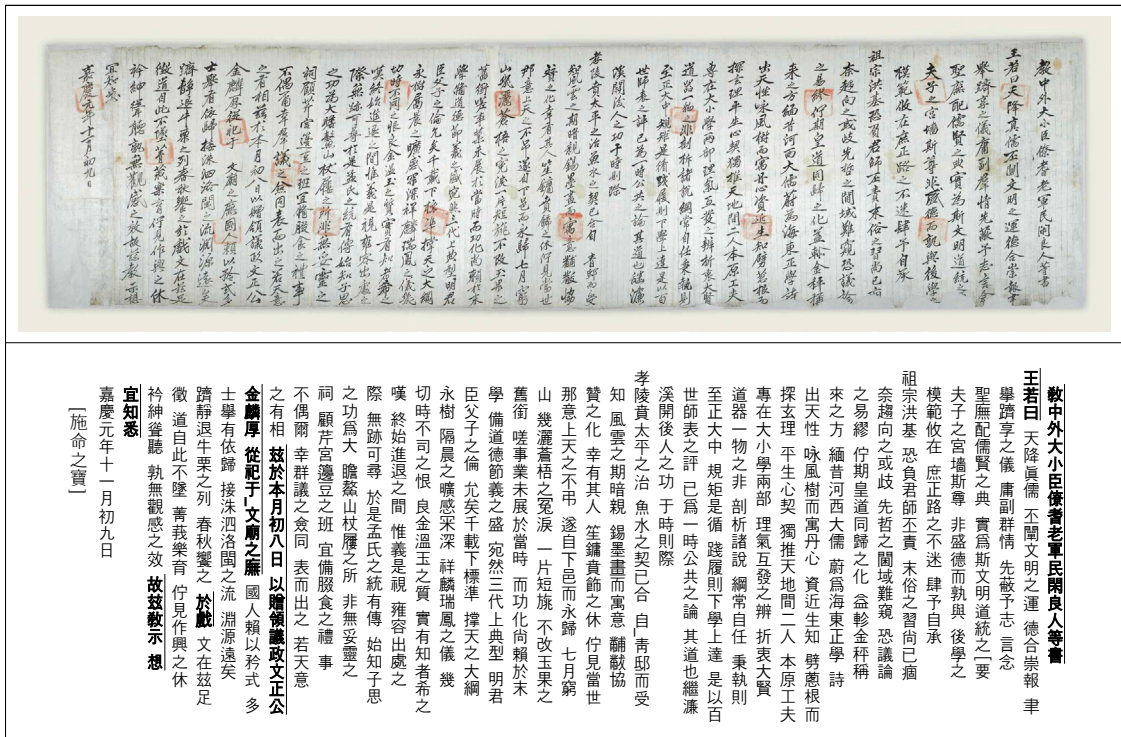
따라서 김인후의 문묘종사는 그의 사회적, 정치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109)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91), 111cm x 365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80-181쪽.

110)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1월 4일 을사 6번째기사 ;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1월 5일 병오 39번째기사.

111) 노인환, 『조선시대 교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박사학위논문, 2014, 179-184쪽 참조.

이를 뒷받침 하는 상징적인 자료가 바로 현전하는 文廟從祀敎書라 할 수 있다.¹¹²⁾



<그림 18> 1796년(정조 20) 11월 9일 金麟厚 文廟從祀 頒敎書¹¹³⁾

중외반교서를 끝으로 문묘종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례와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인후의 문집을 다시 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11월 18일에 김인후의 9대손인 제용감 주부 김직휴를 소견하여 ‘선정의 문집에 빠지거나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원본을 다시 인쇄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 산일되었다. 그대의 집에 혹 현재 남아 있는가?’라고 물었고, 별집 세 권이 전 현감 황윤석의 집에 있다고 하자 가져오라고 하였다.¹¹⁴⁾ 이러한 정조의 간행 의지로 1802년(순조 2) 하서선생전집 삼간본이 완성되었고, 문집 권수에 어제사제문, 문묘종사교서, 문묘종사반교서 등을 수록하여 상징성과 위상을 드러내었다.

112) 이해준, 앞의 논문, 357쪽.

113)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자료(광3892), 103cm x 380cm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VI)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82-183쪽.

114)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 11월 18일 기미 26번째기사. 上曰, 先正文集, 多有闕略, 原本, 若更爲劖劘則好矣, 而尙患散逸, 爾之家中, 或有見在否? 直休曰, 別集三卷, 在前縣監黃胤錫家矣. 上曰, 推來也. 又敎曰, 聞先正子孫, 入日本時, 文集遺置, 故本藁則在日本云, 果然否? 直休曰, 臣九代祖之長孫, 十二歲時, 入去倭國, 文蹟皆隨入, 而其後文集, 始爲刊行, 卽今見在文集, 似非本藁矣. 命退, 尙患. 直休退出. ; 『일성록』 1796년(정조 20) 11월 18일.

5. 맺음말

이번에 완역한 『河西先生全集』은 1796년(정조 20)에 하서 김인후의 문묘배향이 이루어지면서 정조가 특별히 명하여 1802년(순조 2)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삼간본이다. 문집 권수에 가장 먼저 수록된 내용은 御製賜祭文 2편, 賜祭文 1편, 文廟從祀教書 1편, 文廟從祀頒教書 1편, 文廟陞配祝文 1편 순으로 총 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왜 문집 권수에 이러한 내용이 먼저 수록되었을까? 그리고 현전하는 고문서 자료와 비교했을 때 상호 어떠한 연과성과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본 발표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자료는 그 수량이 희소하지만 김인후 사후에 이루어진 주요 현양 사업의 핵심적인 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김인후 사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해 남아 있는 고문서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더욱이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구체적인 내용과 연계하여 당시 어떠한 배경과 절차 속에서 해당 고문서 자료가 작성되고 발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먼저, 김인후의 추증과 증시의 경우 현종대와 정조대 두 차례에 큰 변화가 있었다. 추증을 할 때에 처음부터 특별하게 적용하여 超贈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加贈하여 최고 관직에 추증하였다. 시호의 경우에도 정조대 시호 개정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文正公이라는 시호로 改諡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정조의 경우, 전례를 확인하여 송시열 사례에 준하여 김인후의 추가 증직을 추진하였고, 시호 개정은 전현직 대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인후의 도학적 업적과 위상에 부합하는 시호로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정조대에는 김인후에 대한 정조의 능행과 문묘종사라는 특별한 치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능행 치제의 경우, 정조가 효릉과 의릉을 행행할 때 특별히 김인후의 9대손 김직휴를 불러 직접 지은 제문을 하사하여 치제하였다. 그리고 김직휴를 대우하여 효릉참봉으로 임명하여 하직인사차 만났을 때 반나절 동안 김인후와 그의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2년 뒤에 정조가 윤대관 김직휴를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이 예전에 지어준 제문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묵죽도를 보관하고 있는 상자에 함께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정조는 특별한 인연에 또다시 탄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조와의 특별한 인연과 사건은 김인후의 문묘종사 청원에 힘을 실어 주었고 1786년부터 1796년까지 전라도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유생들과 관학 유생들까지 청원 상소를 십여 차례 올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796년 9월 17일에 마침내 김인후의 문묘조상 청원에 대해 정조가 승인하였고, 11월 8일에 문묘종사 의례를 거행하기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하서 문집을 다시 간행하라고 하여 1802년에 삼간본이 완성되었다.

이와 같이, 김인후에 대한 추증과 증시, 치제, 문묘종사와 관련된 고문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모든 과정에서 특히 정조의 특별함과 추진력이 주목된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김인후 관련 고문서 자료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당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하서 김인후 사례와 같이 추증, 증시, 치제, 문묘종사 관련 고문서 자료가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김인후의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대 문묘배향 인물 가운데 김장생과 조헌의 문묘종사교서가 남아 있는데, 김장생의 사례는 1987년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되었고, 조헌의 사례는 1983년에 문묘종사교서를 비롯하여 관련 유품이 보물 제1007-4호로 일괄 지정되었다.¹¹⁵⁾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하서 김인후 관련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리와 함께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자료를 비롯하여 필암서원 소장 자료, 타 기관 소장 자료 등 현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조사와 정리 등 통합적인 아카이빙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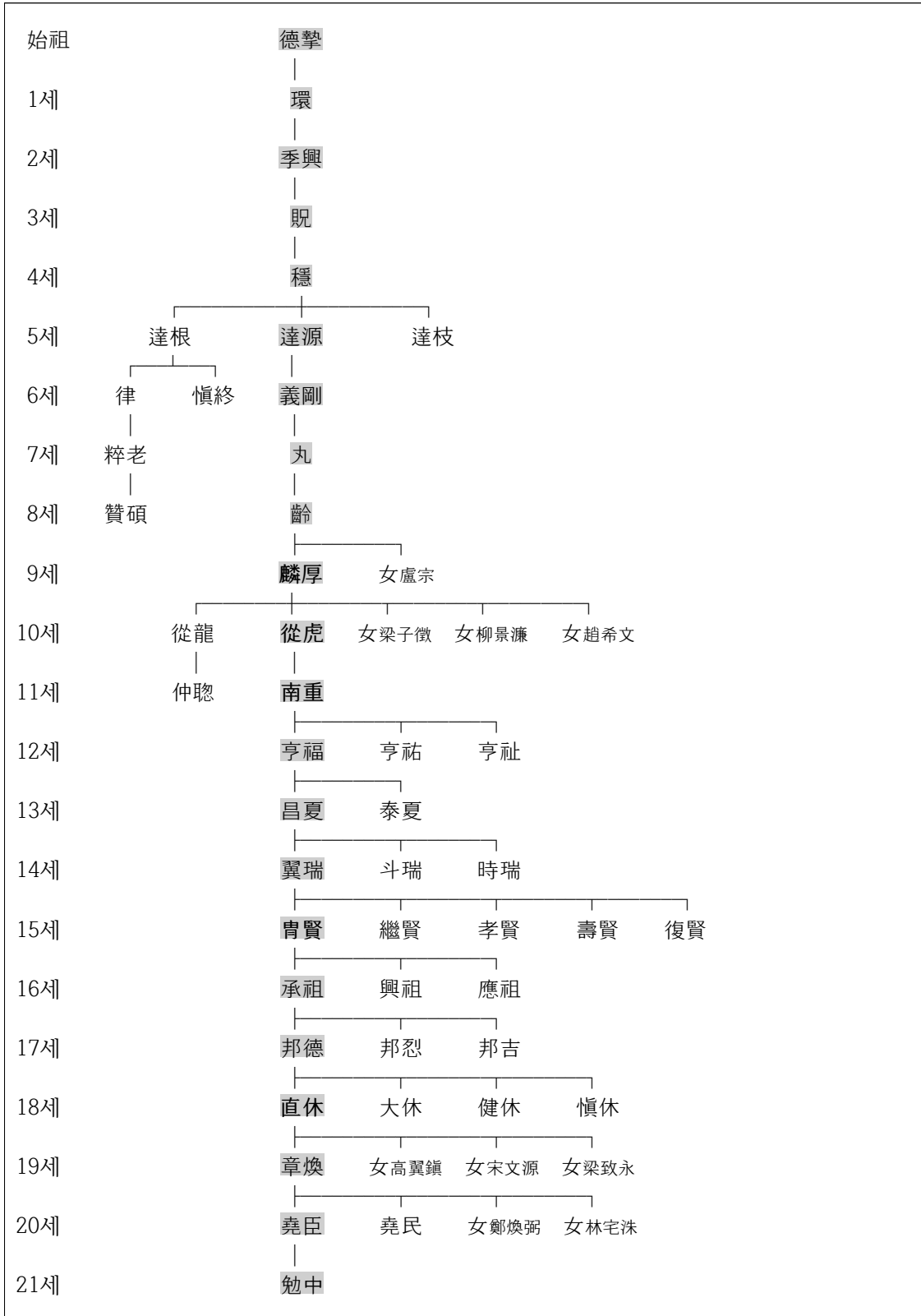
115)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717년(숙종 43) 사계 김장생 문묘종사교서 1점(1987.12.30.지정,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1883년 조헌 문묘종사교서 등 <조헌 관련 유품> 6종 7점(1989.8.1.지정, 보물)으로 확인된다.

【부록 1】 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기증유물 현황

번호	자료명	작성시기	주요내용	소장번호
1	仁宗大王墨竹圖		인종대왕묵죽도 목판본 *목판은 별도 보관	광주3868
2	蓮榜同年一時 曹司契會圖	1542년 3월~7월경	사마시에 함께 급제한 동기생들이 십수 년을 전후하여 대과에 급제한 후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그림	광주3869
3	東湖契會圖	1545년	임형수(林亨秀), 이황(李滉), 윤현(尹鉉), 남응룡(南應龍), 민기(閔箕), 이홍남(李洪男), 김수(金樹), 이담(李湛), 이원록(李元祿), 박승임(朴承任), 노수신(盧守愼) 등 13명이 동호에서 모임(契會)를 가지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그림 *홍문관 부정자 김인후	광주3870
4	敎牒	1572년(선조5) 5월 일	吏曹에서 壬申年(1572) 文蔭取才에 入格한 金從虎에게 발급한 문서	광주3871
5	告身	1576년(선조9) 2월 일	이조에서 왕명에 따라 金從虎를 從仕郎(정9품)行慶基殿參奉으로 임명하는 문서 *傍書: 仕加	광주3872
6	服齋傳筆歌并 序文		상촌 신흠(象村 申欽, 1566-1628)은 기준과 김인후의 만남, 붓을 선물로 준 이래 하서 집안에 가보로 전해지는 내력을 글로 남김	광주3873
7	告身	1603년(선조36) 9월 일	이조에서 왕명에 따라 김남중을 선교랑으로 임명하는 문서	광주3874
8	追贈敎旨	1668년(현종9) 4월 17일	顯宗이 정4품 봉렬대부인 金麟厚를 정2품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임명문서 *이조정랑 이단하 상소	광주3875
9	追贈敎旨	1668년(현종9) 11월 25일	현종이 숙인 윤씨를 정2품 貞夫人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임명문서 *남편인 김인후가 동년 4월 정2품 자헌대부로 추증되어 규정에 따라 부인의 품계도 상향하여 추증함	광주3876
10	贈諡敎旨	1669년(현종10) 8월 24일	현종이 정2품 자헌대부로 추증된 김인후에게 文靖公의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증시교지	광주3877
11	御畫墨竹跋文	1736년	유숙기(兪肅基, 1696-1752)가 영조 12년 8월에 인종이 내린 묵죽도에 대한 글	광주3878
12	致祭文	1786년(정조10) 4월 초4일	정조가 좌부승지 박천행을 예관으로 파견하여 김인후의 영전에 내린 치제문	광주3879
13	御筆別本祭文跋	1789년(정조13) 仲春	金直休가 정조를 대면한 내용과 정조가 직접 지어 준 제문의 소장 경위를 정리해 놓은 발문	광주3880
14	河西先生職啣		金麟厚를 資憲大夫로 추증하면서 文靖公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부인에게는 貞夫人이라고 추증한 내용	광주3881
15	追贈敎旨	1796년(정조20) 9월 17일	정조가 이조판서 김인후를 영의정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임명문서 *傍書: 加贈議政府領議政事承傳	광주3882

번호	자료명	작성시기	주요내용	소장번호
16	追贈教旨	1796년(정조20) 9월 17일	정조가 이조판서 김인후를 영의정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임명문서 <세자좌빈객행무공랑수홍문관부수찬지제교경경영검토관추관기사관> 추가 *傍書: 加贈議政府領議政事承傳	광주3883
17	諡號署經完議	1796년(정조20) 10월 일	사간원에서 김인후에게 내린 文正公 시호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발급한 諡號署經完議	광주3884
18	諡號署經完議	1796년(정조20) 10월 일	사헌부에서 김인후에게 내린 文正公 시호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발급한 諡號署經完議	광주3885
19	贈諡教旨	1796년(정조20) 10월 16일	1796년(정조 20) 10월 16일에 정조가 김인후에게 文正公의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贈諡教旨(금박장식) *뒷면: 前承旨 朴基正	광주3886
20	贈諡教旨	1796년(정조20) 10월 16일	1796년(정조 20) 10월 16일에 정조가 김인후에게 文正公의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贈諡教旨	광주3887
21	追贈教旨	1796년(정조20) 10월 일	조가 정부인 윤씨를 정경부인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임명문서 남편인 김인후가 동년 10월에 문정공의 시호를 내리면서 규정에 따라 부인의 품계도 상향하여 추증	광주3888
22	文廟從祀教書	1796년(정조20) 10월 26일	정조가 증영의정문정공 김인후에게 발급한 문묘종사교서 *승정원일기 10월 7일 藝文館提學具庠製進	광주3889
23	致祭文	1796년(정조20) 11월 초6일	1796년(정조 20) 11월 초6일에 정조가 左副承旨 李勉兢을 예관으로 파견하여 김인후의 영전에 내린 치제문	광주3890
24	文廟從祀教書	1796년(정조20) 11월 초7일	정조가 증영의정문정공 김인후에게 발급한 문묘종사교서	광주3891
25	文廟從祀中外頒教書	1796년(정조20) 11월 초9일	정조가 김인후의 문묘배향 사실을 전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반포하면서 발급한 교서	광주3892
26	致祭文	1828년(순조28) 10월 24일	왕세자(효명세자)가 禮曹佐郎 林原培를 예관으로 파견하여 김인후의 영전에 내린 치제문 *효명세자 대리청정기(1827.2.~1830.5.)	광주3893
27	致祭文	1855년(철종6) 10월 11일	철종이 綾州牧使 李秉禮를 예관으로 파견하여 김인후의 영전에 내린 치제문	광주3894
28	致祭文	1786년(정조10)	정조가 김인후의 9대손 김직휴에게 직접 지어 내려준 제문 *先正金麟厚致祭祭文	광주3895
29	墨書		簇子	광주3896
30	墨書		簇子	광주3897
31	墨書		簇子	광주3898

【부록 1】 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김인후 직계도 ㉮ 116)



116) 『河西先生全集』 「附錄」 권3 <世系> (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가람古819.52-G42h-v.1-8)를 참조 ; 한국학자료센터>인물관계정보>만가보 <https://kostma.aks.ac.kr/FamilyTree/>

『河西全集』 소재 한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탐색

최혜미(고려대학교)

• 목차 •

1. 머리말
2. 김인후 관련 문화 자원 현황
3. 지역 문화 자원과 결합한 콘텐츠 활용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河西 金麟厚(1510~1560)는 至治主義를 표방한 16세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土禍가 반복되며 훈구 관료와 사림 사이의 정쟁이 그치지 않았던 시기였다. 김인후는 이러한 시기에 수학하고 출사하여 신진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사림의 일원으로서 치세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여의찮은 시류 속에서 그는 6년이라는 길지 않은 관직 생활을 그만두고 30대에 현실 정치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왔다. 그는 산림에서 강학과 학문에 몰두하여 성리학의 본원에 관한 연구로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전국적인 명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국가적 기여를 인정받아 1796년(정조20) 문묘에 종사된, 명실공히 호남뿐만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이다.

김인후가 혼란한 시대에 명확한 출처관을 견지하며 지조를 지키고 학문에 전념한 삶의 이력은 그의 생전에는 물론 후대의 사류들에게도 깊은 감화를 주었다. 이에 다수의 유력한 인물들이 김인후에 대한 칭양의 글을 남긴 바 있는데, 김인후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은 宋時烈(1607~1689)이 1672년(현종13)에 작성한 「神道碑銘」이다. 그 작품은 다음의 구절로 시작된다.

國朝의 인물은 道學節義文章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들을 겹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이가 거의 없다.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도와 河西 金先生을 낳았으니 선생이 여기에 가깝다고 하겠다.¹⁾

송시열은 「신도비명」에서 김인후가 성리학과 충절 문화이라는 세 가지 자질을 두루 갖춘 완벽한 인물이라고 상찬하였다. 이는 비단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17세기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서 정조대에 문묘에 종사될 때에도 반복되어 강조된 바 있다.²⁾

1) 『河西全集』 『附錄』 卷1 「神道碑銘(宋時烈)」, “國朝人物道學, 節義文章, 忒有品差, 其兼有而不偏者無幾矣. 天祐我東, 鍾生河西金先生, 則殆庶幾焉.”

2) 『河西全集』 卷首 「文廟從祀教書」, “생각건대 그 변함없는 충성과 곧은 절개는 또한 학문에서 나온 것이며, 지극히 바르고 정밀한 출처(出處)는 의리에서 행한 것임을 더욱 징험할 수 있었다. …… 여사로 문장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의 신망(信望)을 두루 갖추었으니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는

이처럼 김인후는 16세기의 철학·역사·문학의 측면에서 공히 중요성을 가진 인물이므로 그간의 연구사 또한 문사철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³⁾ 또한 그는 생전에 湖南歌壇의 핵심 인물로 당시의 시풍을 선도한 인물로서 문집인 『河西全集』에 1,600수에 육박하는 한시를 남겼는데, 김인후가 문묘에 종사된 성리학자로서의 위상이 현격히 높은 탓에 그간의 연구사에서 시인으로서의 면모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면이 있었다.⁴⁾

이는 김인후에 관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개발하는 방면에도 유사하게 반복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하서전집』을 포함하여 그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문학적 유산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는 편이지만, 절의와 도학의 상징성이 높았기에 그가 남긴 한시 작품은 문화 콘텐츠 활용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 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지역의 문화 자원과 관련하여 김인후의 생애 서사와 한시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김인후의 연보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김인후 관련 문화 자원의 현황을 조망한 뒤에, 이어 지역의 문화 자원과 김인후의 작품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로써 김인후의 역사적·문학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그의 한시 작품이 대중에게 삶의 활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김인후 관련 문화 자원 현황

본 장에서는 『하서전집』 소재의 年譜와⁵⁾ 기존에 제출된 연구 성과를⁶⁾ 참조하여, 그의 생애 시기를 좇으며 현전하는 김인후 관련 문화 자원의 현황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다.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김인후에 관한 최근 연구는 성리학자로서의 김인후의 사상을 확인하고 그 위상을 타진하는 연구(서경요(2002); 김우형(2010); 권순열(2011); 서우열(2012) 등)와 그의 철학적 사유가 문학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유영희(1992); 박성규(2002); 김성진(2008); 김동하(2012); 강동석(2024) 등)의 경향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와 함께 김인후 문집 판본의 현존 상황을 조사하고 특이 사항을 분석한 이연순(2014)과 김인후의 모범적 인물 형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구명한 김남이(2015)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상기의 연구사에서 『河西全集』 번역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하서전집』은 1987년에 하서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처음 번역한 이래 1993년에 필암서원에서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이후 2024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호남 문헌 국역 및 편찬의 일환으로 현대적 언어 감각에 적합하도록 번역하고 상세한 연구 주석을 부기한 『하서전집』이 출간되었다. 본 발표문의 번역문은 호남학진흥원의 번역을, 원문은 『한국문집총간』 권33에 수록된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4) 기실 『하서전집』을 읽어보면 깊은 철학적 사유를 담은 道學詩 작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만, 자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토로한 작품도 매우 많고 당대에 문학 방면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흥문관 교리 김인후는 …… 5~6세 때에 문자를 이해하여 말을 하면 사람을 놀라게 했고, 장성하여서는 시문을 지음에 淸華하고 高妙하여 당시에 비길 만한 사람이 드물었다.”(『명종실록』 15년(1560) 1월 16일 3번째 기사) 아울러 그의 초기 관력이 승문원에서 시작된 점이나 사기독서 선발, 흥문관, 明史 집본의 제술관 차출 등의 이력에서도 그의 탁월한 문재가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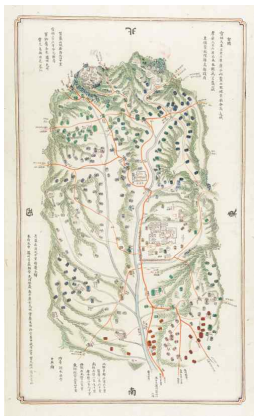
5) 金日柱가 작성한 김인후의 연보는 『하서전집』이 1802년(순조2)에 삼간될 때 추가되었다.

6) 국립광주박물관(2007),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2025), 『하서전집 해제(오보라)』, 『하서전집』1; 박성규(2002); 권순열(2011); 최영성(2017); 임우남(2002) 등.

(1) 유년기

김인후는 1510년(중종5) 전라도 장성 맥동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림 1])〈장성부 지도〉(1872), [그림 2]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일대) 자는 厚之, 호는 河西, 본관은 蔚山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동으로 불렸다. 5살 무렵에 처음으로 글을 배웠는데 부친이 『千字文』을 구두로 가르쳐 주자 김인후가 글자를 창호와 벽에 손가락에 썼다는 일화가 전한다. 또 5세에 지은 오언절구 「上元夕」과 6세에 지은 칠언절구 「하늘을 읊다[詠天]」가 『하서전집』 권7에 실려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여러 명사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전라 감사 趙元紀(1457~1533)로부터 ‘장성의 신동’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9세에는 奇遵(1492~1521)이 ‘참으로 기특한 아이다. 마땅히 우리 세자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그의 장래를 기대하며 內賜筆 한 자루를 선물로 주었다. ([그림 3]기준이 선물한 붓) 10세에는 金安國(1478~1543)에게 『小學』을 배워 학문의 길에 들어섰고, 18세에는 기묘사회로 피화되어 전라도 화순 동북에 유배온 崔山斗(1483~1536)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아울러 소시적에 宋純(1493~1582)에게도 수학하였다.

이후 김인후는 상경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는데, 19세인 1528년(중종23)에 七夕製 시험에 1등하여 당시 대제학이었던 李荇(1478~1534)에게 칭찬받기도 하였다. 이때 지은 작품이 바로 「七夕賦」로 『하서전집』 권1에 실려있다. 22세인 1531년(중종20)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26세에 잠시 고향 장성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초서로 쓴 천자문이 판각되어 유통되기도 하였다. ([그림 4]초천자 목판)



【그림 1】 장성부지도(1872)
(규장각)



【그림 2】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일대
(《중부일보》, 2019.8.14.)



【그림 3】 기준이 선물한 붓
(국립광주박물관)



【그림 4】 초천자목판
(전남 유형문화재 216호)

(2) 출사기

김인후는 31세(1540, 중종35)에 별시 문과에 丙科로 급제하여 承文院에 배속되었고 이듬해에는 賜暇讀書에 선발되어 湖堂에서 수학하였다. 이때 함께 선발된 李滉(1501~1570)·鄭惟吉(1515~1588) 등 12인과 修禊를 만들었는데, ([그림 5]〈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⁷⁾, [그림 6]〈東湖契會圖〉)⁸⁾ 이때 부터 시작된 이황과의 인연은 깊은 교분으로 이어져 서로 道義의 벗으로 대우하였다.⁹⁾

출사한 이후 김인후는 권지 승문원 부정자를 시작으로 홍문관 정자·저작·박사 및 경연관을 겸임하고 세자시강원 설서, 부수찬 등을 역임하며 승진하였다. 특히 34세인 1543년(중종38)에 홍문관 박사로서 세자시강원 설서를 겸임하였는데, 이때 동궁이었던 인종을 보필하며 知遇를 입었다. 세자는 김인후에게 손수 그린 〈墨竹圖〉를 하사하고 『朱子大全』 1질을 하사하기도 하는 등 김인후를 매우 아꼈다. ([그림 7]〈仁宗大王墨竹圖〉) 세자 시절 인종은 종종 김인후의 直所에 왕립하여 그와 학문을 논의하거나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군신 사이의 아름다운 契遇가 널리 미담으로 회자되었다. 김인후가 〈묵죽도〉를 하사받았을 때 쓴 「응제하여 세자께서 그리신 묵죽도에 적다[應製題睿畫墨竹]」가 『하서전집』 권6에 실려있다.

이해 6월에 김인후는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는데 당시 김인후는 己卯土禍로 화를 입은 ‘己卯名賢’의 伸冤을 요청하는 차자를 올렸다. 이 차자에서 김인후는 기묘명현의 신원과 함께 『소학』 등의 책을 장려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¹⁰⁾ 동년 12월에 김인후는 부친의 봉양을 이유로 외직을 청하여 사류들이 선망하는 직책인 옥당을 사직하고 玉果縣監에 제수되었다. 그의 외직 요청은 大尹과 小尹 간의 정쟁으로 조정이 분열되어 사류들이 궁중의 내분에 말려 들어갔던 상황이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나이 36세인 1545년에 인종이 즉위하였다. 당시 명나라에서 張承憲이 詔使로 오자 인종은 唱和에 응대하기 위해 당시 옥과 현감이었던 김인후를 제술관으로 선발하여 조정으로 불러들였는데, 김인후는 도성에 올라왔다가 곧장 입소로 돌아갔다. 그가 내려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乙巳土禍가 일어나 많은 사류가 화를 입었다. 이는 김인후가 환로를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년 7월에 인종이 재위 7개월 만에 돌연 승하하였다. 비보를 들은 김인후는 기절할 정도로 큰 슬픔에 잠겼다고 한다. 훗날 김인후가 인종을 그리워하며 지은 작품인 「有所思」가 『하서전집』 권1에 실려 있다.¹¹⁾ 김인후는 평생 인종을 그리워하며 죽을 때까지 매년 인종의 기일이 되면 집 남쪽의 卵山에 올라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한다. ([그림 8] 卵山碑, [그림 9] 痛哭臺) 이후 김인후는 관직에 대한 뜻을 완전히 체념하고 향촌에서 은거하였다.

31세에 출사하여 36세에 낙향하기까지 김인후가 조정에 출사한 기간은 6년 남짓이다. 그는 학술과

7) 1531년(중종26)에 사마시에 함께 합격했던 7명이 1542년에 대과에 합격한 뒤 한자리에 모인 것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이다. 참여자는 김인후·閔箕·南應雲·李澤·李樞·尹玉·鄭惟吉이다. (국립광주박물관)

8) 林亨秀·李滉·尹鉉·閔箕·朴承任·盧守愼 등 13명이 東湖에서 1545년에 모임을 가지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것이다. 여기서 김인후는 관직을 옥과 현감으로 적었는데, 제술관으로 잠시 상경했을 때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

9) 『退溪年譜』 卷1, 二十二年癸卯, “예전에 성균관에서 그대와 노닐 적에 한 마디 말에 도가 부합하여 만난 것이 기뻐다네[我昔與子遊泮宮, 一言道合欣相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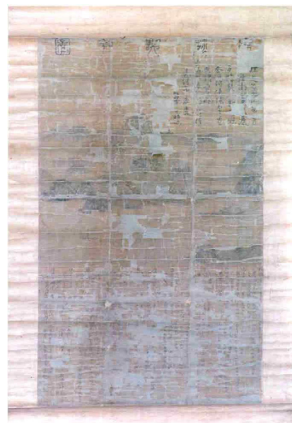
10) 해당 차자는 『하서전집』 권11에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이는 김인후가 옥당으로서 경연에 참여하여 발언한 것이기도 하다. (『중종실록』 38년 7월 20일 1번째 기사; 22일 1번째 기사)

11) 『하서전집』 권1에는 「弔申生辭」라는 작품도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驪姬의 모략에 의해 죽은 썸나라 태자 申生에 대한 弔辭인데, 통상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연결시키는 의도를 담아 지은 작품으로 해석된다.

문장으로 인정받은 인재가 엄선되는 홍문관을 역임하고 왕위를 계승할 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 관원으로
 서 동궁의 지우를 받으며 전도유망하게 승진하였다. 그러나 김인후는 이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
 었던 듯한데, 종종 말년에 시강원 설서로 영전한 뒤에 아버지의 봉양을 핑계로 귀향한 것은 그가 처해
 던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그의 낙향은 정치적 고난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라기 보다는, 세상이 화평하면 나아가 왕도정치의 실현에 기여하고 난세에는 자연으로 돌아가 修己治人
 의 학문에 정진한다는, 전통적 유가적 출처관에 부합하는 선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는 50
 세에 별세하기까지 조정의 소명에 거듭 불응하면서 자연에 묻혀 도의에 뜻을 두었던 낙향 이후의 삶을
 통해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



【그림 5】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국립광주박물관)



【그림 6】 東湖契會圖
 (국립광주박물관)



【그림 7】 仁宗大王 墨竹圖
 (국립광주박물관)



【그림 8】 卵山碑
 (전남 문화유산자료)



【그림 9】 痛哭臺
 (전남 문화유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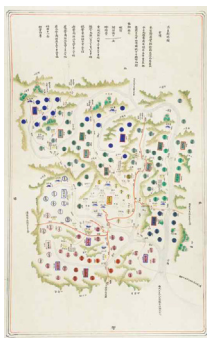
(3) 낙향기

을사사화 이후 양재역 벽서사건에 이어 정미사화(1547)가 연속으로 발발하면서 정계의 정치적 파란
 이 지속되었다. 명종 즉위 이후 조정에서는 김인후에게 성균관 전적·공조 정랑·홍문관 교리 등 여러 차
 례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그는 모두 사양하고, 39세(1548년, 명종3)에 아버이를 모시고 전라도 순창의
 鮎巖村에 이주하여¹²⁾ 訓蒙齋를 짓고 후학 양성과 학업에 몰두하였다. (【그림10】〈순창군지도〉(1872),

【그림11】훈몽재¹³⁾ 이 시기에 그의 문하에서 梁子徵(1523~1594)·鄭澈(1536~1593), 奇孝諫(1530~1593), 柳景濂(?~?) 등이 수학하였고 성리학의 핵심 개념을 도식으로 표현한 <天命圖>가 완성되었다. (【그림 12】<河西金先生天命圖>) 이후 40세(1549, 명종4)에 부친이 별세하였고 이듬해에 순창에서의 살림을 접고 장성으로 돌아왔으며, 장성에 돌아온 이후에는 순창을 간간히 왕래하면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48세에 『周易觀象篇』, 『西銘事天圖』 등을 저술하였고 49세에 奇大升(1527~1572), 李恒(1499~1576) 등과 「太極圖說」 등에 대해 논변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등 낙향 이후 김인후는 호남 지방 도학을 선도하는 학자로서 성리학의 妙理를 發明하는 일에 공력을 기울이며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 그의 성리학 저술은 대부분 현전하지 않지만, 도학에 대한 통찰과 조예는 수많은 詠物詩와 山水詩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포착된다.

아울러 이 시기에 김인후는 수많은 한시를 창작하였다. 그는 湖南歌壇 최초 형성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송순에게 수학하였고, 호남가단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되는 정철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되었던 만큼, 호남가단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인후 역시 호남의 풍요롭고 활달한 분위기와 낭만적 정조를 시가로 읊었던 시인이었다. 이러한 문학적 배경에 힘입어, 그의 한시는 단순히 도학자로서 載道主義에 얽매었다기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취를 평담하면서도 호방하게 구현하였다고 평가된다.¹⁴⁾ 이는 특히 호남 지역의 명소를 대상으로 지은 작품들에서 잘 드러나는데, 순천 점암촌에서 거주하는 즐거움을 담은 작품인 <魚巖雜詠>과 담양 소쇄원 원림의 경물을 대상으로 쓴 연작시인 <瀟灑園四十八詠> 및 송순의 정자인 면양정 주변의 풍광을 노래한 <俛仰亭三十詠>이 대표적이다. (【그림 13】소쇄원, 【그림 14】면양정)

51세인 1560년(명종15) 정월 대보름 무렵, 병이 깊어져 살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한 김인후는 자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을사년(1545, 명종1) 이후의 관작은 쓰지 말라” 유언하고 이튿날에 별세하였다. 장성현 대막동 願堂山에 안장되었다.



【그림 10】순창군 지도(1872) (규장각)



【그림 11】훈몽재 전경 (순창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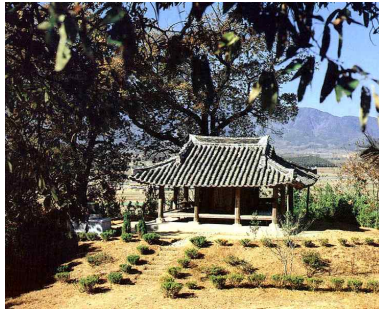


【그림 12】<河西金先生天命圖>(1578) (고려대학교)

- 12) 순창은 김인후의 처향이자 외가향이다. 김인후는 순창 사족 출신인 尹任衡의 딸과 혼인하였고 모친인 玉川趙氏도 순창 출신이다. 최영성(2017), 16면.
- 13) 김인후가 세운 훈몽재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소실되었다가 현손인 金時瑞가 先業을 계승하고자 훈몽재 옛터에 自然堂을 건립하였고, 김시서 사후 다시 폐허가 되었다가 1827년(순조27)에 김인후가 살던 집터 옆에 魚巖書院을 건립하면서 서원의 부속건물로서 훈몽재도 중건되었다. 이후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되고 1951년 6·25전쟁 때 소각되었다가 2009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최영성(2017), 21~22면.
- 14) 박성규(2002), 236면.



【그림 13】 담양 소재원
(국가유산포털)



【그림 14】 담양 면양정
(국가유산포털)

(4) 서거 이후의 추송 사업

김인후 사후에는 그의 제자와 후손에 의해 추송 사업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1564년에 옥과현에 詠歸祠가, 1570년에는 순창에 華山祠와 魚巖祠 건립되어 김인후를 제향하였고, 1590년(선조23)에는 筆巖書院이 세워진 뒤에 김인후의 강학 전통은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계승되었다.¹⁵⁾ (【그림 15】 필암서원) 1669년(현종10)에 文靖이라는 시호를 받고 이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1796년(정조20)에는 京鄕 유생들의 문묘배향 건의를 정조가 수용하여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하고 영의정에 추증하였으며 시호도 ‘文正’으로 고쳤다. 諡法에 의하면 ‘文’은 도덕이 높고 견문이 넓은 것을 이르고 ‘正’은 義로써 사람을 감화하는 것을 이른다. (【그림16】〈문묘종향교서〉)

이와 함께 김인후의 문집 역시 세 차례 간행되었다. 1568년(선조1) 김인후 사후 8년 만에 『하서집』이 초간되었는데 제자이자 사위인 趙希文(1527~1578)이 유고를 수습하고 白光勳(1537~1582)이 書寫한 것이다.¹⁶⁾ 중간본은 1685년(숙종12)에 편찬되었다. 金壽恒(1629~1689)과 김인후의 현손 金時瑞(1652~1707)·외증손 李實之 등과 함께 중간을 도모하고 朴世采(1631~1695)의 편찬을 거쳤으며 서문은 宋時烈(1607~1689)이, 발문은 박세채가 썼다.¹⁷⁾ 1796년(정조20)에 정조가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하고 그의 유집을 간행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것이 기존 문집에 金一柱의 『연보』를 합간한 삼간본으로¹⁸⁾ 다수의 소장처에 소장되어 있다. 1802(순조2)에 간행된 이 판본은 『한국문집중간』의 영인 대본이기도 하다. (【그림17】『하서전집』 삼간본)

문집의 중간과 더불어 김인후를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인후의 행력은 원집에서는 梁子微이 작성한 家狀이 수록되었다가, 중간본에는 이것이 제외되고 박세채가 작성한 行狀(1672)과 이를 바탕으로 송시열이 저술한 「신도비명」(1672)이 포함되었다.¹⁹⁾ 이들의 서술에는 기묘사

15) 1590년(선조23) 장성 岐山에 세워진 서원은 전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24년(인조2)에 재건되었고, 1662년(효종9)에 필암서원으로 사액되었다. 필암서원은 고종대의 서원철폐령에도 毀撤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16) 이 초간본은 완본이 현전하지 않고 零本(권3~6)이 고려대학교 만송문고(D1-S60C)에 소장되어 있다. 이하 『하서전집』의 간행 경위 및 판본 비교연구는 이연순(2014) 참조.

17) 중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681 ; 奎4977 ; 奎7729) 및 고려대학교(D1-A60) 등에 소장되어 있다.

18) 이후 1916년에 『河西全集續編』 1책이 초간되었고 1940년에는 2책 3권으로 중간되었다. 1980년에는 하서선생기념사업회에서 『하서전집』 삼간본과 『속편』들을 합본하고, 「하서초천자문」·「무이고곡가행서」 등을 함께 영인하여 문집 8책, 속편 2책의 『하서전집』 영인본을 출간하고 1987년에는 국역본을 냈다. 1993년에는 필암서원에서 속편의 오류를 바로잡아 『하서전집』 영인본과 국역본을 출간하였다.

19) 김인후의 선업이 후대에 계승된 데에는 현손 김시서의 헌신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송시열을 비롯한

림의 복권이라는 당대 사류의 염원을 실천한 김인후와 그를 깊이 인정한 인종의 모습이 특히 강조되었는데, 서인계 유력인사가 참여한 추송 사업을 거치며 김인후는 도학 절의 문장을 완비한 인물로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²⁰⁾ 이것이 18세기 정조대의 문묘종사 성사로 이어지면서, 김인후는 聖學의 정통을 계승한 인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되었고 선비와 스승의 표상으로서 오랫동안 후인들에게 추앙받았다.



【그림 15】 필암서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그림 16】 1796년 문묘종향교서
(광주박물관)



【그림 17】 『하서전집』 삼간본(1802)
(국립중앙도서관)

3. 지역의 문화자원과 결합한 콘텐츠 활용 방안

(1) 담양 소쇄원 : 하서의 시선을 좇아가는 원림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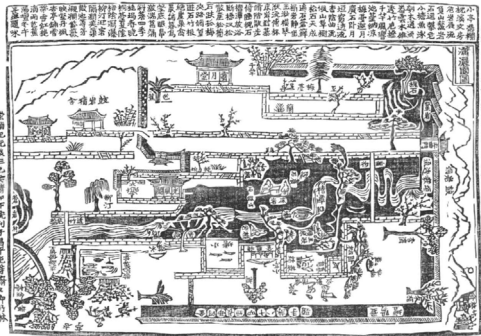
소쇄원은 전남 담양군 소재의 한국의 대표적 園林이다. 김인후는 독자적으로 원림을 경영하지는 않았지만 瀟灑園을 자주 방문하였고 이곳을 읊은 한시 작품이 『하서전집』에 적지 않게 남아있다. 그는 소쇄원의 주인인 梁山甫(1503~1557)의 사돈이자 절친한 사이였는데, 趙光祖의 문인이었던 양산보는 기묘사화 이후 서울을 떠나 旆山에 거주하였다. 양산보와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현실 정치를 떠나 관료 생활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왔던 김인후는 양산보와 깊은 교분을 나누며 서로의 거처를 왕래하였다.²¹⁾ 특히 김인후는 소쇄원을 한 번 방문하면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무

노론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문집 중간을 주도하였으며, 문집에 송시열의 서문과 신도비문 등을 받아 선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노력이 훗날 김인후의 문묘 종사가 성사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다. (최영성(2017), 32면)

20) 김남이(2015)는 김인후의 추송이 李珥 등 서인계 인물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과 병행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서인의 자신들의 학문 계보를 수립하고 학통의 정당성을 도덕과 의리의 차원에서 확보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김인후가 학행을 완비한 인물로서 定位되었다고 분석하였다. (75면)

엇보다 그가 소쇄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소쇄원 공간을 주변 승경을 대상으로 78수나 되는 많은 시를 남겼고 그 대표적인 것이 〈瀟灑園四十八詠〉이다.

한편, 소쇄원은 1775년(영조51)에 제작된 소쇄원의 목판인 〈瀟灑園圖〉가 남아있어 이를 통해 조선 시대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목판 위쪽에는 김인후의 〈소쇄원48영〉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 외곽에는 ‘蒼菴村 鼓巖洞 …… 黃金町 有尤庵先生筆’이라 적혀 있어 원림 내부에 송시열의 필적이 남아있음을 밝혔다. 이외에 건물과 식물의 명칭과 바위다리·물레방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림 18】〈瀟灑園圖〉(『瀟灑事實』)



【그림 19】〈소쇄원안내도〉

〈소쇄원도〉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구성은 유지되고 있지만, 현전하지 않는 건물이 많고 풍광의 변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실 〈소쇄원도〉의 제작 시기가 소쇄원의 조성 시기보다 200년 이상 후대이기 때문에, 〈소쇄원도〉에 그려진 원래의 풍광을 김인후가 〈소쇄원48영〉으로 읊은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확실한 것은 〈소쇄원48영〉과 〈소쇄원도〉는 김인후가 인식한 공간적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따라가면 독자는 김인후의 시선을 통해 소쇄원을 감상할 수 있다.

숲 끝 매대가 그대로 시원한데
 유독 달 떠오를 때 마땅하네
 가장 사랑스럽긴 구름 다 흩어지고
 차가운 밤 빙설 같은 자태 비추는 것일세
梅臺에서의 달맞이

林斷臺仍豁
 偏宜月上時
 最憐雲散盡
 寒夜映氷姿

푸른 하늘 달 아래 드러누우니
 바로 바위를 깔개로 삼네
 긴 숲에 맑은 그림자 흩어지니
 밤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네
너럭바위에 누워 달을 보며

露臥青天月
 端將石作筵
 長林散清影
 深夜未能眠

〈瀟灑園四十八詠(소쇄원사십팔영)〉
 (『하서전집』 권5)

21) 박성규(2002), 248~249면.

위의 두 작품은 달밤의 소쇄원에서 梅臺와 너럭바위를 읊은 것이다. 시인은 숲을 벗어난 곳에 자리 하여 시야가 환히 트인 곳에 위치한 누대에서 달을 바라보고, 또 너럭바위를 돛자리 삼아 홀로 누워서 쏟아지는 달빛을 보고 있다. 작품에 묘사된 넓고 청명한 공간은 세속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며 이는 곧 ‘瀟灑’와 어울리는 미감이기도 하다.

사실 소쇄원을 잠깐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공간의 미감을 제대로 포착하고 감상하기란 쉽지 않다. 경물 하나하나에 애정을 담아 소쇄원의 정취를 묘사한 김인후의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는 현재의 시야에 김인후의 시선으로 묘사된 소쇄원이 중첩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과 결합한 작품 감상은, 소쇄원과 김인후의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애호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또 소쇄원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라도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광을 모두 경험하기란 쉽지 않고, 어떤 이는 황량한 겨울에 앙상한 나무와 말라붙은 개천의 물을 보고서 실망하여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소쇄원48영>은 변화하는 사계절 속에서 변화하는 풍광을 섬세하게 읊은 작품이기에, 김인후가 깨끗하고 탁월하게 묘사한 풍광을 통해 독자는 보지 못한 계절의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다. 이에 김인후의 시편과 소쇄원의 풍광을 결합하여 감상할 수 있는 큐레이팅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러한 상상력을 기술적으로 보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증강현실²²⁾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의 풍경에 특정한 이미지를 덧입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림 18】에 따르면 본래 소쇄원으로 입구로 들어가는 담장에 본래 <소쇄원48영> 手題가 걸려있었다고 한다. 이를 물리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높은 비용이나 경관 훼손의 문제가 있지만,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그러한 우려 없이 시각화하여 — 카메라로 비춘 풍경 속에서 소쇄원 담장에 글씨가 쓰여진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인후 생전의 소쇄원에는 존재했다가 현재에는 없어진 정자 혹은 경물이나 작중에 묘사된 계절에 따른 풍광의 변화 역시 현실 풍경 위에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이는 충분히 상용화된 기술이기에 방문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상상력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스마트 안경 등의 도구가 보편화된다면, AR 콘텐츠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순창 훈몽재 : 하서의 학문 과정 엿보기

김인후는 1545년(인종원년)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장성으로 돌아온 이후, 1548년(명종3)에 부모님을 모시고 순창 점암촌에 옮겨가 거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訓蒙齋를 짓고 후학 양성과 학문 연구에 정진하였다. 그가 이주를 택한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인종이 갑작스레 서거하고 이어 을사사화로 인해 조정의 사류들이 죽거나 유배를 당했던 정치적 상황이 큰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인후가 순창에 거주한 기간은 2년 반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았지만, 출사를 단념하고 본격적으로 성리학에 깊이 몰두하여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정리하면서 학자로서 발돋움하는, 생애의 중요한 국면이 걸려있던 시기이다.

김인후의 처향이자 외가향인 점암촌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큰 냇가 고을을 가로질러 흘러서 빼어난 경치와 그윽한 정취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김인후는 한편으로는 학문과 강학에 집중하고

22)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Reality)을 기반으로 정보를 증강(Augmented)을 제공하는 기술로, 가상의 대상을 결합시켜 현실의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다. 즉, 현실 세계의 실제 모습에 가상 현실이 추가된 것이다. (Wikipedia)

한편으로는 지역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활발하게 문학 활동을 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하서전집』에서 점암촌에서 창작한 작품은 34수 남짓 확인된다.²³⁾ 그 가운데 〈魚巖雜詠〉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28수 남아있는데, 점암촌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그때그때 지은 것이다. 또한 같은 운자를 써서 지은 古詩인 〈岑夫子歌〉·〈次贈梁甥仲明〉·〈空同子歌〉 세 작품은 자신의 일상을 성리학이라는 체제 속에 구성해가는 과정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김인후의 학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잘 드러난다.

《동몽수지》《소학》은	童蒙須知小學書
경 한 글자에 심·성·정을 다 갖추었네	一敬已該心性情
양지는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이니	良知不待學而能
부모와 형 벗어나서 어찌 긴요한 것 있으리오	真切豈外親與兄
천하의 통달한 도는 이로 말미암아 나오니	天下達道由此出
《근사록》 한 책이 자상하고 또 정밀하여라	近思一編詳且精
정성스러운 〈훈자시〉 낱낱이 따져보면	丁寧剖析訓子詩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오름이 아닌 것 없네	莫不自卑登崢嶸
장을 나누고 구를 풀이하며 글자뜻 밝히니	章分句解字明訓
궁실을 크게 열고 큰 종을 울리는 듯	宮室大開洪鐘鳴
배를 저어 한 번 노질도 방심하여 늦추지 말고	撐舟莫放一篙緩
물결 넘실거리는 수사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	上泝洙泗波粼粼

〈사위 양중명 양중명의 시에 차운하여 주다[次贈梁甥仲明韻]〉
 (『하서전집』 권4)

이 작품은 김인후가 사위이자 제자였던 梁子澂의 시에 차운한 작품으로 총 3수인데 인용문은 제1수의 일부이다. 인용문 앞의 내용은 孔子 이래로 무너진 正學의 계보를 서술하고 그 집대성자로서 朱熹를 추앙하였다. 이어지는 인용문에서는 주희의 저작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親親의 일상 윤리에서 卍天下로 확대되는 성리학 공부의 방법론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正學의 學脈을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먼저 『童蒙須知』와 『小學』 등 학문의 출발점에서 배우는 책을 언급하면서 이 책의 핵심이 ‘敬’에 있으며 여기에 인간의 마음·본성·감정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하고, 인간은 良知라는 타고난 윤리적 가능성을 갖춘 존재이므로 수양을 통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언급한 ‘訓子詩’는 〈訓蒙絕句〉로 추정되는데, 天·心 등 초학자가 알아야 할 유학의 기본 개념들을 주희가 101수의 칠언절구로 풀이한 것이다.²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향하는, 일상의 윤리에서 출발하여 보편의 이치를 깨닫는 下學上達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도덕적 인간에 이르고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천하에 관통하는 경지에 오르는 학문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정진하여 학문의 본원에 도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수신자인 양자징을 격려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은 학문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평가를 받는 김인후만을 알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부터 특정 학문 체계를 완비하여 갖춘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위대한 스승이자 학자로 추앙받는 김인후 역시 주자학이라는 사유의 방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때문에 성리학에

23) 임우남(2022), 270면.

24) 김남이(2017), 133면.

대한 전면적인 몰두를 시작한 순창 은거 시기의 작품들은, 바로 김인후가 학문적으로 성숙하고 도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²⁵⁾ 독자는 이러한 작품의 감상을 통해 김인후의 삶과 학문에 대해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으며, 이로써 독자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림 20】 훈몽재 〈선비의 길〉 트래킹코스 안내도 (순창군청)

학문에의 정진을 다짐하고 발전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김인후의 작품들은 특히 訓蒙齋의 증건 의의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순창군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따르면 훈몽재에서 추령천 주변길을 따라 조성된 트래킹코스인 ‘선비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상기의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가이드를 제시한다면, 선비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되새기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하는 산책이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3) 장성 필암서원 : 하서가 남긴 보물찾기

김인후 사후, 그에 대한 숭모 활동이 전라도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1590년(선조23)에는 김인후의 고향인 장성에 서원을 건립하고 제향하였는데, 이 서원이 바로 1662년(현종3)에 賜額된 筆巖書院이다. 사액으로 조정의 공인을 받은 이후 필암서원은 선조의 현양과 학통의 계승, 후학의 양성 및 향촌 사족의 활동 근거지로서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었고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서인계 서원의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필암서원은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은 서원철폐령을 거치면서도 훼손되지 않은 전남 유일의 서원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필암서원의 중요성 중 하나는 제향과 강학이라는 서원 고유의 기능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점이다. 물론 주향자에 대한 제향은 다소 상징적인 것이지만, 강학에 해당하는 경서 강독이나 초등학생의 백일장 등 교육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인후의 자취와 필암서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필암서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자 장성의 중요 문화재이지만, 공간 구조는 자체는 전면의 강학 공간과 후면의 제향 공간이라는 ‘前學後廟’의 서원의 공통 요소를 갖추고 있기에 건물의 배치만 놓고 보면 방문자의 입장에서는 여타의 서원과 비교하여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필암서원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주향자인 김인후를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암서원이 김인후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관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필암서원이 소장한 김인후와 관련 유물자료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인종의 知遇를 상징하는 <목죽도>를 판각한 목판이다.²⁶⁾ 1543년(중종38)에 김인후는 세자시강원 설서를 맡아 6살 연하인 李峤

25) 김남이(2017), 126면.

26) 이 <목죽도>는 나주 목사 朴東說에 의해 목판으로 인각되어 유통되었다. 한편 필암서원에 소장 중이던 <목죽도> 목판은 2006년에 도난되었다가 2021년에 회수되었다. (《경향신문》 2021.2.2.)

(1515~1545)를 처음 만났다. 1520년에 세자에 책봉된 이래 평생 정치적 긴장 속에서 살았던 그는 김인후를 특별히 아끼고 믿었는데, 그 증표가 바로 김인후에게 선물한 <묵죽도>와 『주자대전』이다. 『주자대전』이 학문에 정진할 것을 격려한 뜻을 담은 물건이라면 墨竹은 군신 관계에 변함없는 신뢰를 기약한 것이었다. 세자가 그려서 내려준 <묵죽도>에 김인후는 다음과 같은 詩題를 써 넣었다.



【그림 21】 <묵죽도> 목판
(필암서원)

뿌리 가지 마디 잎새 모두가 정미하여
돌을 벗 삼은 정신이 주위에 서려 있네
세자의 숨씨가 조물주와 나란하시니
온 천지가 어기지 못함을 비로소 알겠네

根枝節葉盡精微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侔造化
一團天地不能違

〈응제하여 세자께서 그리신 묵죽도에 적다[應製題睿畫墨竹]〉
(『하서전집』 권6)

세자의 <묵죽도>는 무성한 이파리의 대나무가 돌과 함께 그려져 있다. 이를 본 김인후는 정미한 대나무가 돌을 벗으로 삼았다고 하면서, 세자는 대나무에 자신은 대나무를 지키는 ‘돌’에 비유하였다. 세자가 선사한 묵죽에 대한 화답으로 돌과 같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 결심은 김인후의 평생에 유지되었거니와, 묵죽도와 시제에 담긴 군신 간의 교감은 후대에 길이 미담으로 전승되었다. 이처럼 <묵죽도> 그림에 더하여 김인후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김인후의 삶과 정신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묵죽도>뿐만 아니라 필암서원에는 현판 하나에도 정조의 어필이 있을 정도로 서원 곳곳에 보물 같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에, 각 유적·유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서원 탐방을 주어진 동선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일종의 수집형 게임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서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남겨주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서원 곳곳에 QR코드를 숨겨놓고, 이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장소의 특별한 유적·유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아이템을 수집한 뒤에 마지막으로 유물전시관을 둘러보면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하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이해도를 함께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제향 공간인데, 신성한 공역이므로 대부분 평시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원을 방문해도 주향자를 만나볼 수 없는 것인데, 잠겨있는 사당 너머의 제향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이 있으며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이 역시 교육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 중기 호남을 대표하는 도학자이자 시인인 김인후의 삶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전라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결합하여 김인후의 한시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김인후는 단지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성리학적 이념을 실천하고 명사들과 교류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안타깝게도 그의 「서명사천도」·「주역관상도」 같은 본격적인 성리학 저술은 소실되었지만, 김인후의 삶과 학문, 사상, 문학의 실상은 『하서전집』에 수록된 시문 및 후인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후인들의 역할은 김인후가 남긴 지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널리 확산하는 것에 있을 터이다. 본고에서 몇 가지 거친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김인후와 관련된 문화 자원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이 제시된다면, 김인후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의 작품이 대중에게 삶의 활력과 감동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덧붙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첨언하자면, 지자체 혹은 관련 단체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및 핸드아웃과 학습 활동 등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신뢰도와 충실성을 갖춘 잘 가공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김인후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물론 현장의 교수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金麟厚, 『河西全集』, 『한국문집총간』33, 한국고전번역원.
 金麟厚 著; 문희숙 外 譯(2025), 『하서전집』1~3, 한국학호남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국역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 강동석(2024), 「김인후의 실천과 균형적 문학관」, 『한민족문화연구』87, 한민족문화학회.
 권순열(2011), 「하서 김인후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28, 한국고시기문학회.
 김경호(2013), 「그리움의 분노 -하서 김인후의 통곡과 유소사」, 『한국인물사연구』19, 한국인물사연구회.
 김남이(2015), 「河西 金麟厚 상의 형성과 그 시대적 맥락」, 『동양고전연구』59, 동양고전학회.
 김남이(2017), 「河西 金麟厚의 <岑夫子歌> <空同子歌> <次贈梁甥仲明> 연구」, 『韓國漢詩研究』25, 한국한시학회.
 박성규(2002), 「河西 金麟厚의 自然詩 研究」, 『한문교육논집』18, 한국한문교육학회.
 이동희(2004), 「전북 순창의 훈몽재와 하서 김인후」, 『전주사학』,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이연순(2014), 「河西 金麟厚 문집 판본 연구」, 『동양고전연구』56, 동양고전학회.
 임우남(2022), 「순창 점암촌 시기 하서 김인후의 『魚巖雜詠』 연구」, 『한국언어문학』122, 한국언어문학회.
 정익섭(1987), 「湖南歌壇에서의 河西 金麟厚의 위치」, 『동양학』1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최영성, (2017), 「河西 金麟厚의 淳昌에서의 講學 활동」, 『유교사상문화연구』69, 한국유교학회.

하서 김인후, 지성과 실천

☞ ≪ 토론문

「하서(河西) 시의 두 갈래 주정적(主情的) 흐름과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이국진 강원대학교

「호남의獅子, 하서 김인후의義理와 시대정신[時習]」에 대한 토론문
진성수 전북대학교

「하서 김인후의 교육활동과 門人들」에 대한 토론문
정영수 전남대학교

「조선후기 하서 김인후의 贈諡와 文廟從祀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근호 충남대학교

「『河西全集』 소재 한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송희 울산대학교

「하서(河西) 시의 두 갈래 주정적(主情的) 흐름과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이국진(강원대학교)

본 발표문은 하서 김인후 시의 주정적 성격이 어떤 주제적·사상적 기반을 가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하서 시의 주정성이 드러난 경로나 배경이 작품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하서의 시세계와 작가적 특징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공부의 기회를 주신 발표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본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주정적’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이나 의지보다 감성을 중히 여기는 ‘주정적’인 측면은 사실 시의 본질이 아닌가? 발표문 2쪽에서 소개한 두 작품에서 하서가 언급한 ‘성정’과 ‘주정적’인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서 시의 ‘주정적’ 흐름은 다른 문인들의 유사한 제재의 시와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발표문에서 사용하신 ‘주정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3장 1절에서 인종 승하 이후의 시는 정서 표현의 편차가 크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인종 승하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 반응의 시작품과 달리, 하서가 도학적 자세를 견지하려는 작품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고난의 시절을 맞이하면, 한편으로는 실의와 상념에 휩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성과 의지를 북돋우기도 하며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이 인지상정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3장 1절 마지막 문장에서 “하서의 강렬한 감정 표출, 비분강개의 토도로 언급되는 주정의 흐름은 특정 대상을 향하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도의로 수렴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장의 의미와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3장 2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하서가 증점의 기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관련된 『논어』의 구절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장 2절 마지막 단락에서 “『하서집』에는 자연 속의 즐거움을 노래하거나 정신적 자유를 회구하는 작품, 때로는 특정한 장면에서 호방함을 드러내거나 분방함으로 치닫는 작품들이 있다. 이것은 상대와의 관계, 또는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하서가 ‘체인(體認)’을 강조했던 증점 기상에 담긴 자유의 향유, 예술 지향적인 삶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서가 지은 ‘자연 속의 즐거움을 노래하거나 정신적 자유를 회구하는 작품, 때로는 특정한 장면에서 호방함을 드러내거나 분방함으로 치닫는 작품들’은 다른 문인들이 창작한 유사한 분위기의 작품들과 변별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남의 獅子, 하서 김인후의 義理와 시대정신[時習]』에 대한 토론문

진성수(전북대학교)

1. 글을 시작하며 * <따옴표(“ ”) 부분은 필자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임>

저(이하 평자)는 ‘유학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용재 교수(이하 필자)의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학술대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평자는 필자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에서 학술적 인연을 맺은 후 약 40여 년간 다방면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연구 분야에서 한국양명학(경학)을 전공한 필자와는 달리 평자는 주역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자는 세부전공과는 무관하게 필자가 그동안 쌓아 온 연구 성과에서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깊은 통찰을 얻는 기쁨을 누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후학들을 위해 유학의 대중화·현대화 및 현대사회에서 유학의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하서전집』 국역을 통해 본 학문과 사상의 현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볼 때, 필자의 글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1. 序 : 과연 김인후의 시대정신은 현재와 소통할 수 있을까?>에서 “전통과 현재, ‘김인후’의 선비정신으로 공감·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소통의 중요성과 공유·공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자는 기본적으로 필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논문에서 필자의 문제의식과 논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특히 오늘 학술대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 몇 가지 질의를 통해 필자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필자의 후속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 질문사항

2-1.

필자는 <2-2) 하서 김인후를 왜 ‘사자(獅子)’라 표현하는가?>에서 ‘獅子에 ‘스승 師’와 ‘스승 子’를 붙여 후한 대접을 보인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당장 필요한 눈앞의 기술교육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獅子’의 한자 표기를 보면, ‘멀리 생각하라’는 《논어》의 문구가 떠오른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용적인 기술교육에 천착했던 독일은 유럽 최강의 기술·과학 강국이 되었지만 1.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패했다. 그러나 먼 미래를 설계하도록 ‘인성교육’과 ‘인문주의 교육’에 힘썼던 다른 나라는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람됨’이고 ‘어울림’이다. 필자는 이를 ‘관계론의 패러다임’이라 정의한다.’라고 서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자가 언급한 “먼 미래를 설계하도록 ‘인성교육’과 ‘인문주의 교육’에 힘썼던 다른 나라는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다.”에서 “다른 나라”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

필자는 <4. 結, 1) ‘時宜性’과 실천>에서 “김인후는 기묘사화 때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현실의 부당함과 그릇된 처우를 개혁하려는 도덕성이라 여겼다. 그 부당함에 대한 감정이 수용되지 않자, 직접 행동으로 표출하였고, 그것은 관직에 대한 고사와 낙향이다. 이는 기존의 주지주의와 확연히 다른 ‘주정주의’ 혹은 ‘反주지주의’라 말할 수 있다. ‘이성’이나 ‘지성’보다, ‘감성’이나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정주의는 늘 이론 습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자신이 판단한 가치관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인후가 보여준 처사로서의 삶은 ‘사회적 反響’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자가 언급한 “김인후가 보여준 처사로서의 삶은 ‘사회적 反響’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에서 김인후의 출처관이 당시 유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향을 일으켰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필자는 <4. 結, 2) 風乎舞雩를 재현하는 의연한 삶>의 마지막 단락에서 “김인후의 처신이야말로 ‘나라가 평안할 때 슬기롭게 처세하는 것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나라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혼란하게 되자 목숨을 내놓으며 할 말을 하고 낙향하는 모습이야말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자가 언급한 “목숨을 내놓으며 할 말을 하고”에서 김인후가 낙향을 결심하고 했던 말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글을 마치며

필자의 논문을 통해 평자는 호남을 대표하는 도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철학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논문들은 일반인들에게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자칫 어렵게 서술될 수도 있었던 철학적인 내용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집필해 주었습니다. 내공과 연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서 김인후의 교육활동과 門人들」에 대한 토론문

정영수(전남대학교)

『논어』 「선진」편에서 공자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 10명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덕행에 뛰어난 제자로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증궁이 있었고, 언변이 뛰어난 제자로는 재아, 자공이 있었고, 정치에 뛰어난 제자로는 염유, 자로가 있었고, 문학에 뛰어난 제자로는 자유, 자하가 있었다.”¹⁾ 이것은 ‘사과십철(四科十哲)’이라 하는 데, 일반적으로 공자의 가장 뛰어난 10명의 제자를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이 구절은 공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자의 교육 내용은 덕행, 언변, 정치, 문학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논어』 가운데 10명의 제자와의 문답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자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자와 제자 사이의 문답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철학자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홀로 한 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분석하는 것 또한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이다. 발표 논문은 ‘사승관계와 교육활동 과정’을 살핍으로써 김인후의 교육철학과 학파적 성격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김인후의 학문적 연원과 사승 관계

첫째, 김인후의 학문적 연원은 “정몽주(1337~1392) → 길재(1353~1419) → 김숙자(1389~1456) → 김종직(1431~1492) → 김굉필(1454~1504) → 김안국(1478~1543) → 김인후(1510~1560)”로 이어진다.

둘째, 김인후가 직접 배운 스승은 김안국, 최산두(1483~1536), 송순(1493~1582)이다. 김인후는 김안국에게 『소학』을 배우고 김안국의 문인인 오상, 류희춘, 정지운, 김희연 등과 교유했다. 최산두에게 굴원(屈原)의 사부(詞賦)를 익혔고, 최산두의 문인인 유희춘, 윤사율, 최연희 등과 교유했다. 송순에게 경전이나 시부(詩賦)를 배웠다.

② 김인후의 ‘교육활동 및 제자 양성’ 3시기

첫째, 옥과현감 시절. 『효경간오』를 강학했으며, 제자로는 허소, 허계, 조희문 등이 있다.

둘째, 순창 점암촌에 ‘훈몽재’를 짓고 강학하던 시절. 제자로는 양자징, 조희문, 정철, 변성온, 기효간, 이지남 등이 있다. 양자징은 『송사』를, 정철은 『대학』을, 이지남은 『초사』를 배웠다.

셋째, 장성 맥동의 ‘백화정’에서 강학활동 하던 시절. 이 시기는 자신의 성리학적 견해를 정립하고 표명하던 시기이다. 장성, 광주, 나주, 고창, 부안 출신의 제자인 기효간, 이각, 이언양, 김제안, 김계 등이 있다.

1) 『논어』 「선진」 2장.

③ 37명의 김인후 문인

『하서집』에 교육한 시(詩)와 문(文)을 일일이 분석하여 37명의 ‘문인록’을 도표화했다. 이 가운데 17명의 생애와 학문 성향, 스승 김인후와 관련된 시문을 정리하고 있다.

발표 논문은 『하서집』에 흠어져 있는 시(詩)와 문(文)을 분석하여, 미정본이지만 문인록을 도표화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비전문가가 읽기에는 소략해 보이지만 그것을 직접 연구하고 글을 쓴 사람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논평문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한 사람의 철학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저작 및 타인과 주고받은 글을 폭넓게 분석해야만 한다. 안동교 선생님의 논문은 김인후와 그 제자들 간의 시(詩)와 문(文)을 분석함으로써 김인후의 철학적 특성과 학파적 성격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안동교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서학파’라는 용어는 가능한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파’라는 말의 의미는 철학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적, 학문적 공동체를 가리킨다.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공유하는 ‘철학적 문제의식’이 있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간 흔적이 있어야만 하나의 학파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에서 언급했듯이, 안동교 선생님의 논문 출발점 또한 ‘하서학파’라고 일컬을 수 있는 학문적 연관성을 찾기 위해 문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논평자가 보기에 스승인 김인후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계승 발전’의 면모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동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하서학파’의 ‘학문적 연관성’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발표 논문은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문집에 보이는 시(詩)와 문(文)의 분석을 통한 철학 및 인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 방법’을 묻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시대 유학자의 저작을 살펴보면, 저서나 주석서 이외에 문집에 실려 있는 시(詩)와 편지[書]를 비롯한 다양한 글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들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발표 논문은 이전 연구들이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시(詩)와 문(文) 분석을 통해 사승 관계와 학문적 연관성을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신 이유 혹은 ‘오늘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선 시대 유학 연구 방법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조선후기 하서 김인후의 贈諡와 文廟從祀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근호(충남대학교)

본고는 조선 후기 ‘동방의 주자’ 혹은 ‘호남의 공자’로 칭송되던 호남의 대표적 유학자 김인후에게 증시(贈諡, 加贈, 改諡 포함)되는 과정과 문묘에 종사되는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기존에 이와 관련해서는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어 증시, 문묘종사 과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되, 특히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에 전래된 고문서(해당 문서는 2001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됨)를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를 진행한 장점이 있다. 연구 결과는 김인후의 증시와 문묘종사 과정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조선 후기 증시 행정 및 문묘종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실증적인 검토이기에 특별히 이견은 없지만, 몇몇 보충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자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 현종대 김인후가 추증되고 증시가 내려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김인후는 1668년(현종 9) 4월 이조정랑 이단하의 요청에 따라 추증이 되고 다음 해에 ‘文靖’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단하가 김인후의 “높고 고상한 절조[高風峻節]”를 제시하며 추증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 시기 이단하는 김인후를 주목하였는가? 이단하가 김인후를 주목한 것은 “호남사론(湖南士論)”에 근거한 것이다. 김인후의 추증이 포함된 장소는 “논호남사소(論湖南事疏)”인데, 이 장소는 표면적으로 이단하가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받아 호남에 내려갔을 때 수령과 사민(士民) 등을 만나 들은 호남의 폐막(弊癘)을 진달한 것이다. 해당 장소에서 환곡과 양역 등의 문제와 함께 ‘호남사론’을 들어 김인후의 추증을 요청하였다. 이단하의 상소를 보면, 당시 호남에는 김인후의 추송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호남의 사론을 들어 중앙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생각된다. 물론, 앞서 김인후를 제향하는 대표적인 서원인 필암서원에 사액이 되는 과정이 있어 김인후의 추송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판단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낱장으로 전하는 고문서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提高)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조 등이 김인후에 대한 치제문을 내리게 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일까요? 필자의 서술에 따르면, 정조대인 1798년(정조 10)과 1789년(정조 13), 1796년(정조 20)에 내린 치제문과 1828년(순조 28) 효명세자가 대리청정하면서 내린 치제문, 1855년(철종 6)에 내린 치제문이 전해진다. 국왕이 신하에게 치제문을 내리는 것은 국왕의 고도의 정치 행위로, 특정인을 기리면서 일정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이다. 각각의 시점이나 시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치제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내용과 관련되는데, 정조대 김인후의 문묘종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인가? 필자의 서술에 따르면, 김인후의 문묘종사는 1771년(영조 47) 유생 양학연(梁學淵) 등의 논의(해당 상소를 올렸다고 하지만 연보에서는 未徹이라고 함)를 시작으로, 이후 1786년(정조 10), 1789년(정조 13) 등을 거쳐 1796년(정조 20)에 문묘종사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1771년 문묘종사 논의를 시작한 시기, 양학연이 발의하고 정길(鄭桔)이 소두(疏頭)로 하여 성균관에 보낸 통문에 대해 성균관에서 “하서의 절의는 당시 제일이지만 사문에 끼친 공로가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河西節義 固當時一人 而斯文之功未甚著]”(황윤석, 『이재난고』 1770년 12월 2일조)라고 하는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김인후의 문묘종사에는 “사문지공”을 내세워 주저하는 여론이 있었던 듯한데, 문묘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여론이 무마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김인후의 절의와 학문에 대한 평가는 이미 송시열이 신도비명에서 제시한 바 있다. 즉, 송시열은 신도비명에서 김인후를 도학·절의·문장을 겸하였던 인물로 평가하며, 그를 절의로 논하는 것은 천견(淺見)이라 하였다. 그런데, 김인후의 문묘종사 논의가 제기되면서 다시 “사문지공”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점은 의외이다. 필자는 김인후의 문묘종사 결정 과정에서 정조의 논리를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 같은 논의가 어떻게 가능했던가? 아울러, 앞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음에도 1796년에서야 문묘종사가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첨언이지만, 필자가 김인후의 문묘종사교서로 3종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고(再考)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김인후의 문묘종사교서로 1796년 10월 26일 작성된 교서, 1796년 11월 7일 작성된 교서, 1796년 11월 9일 작성된 교서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 중 1796년 11월 9일에 작성된 교서는 ‘頒教書’라는 이름을 붙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반교서’라 이름을 붙인 교서를 문묘종사교서로 함께 묶어서 분류할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작성된 10월 26일자 교서 및 11월 7일자 교서와 11월 9일자 교서는 형식이나 내용, 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河西全集』 소재 한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탐색」에 대한 토론문

이송희(울산대학교)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선생의 생애와 한시 작품을 지역의 문화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 본 발표문은, 하서 선생의 문학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그의 한시가 현대 문화콘텐츠로서 지닌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큼니다. 특히 학문적 위상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선생의 방대한 한시 작품을 활용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히 화서 선생의 삶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의 작품을 통해 공간을 재해석하고 체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습니다. 본 발표의 제안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통해 토론자의 소임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문에서 제시된 AR 기술 활용 방안은 소쇄원의 현재 모습과 김인후 당시의 풍경을 중첩시켜 감상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쇄원48영>에 드러나는 김인후의 시선과 감상을 AR 이미지로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에 묘사된 '차가운 밤 빙설 같은 자태(寒夜映氷姿)' 와 같은 추상적인 심상을 AR 기술로 구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순창 훈몽재에서의 '하서의 일상 따라가기'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점암촌에서 화서 선생과 교류한 문인들의 기록을 함께 발굴한다면 16세기 전라도의 양반 문화를 보여주는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어암잡영」 외에도 화서 선생의 낙향기 삶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한시 작품이나 지역 인사와 주고받은 서신 같은 것이 있을지요? 훈몽재에서의 강학(講學) 활동이나 지역 명사들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셋째, 필암서원의 수집형 게임 제안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게임 콘텐츠를 기획할 때, 단순히 유물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김인후의 학문적 업적이나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게임의 미션과 연계하여 서사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향 공간과 같이 평시에 공개되지 않는 신성한 공간에 대해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같은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전반에 걸쳐 김인후의 인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곧은 절개'와 같은 유가적(儒家的) 출처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가치를 현대의 문화콘텐츠로 재해석할 때, 대중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 전달을 넘어, 김인후의 내면세계와 고민이 현대인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연결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